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2026. 10. 1. THU - 10. 7. WED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등
Dongseo Univ. Centum Campus, Haeundae Cultural Center, Busan Citizens Park and more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2026. 10. 1. THU - 10. 7. WED

202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WELCOME TO BPAM! 환영사·축사	P. 4
INTRODUCTION 행사소개	P. 12
SCHEDULE 행사일정표	P. 14
VENUES 행사장소	P. 22
OPENING 개막작	P. 24
OFFICIAL 오피셜	P. 28
WAVE 웨이브	P. 62
NEXT STAGE 넥스트 스테이지	P. 70
STREET 스트리트	P. 84
CONNECT 커넥트	P. 104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부산광역시장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전재수
Jae-soo Chun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네 번째 막이
올랐습니다.

부산을 찾아주신 국내외 예술가와 공연예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연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4회 BPAM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BPAM이 열리는 일주일, 부산의 곳곳이 무대가
됩니다. 산책길에 우연히 공연을 만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예술가의 몸짓과 음악에 걸음을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술가와 관객의 경계가
가까워지고, 일상 속으로 공연예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지난 2023년 첫발을 내디딘 BPAM은 자칫 문힐
뻔한 국내외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하고 예술가와
기획자, 공연 단체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는,
공연예술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에서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이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이곳에서 맺은 인연이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BPAM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작품 선정을
전문위원회 심의 체제로 전환해 예술적 완성도를
엄정하게 가려냈고, 관객평가단 도입으로 시민의
눈높이도 담았습니다. 부산 예술가들에게는 해외
쇼케이스와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길을 열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이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연예술마켓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문화예술은 도시의 품격을 만드는 자산입니다.
시민에게는 일상을 새롭게 보는 활력을 주고,
예술가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하는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예술가들이 부산에서 마음껏 상상하고, 창작하고,
세계적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그 걸음마다
함께하겠습니다.

관객의 환호와 박수는 예술가가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2026년 10월, BPAM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풍성하고 활기찬 가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전 재 수**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The four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has now begun.

I wish to extend my warmest gratitude to all
artists,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nd
audiences who have come to Busan in pursuit
of a shared affection for the performing arts. I
also want to thank everyone who contributed
to making the 4th BPAM possible through
their dedication and efforts.

Throughout the week, our city is transformed
into a variety of stages. You may encounter
an artist unexpectedly while walking and
pause to take in a unique and breathtaking
performance. As the boundary between artist
and audience begins to blur, the performing
arts will naturally become a part of everyone’s
daily lives.

Since taking its first steps in 2023, BPAM
has evolved into a global platform for the
performing arts—discovering works from
Korea and abroad that might otherwise go
unnoticed, and connecting artists, producers,
and performing arts groups to the global
market. Here in Busan, exceptional works
from around the world meet new audiences,
and connections lead to new opportunities.

This year, BPAM has taken another step
forward. We implemented a new deliberation
process introduced by our artistic committee
to rigorously focus on evaluating artistic
excellence during the work selection process,
and, for the first time, gathered insights from
an audience panel to select works that will
better resonate with citizens around the
world. BPAM has opened doors for local
artists to expand their networks worldwide

through academy programs and opportunities
to perform at overseas showcases. Ensuring
that good works do not end with a single
performance—that is the very existence of a
performing arts market.

Cultural arts are significant assets that elevate
the dignity of a city. They invigorate the daily
lives of citizens and can become the reason
for traveling to a new city. Looking ahead, the
city of Busan is committed to standing beside
our artists every step of the way, supporting
them as they go on to imagine, create, and
share the stage with their international peers.

The audience’s cheers and applause are the
best nourishment for an artist’s growth.
As we welcome the vibrant autumn of 2026,
I hope you will enjoy the diverse performances
BPAM has to offer. Thank you.

Jae-soo Chun,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송성준
Sungjun Song

“새로운 물결의 여정, 함께하는 공연예술의 무대”

공연예술은 한 번의 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품과 관객의 만남은 새로운 감동으로 이어지고, 예술가와 기획자의 만남은 새로운 협력으로 이어집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만남과 협력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4회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BPAM을 찾아주신 국내외 예술가와 공연예술 관계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산문화재단은 2023년 BPAM의 첫걸음을 시작으로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고, 예술가와 기획자, 공연단체와 국내외 시장을 연결하는 글로벌 공연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6만여 명의 시민과 300여 명의 국내외 деле이게이트가 함께했으며, 세계 36개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넓혀 부산 공연예술의 가능성을 세계와 나누었습니다.

2026년 BPAM은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창작과 유통, 교류와 성장이 이어지는 공연예술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층 더 노력했습니다. 전문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작품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의 전문성을 높였으며, 단계별 유통 프로그램과 아카데미를 통해 예술가와 기획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부산의 우수한 작품이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유통 지원을 강화하고, 공연 무대를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넓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올해 BPAM은 더욱 다채로운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무용·음악·연극·다원예술 등 여러 장르의 공연과 쇼케이스를 비롯해 포럼, 네트워킹,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자리가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가능성을 넓혀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공연예술 관계자에게는 좋은 작품과 동료로 만나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발견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세계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가까이에서 만나며 일상 속에서 예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만남이 일회성 교류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협업과 유통의 성과로 이어져, 각자의 새로운 여정을 여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BPAM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관계자와 참여 예술가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이 뜻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 성 준**

“A Journey of New Waves, A Shared Stage for Performing Arts”

Performing arts don't disappear when the show ends.

New inspiration flourishes when audiences encounter great performances, while connections between artists and buyers open the door to new collaborations. The connections and collaborations that begin in Busan are creating new possibilities for growth around the world.

Under th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the 4th annual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will take place from October 1st to 7th on a variety of intriguing stages across Busan. We heartily welcome all artists,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nd audiences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who have joined us at BPAM.

Since taking its first steps in 2023,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has grown BPAM into a global hub for performing arts—discovering outstanding works and connecting artists, programmers, performing arts companies, and markets. Last year, we let the world know the potential of Busan's performing arts scene—to 60,000 audience members, 300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legates, and through networks in 36 countries.

BPAM has worked diligently this past year to offer a platform where growth in creation, collaboration, and distribution is guaranteed and to be much more than just a market. We have strengthened the expertise of our work-discovery and selection process through our artistic committee, while investing in developing an academy program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artists and curators can easily connect, creating important milestones

for globalization. We also broadened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Busan's local works so they can be enjoyed by a wider range of audiences, bringing performing arts closer to our citizens, and making performing arts more accessible.

2026 BPAM offers an upgraded program. In addition to performances and showcases, the program features forums, networking sessions, business meetings, and more.

We hope BPAM become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artists to be inspired, strengthen their networks, and be presented with great opportunities, and for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to discover outstanding works, new colleagues, and collaborators. For citizens, we hope it will be a chance to experience diverse performing arts from around the world up close and enjoy the pleasure of art as part of everyday life.

May the connections formed at BPAM go a long way towards becoming tangible collaborations and distribution opportunities, giving each of us the momentum to embark on a new journe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everyone who has contributed their time and dedication to this year's BPAM, as well as to all the participating artists. I hope that everyone joining us will have a meaningful and enjoyable time at BPAM.

Thank you.

Sungjun Song,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환영사 Welcome Speech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of BPAM

김형준
Casa Kim

올해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을 찾아주신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와 예술가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간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제 공연예술 마켓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온 BPAM이 어느덧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BPAM은 부산이 지닌 개방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세계의 공연예술을 연결하고, 새로운 협업과 유통을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BPAM은 작품이 새로운 맥락과 관계를 만나 그 가능성을 확장해가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공연예술의 유통은 작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물리적 이동을 넘어, 작품의 예술적 가치와 창작적 맥락이 새로운 관객과 지역, 예술 생태계와 만나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올해 BPAM에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창작 언어로 오늘의 시대와 호흡해 온 다양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인간과 사회, 신체와 존재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기술 시대의 새로운 감각과 가능성,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이르기까지, 각 작품은 저마다의 시선으로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추천과 공모를 통해 만난 이 작품들은 하나의 경향이나 기준에 갇히지 않고 오늘날 공연예술의 폭넓고 역동적인 창작 지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마켓의 역할은 각 작품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어떤 맥락과 경로를

통해 세계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을지를 함께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2026 BPAM은 작품과 사람, 서로 다른 예술적 맥락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예술가와 작품이 세계 각지의 프로그래머, 극장, 축제 및 예술기관과 깊이 있게 교류하고, 일회성 만남을 넘어 지속 가능한 협업과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BPAM이 지향하는 미래입니다.

함께해 주신 국내외 축제와 극장,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작품으로 BPAM을 빛내주신 예술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사의 준비와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부산광역시와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작품 선정과 방향 설정에 지혜를 모아주신 계명국, 계성원, 김성희, 신은주, 양정웅, 오세준, 윤종연, 이정윤 전문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 BPAM을 통해 한국 공연예술과 세계의 다양한 예술이 부산에서 만나 서로의 관점과 경험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부산의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 부산이 세계와 예술로 연결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예술감독 **김 형 준**

On behalf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ll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rtists, and citizens of Busan who have joined us this year.

Over the past three years, BPAM has established a solid foundation as 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through diverse initiatives and experiments. As we celebrate our fourth edition, BPAM is ready to take the next step. Building on Busan's openness and dynamism, we aim to strengthen BPAM as an international platform that connects Korean and global performing arts, fosters new collaborations, and promotes the circulation of artistic work.

BPAM is a place where works encounter new contexts and relationships, expanding their possibilities. Today, the circulation of performing arts goes beyond the physical movement of a work from one place to another. It is a dynamic journey in which the artistic value and creative context of a work engage with new audiences, communities, and artistic ecosystems, generating new meanings and possibilities along the way.

This year, BPAM presents a wide range of works that resonate with our times through their distinct creative languages. From questions of humanity and society to explorations of the body and existence, from the new sensibilities and possibilities that technology opens up for art to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s of tradition, each work reflects our world through its own unique perspective.

Selected through recommendations and open calls, these works are not confined to any single trend or aesthetic, showcasing the broad and dynamic landscape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Within this diversity, BPAM's role is to discover the

unique potential of each work and explore the contexts and pathways through which each work can build meaningful and sustainable connections with the world.

BPAM 2026 strives to be a vibrant meeting place where works, people, and different artistic contexts come together to form new relationships. Our vision is to enable artists and their works to engage in meaningful exchanges with programmers, theaters, festivals, and arts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moving beyond one-off encounters to foster lasting collaborations and sustainable circul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representatives of festivals, theaters, and arts institutions who have joined us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ideas through art, as well as to all the artists whose invaluable works have enriched BPAM. My sincere thanks also go to the City of Busan and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for their dedicated efforts in preparing and delivering this event, and to our artistic committee - Victor M.K. Kye, Sungwon Kye, Seonghee Kim, Eunju Shin, Apollo Yang, Sejoon Oh, Jongyeoun Yoon, and Jeongyun Lee for sharing their insight and wisdom in selecting the works and shaping the direction of BPAM.

May BPAM 2026 be a vibrant meeting ground where Korean and global performing arts come together in Busan to exchange perspectives, experiences, and possibilities. I hope these encounters will bring fresh inspiration to artists and citizens of Busan, and become another meaningful step in connecting Busan with the world through art.

Thank you.

Casa Kim,
Artistic Director of BPAM

WELCOME TO BPAM! | 환영사·축사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Chairperson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강무길
Mugil Kang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이하 비팜)은 세계의 공연예술이 만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국제적인 문화예술 시장입니다. 시작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국내외 공연예술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이자 역동적인 공연예술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부산문화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창작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해주신 국내외 예술인 여러분께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배우 윤여정 님이 세계가 K-컬처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는 늘 좋은 문화와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제 세계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K-콘텐츠가 세계에 알려지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도 중요한 배경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세상과 만날 기회가 없다면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일만큼이나 그것을 세상과 연결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팜은 그동안 꼭 필요했던 특별한 연결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좋은 작품이 새로운 관객을 만나고 지역의 예술가가

세계의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이 되어주었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의 필요와 맞닿은 이러한 기능 덕분에 비팜은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인지도를 얻고 폭넓은 공감 속에서 규모와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성과를 만들어낸 기획과 실행력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을 통해 또 어떤 작품이 발견되고 새로운 만남과 협력이 세계의 무대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비팜이 부산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공연예술인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국제 공연예술 플랫폼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예술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창작의 기쁨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강무길**

I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BPAM is a global market of culture and art where performing arts from across the globe come together to interact and unlock new possibilities. By drawing the attention of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from home and abroad, it has grown into Busan's representative cultural brand and a dynamic performing arts platform in just a few years. As such,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and its officials for preparing this meaningful event, and I extend my deepest support to all the artists participating in this year's BPAM with their passion for art on full display.

I am reminded of what actress Youn Yuh-jung once said: “There has always been great cinema in Korea, but it's only now that the rest of the world is paying attention.” While there are many reasons why Korean culture has captured the eyes of the world, I believe tha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changes in media have created unprecedented opportunities for K-content to reach and connect with audiences worldwide. Without any good opportunities to connect with the world, even the most exceptional content can hardly be fully appreciated. In this regard, creating a communication channel to promote great content is just as significant as creating the content itself.

BPAM is meaningful because it offers the very platform of connection that has long been needed. It serves as a vital venue where outstanding works are appreciated by new audiences and local artists set their sights on advancing onto the global stage. By fulfilling these ground-level needs, BPAM has rapidly built up a strong reputation and expanded its

scale and influence with broad support. Once again, I applaud BPAM's exceptional capacity for planning and execution that has brought about such brilliant achievements.

Furthermore, I am excited to see which performing arts will be discovered and what new connections and collaborations will land on the world stage through BPAM 2026. I look forward to seeing BPAM grow even further into a leading global performing arts platform, a stage which every performing artist aspires to stand on, extending far beyond Busan and Korea.

Once again,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BPAM 2026. I hope all participating artists and officials find even greater joy through the magic of creation and the dedication to achievement in the months and years to come.

Thank you.

Mugil Kang,
Chairperson of Busan Metropolitan Council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은 공연예술작품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시민들이 고품격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연극, 무용, 음악, 다원예술, 거리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공연작품을 선보이는 축제입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BPAM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공식 초청작품, 부산지역의 예술단체와 작품을 조명하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부산 곳곳에서 선보입니다.

문화의 향기로 가득한 부산에서 BPAM과 함께 감동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사명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
행사기간	2026.10.01.(목) ~ 10.07.(수) / 7일간
행사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민공원 등
슬로건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재)부산문화재단
협력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시설공단, KT&G 상상마당 부산

개·폐막	
리셉션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참여자를 위한 환영 리셉션
개막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및 개막공연
폐막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끝을 알리는 폐막식 및 폐막파티

작품공연		
오피셜	초이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전막공연
	쇼케이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쇼케이스
웨이브	프로젝트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선보이는 공연
	라이징	부산 지역 대학 공연예술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력 공연
넥스트 스테이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	
스트리트	부산 도심을 무대로 펼쳐지는 수준 높은 거리예술작품 공연	
링크	BPAM 기간 내 부산에서 개최되는 공연 연계	

네트워킹		
커넥트	부스	공연예술작품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정보 교류와 협업 기회 창출
	피칭	공연예술관계자가 작품·프로젝트를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발표 세션
	저스트 텐미닛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
	넥스트 토크	공연예술의 전망과 유통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세미나
	아카데미: 커넥트	공연예술단체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오픈토크
	치얼스!	공연예술관계자 간 교류와 연대를 위한 네트워킹 파티

202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is a festival dedicated to expanding distribution opportunities for performing arts productions while offering the public access to high-quality performances. It presents a diverse selection of works by Korean and international artists across genres including theater, dance, music, multidisciplinary arts, and street arts.

Celebrating its fourth edition this year under th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BPAM will present a wide range of programs at venues throughout Busan. These include officially selected productions chosen by BPAM Artistic Committee, as well as performances highlighting artists and productions from the Busan region.

We invite you to experience inspiring moments with BPAM in Busan, a city filled with the spirit of arts and culture.

Name	202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BPAM)
Date	2026.10.01.(Thu.) ~ 10.07.(Wed.) / 7 Days
Venues	Dongseo University Centum Campus, Haeundae Cultural Center, Busan Citizens Park, and more
Slogan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Organizer	Busan Cultural Foundation
Cooperative Institutions	Dongseo University,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Haeundae Cultural Center, Busan Infrastructure Corporation, and KT&G Sangsangmadang Busan

Opening & Closing	
Reception	A welcome reception for participants of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Opening	An opening ceremony and performance marking the beginning of BPAM
Closing	A closing ceremony and party marking the conclusion of BPAM

Performances		
Official	Choice	Full-length performances officially selected and invited by BPAM
	Showcase	Showcase performances officially selected and invited by BPAM
Wave	Project	Showcase of new performing arts works created in and representing Busan
	Rising	Collaborative performances featuring performing arts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Busan
Next Stage	Showcase of projects by young local artists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Street	Street art performances staged across the heart of Busan	
Link	Partner performances across Busan during BPAM	

Networking		
Connect	Booth	Networking platform for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o promote, share, and collaborate
	Pitching	Project pitching sessions for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and delegates
	Just 10 Minutes	1:1 business meetings for intensive networking
	Next Talk	Seminars featuring industry presentations and debates on future trends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Academy: Connect	An open talk to strengthen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capacity to enter international markets and gain insights into overseas opportunities
	Cheers!	Networking party for performing arts market professionals to connect and exchange

장소	10/1(목)	10/2(금)	10/3(토)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개막식 & 개막공연 연극 개막식(30) 19:00~19:30 쿼드, 연극의 질문들: The sound of Macbeth 김아라 P.Group TAE(100) 19:30~21:10		초이스 연극 나를 잊지 말아요 씨 터틀 택틱(70) 19:30~20:40
해운대구 일원		초이스 다원 나이트워크스 워드 틴에이지스 매멀리언 다이빙 리플렉스(120) 19:30~21:30	초이스 다원 나이트워크스 워드 틴에이지스 매멀리언 다이빙 리플렉스(120) 19:30~21:30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쇼케이스 다원 클라임막스 클라임막스(30) 13:30~1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쇼케이스 다원 문몬 읽기 팔꿈치의 활동범위(40) 14:15~14:55 트레이스 진홍스튜디오(15) 15:50~16:05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 김지선(20) 16:55~17:15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쇼케이스 다원 수평선 옆에 이민진(35) 15:05~15:40 천사 노경애(30) 16:15~16:45 더 컨퍼런스 오브 더 버즈 인섹토트로픽스(30) 17:30~18:0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쇼케이스 연극 스와이프! 음이온(110) 13:20~15:10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황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극단 배다(30) 16:20~16:50 프로젝트 연극 조선왕세자 도망실록 아이컨택(20) 17:50~18:10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쇼케이스 연극 의자들: Rebuild 극단 코코(30) 15:30~16:00 이 세상 말고 네이키드블루스(30) 17:05~17:35
부산시민공원			스트리트 13:00~20:00

* 공연 시간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10/4(일)	10/5(월)	10/6(화)	10/7(수)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초이스 무용 화이트 III 포커스댄스 컴퍼니(17) 19:30~19:47 플레이어 프로젝트 S(30) 20:10~20:4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초이스 음악 플라이 오버 피터 고든 X 박선주(20) 19:30~19:50 소 퍼커션 레퍼토리 소 퍼커션(30) 20:00~20:30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넥스트 스테이지 10편 작품공연 10:25~18:15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넥스트 스테이지 10편 작품공연 10:00~17:5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프로젝트 무용 당클매다: 신이 머문 자리 BWC댄스컴퍼니(60) 18:30~19:3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프로젝트 무용 플로어플라워 경희댄스시어터(20) 13:30~13:50 쇼케이스 무용 버타-고개 한국춤프로젝트 가마(20) 14:00~14:20 당신은 유죄입니까? 티오비그룹(20) 14:25~14:45 브래키에이션 고스트그룹(25) 14:50~15:15 세계, 쳐주세요 프로젝트 모임(20) 15:20~15:40 굿, 테크노 춤선캤(20) 15:45~16:05		라이징 연극 대답되지 않은 질문 동서뮤지컬엔터테인먼트(65) 19:30~20:35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쇼케이스 음악 기억 음악그룹 오롯(20) 13:30~13:50 수류견(獸類犬) 조선버전(20) 14:00~14:20 씩씩 강나현(20) 14:30~14:50 아이람 <바람의여행자> 아키웍스(20) 15:00~15:20 싼-거문고 유니버스 더미들(20) 15:30~15:50 64개의 찰나 64크사나(20) 16:00~16:20 초이스 음악 결 동양고주파(30) 16:30~17:00			
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		쇼케이스 무용 벌찌 비나리 힙댄스(30) 16:30~17:00		
부산시민공원	스트리트 13:00~20:00	스트리트 13:00~20:00		

SCHEDULE Performances

Venues	10/1(Thu.)	10/2(Fri.)	10/3(Sat.)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Opening Theater Opening Ceremony(30) 19:00~19:30 QUAD, Questions of Theatre: The sound of Macbeth Kimara P.Group TAE(100) 19:30~21:10		Choice Theater Forget Me Not C Turtle Tactic(70) 19:30~20:40
Haeundae-gu Area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Nightwalks with Teenagers Mammalian Diving Reflex(120) 19:30~21:30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Nightwalks with Teenagers Mammalian Diving Reflex(120) 19:30~21:30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Climbmax Climbmax(30) 13:30~14:00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Monmon Pop-up Theatre Elbowroom(40) 14:15~14:55 Trace Jin Hong Studio(15) 15:50~16:05 Freedom from the Imaginable Jisun Kim(20) 16:55~17:15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Next to the Horizon Minjin Lee(35) 15:05~15:40 Angel Kyungae Ro(30) 16:15~16:45 The Conference of the Birds Insectotrópics(30) 17:30~18:00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Showcase Theater Swipe! Ummeeeeonn(110) 13:20~15:10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Vaeda Theater(30) 16:20~16:50 Project Theater The Annals of the Runaway Crown Prince ICONCONTACT(20) 17:50~18:10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Showcase Theater The Chairs: Rebuild COCO Theatre Company(30) 15:30~16:00 Not of This World NAKEDBLUES(30) 17:05~17:35
Busan Citizens Park			Street 13:00~20:00

* Performance times and venues are subject to change.

Venues	10/4(Sun.)	10/5(Mon.)	10/6(Tue.)	10/7(Wed.)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Choice Dance White III Focus Dance Company(17) 19:30~19:47 Prayer Project S(30) 20:10~20:40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Choice Music Fly Over Peter Gordon X Sunju Park(20) 19:30~19:50 Sō Percussion Repertoire Sō Percussion(30) 20:00~20:30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Next Stage 10 Performances 10:25~18:15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Next Stage 10 Performances 10:00~17:50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Project Dance Dang-Kle-Mae-Da: The Dwelling Place of God BWC Dance Company(60) 18:30~19:30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Project Dance Floor Flower Kyung Hee Dance Theater(20) 13:30~13:50 Showcase Dance Enduring Hill Korea Dance Project GAMA(20) 14:00~14:20 Are You Guilty? TOB Group(20) 14:25~14:45 Brachiation Ghost Group(25) 14:50~15:15 /. HIT Project MOIM(20) 15:20~15:40 Gut, Techno Chumsuncap(20) 15:45~16:05		Rising Theater Unanswered Question DSME (DongSeo Musical Entertainment)(65) 19:30~20:35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Showcase Music The Memory OLOT(20) 13:30~13:50 Su-ryu-gyeon:The Beast-Hound Josun Version(20) 14:00~14:20 SickSick Nahyun Kang(20) 14:30~14:50 Aram Lee <Vagabond> Yagi Works(20) 15:00~15:20 Scene-Geomungo Universe The Middle(20) 15:30~15:50 64 Moments of ksana 64ksana(20) 16:00~16:20 Choice Music KYUL Dongyang Gozupa(30) 16:30~17:00			
Dongseo Univ. Book Cafe Lounge		Showcase Dance Byeolzzi Binari Heen Dance(30) 16:30~17:00		
Busan Citizens Park	Street 13:00~20:00	Street 13:00~20:00		

날짜	공연시간	프로그램	장르	제목	장소
DAY1 10월 1일 (목)	15:00~17:00	개막	-	오리엔테이션	동서대학교 북카페 라운지
	17:30~18:30		-	리셉션	동서대학교 캠퍼스홀
	19:00~19:30		-	개막식	소형씨어터 우리은행홀
	19:30~21:10	커넥트	연극	김아라 P.Group TAE <워드, 연극의 질문들: The sound of Macbeth>	해운대구 인근 공간
	21:00~24:00		-	치열시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DAY2 10월 2일 (금)	10:00~12:00	커넥트	-	넥스트 토크	동서대학교 캠퍼스극장
	10:00~12:00		종합	저스트 팀미닛	동서대학교 캠퍼스홀
	10:00~14:00			부스 1회차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13:30~14:00	오페라 쇼케이스	다원	클라임막스 <클라임막스>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14:15~14:55			팔공자의 활동범위 <문은 읽기>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5:05~15:40			이민진 <수평선 위에>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5:50~16:05			진홍스튜디오 <트레이스>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6:15~16:45			노경애 <전사>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6:55~17:15			김지선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7:30~18:00			인세토토로픽스 <더 캠퍼런스 오브 더 버즈>	해운대문화회관 공연홀
	19:30~21:30			매릴리언 다이빙 리플렉스 <나이트워क्स 워드 팀에이저스>	해운대구 일원
DAY3 10월 3일 (토)	10:00~12:00	커넥트	연극/다원	저스트 팀미닛	동서대학교 캠퍼스홀
	10:00~14:00		종합	부스 1회차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10:00~10:30			피칭[텔레게이트]	부산시민공원
	10:30~12:00	무용/음악		피칭[아티스트]	
	13:00~20:00			부산거리예술축제	동서대학교 북카페 라운지
	14:00~17:00	커넥트	-	2026 K-Arts 컨설팅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13:20~15:10	오페라 쇼케이스	연극	응이문 <스 와이피>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15:30~16:00			극단 코코 <의자들: Rebuild>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16:20~16:50			극단 배다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17:05~17:35			네이카드블루스 <이 세상 말고>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17:50~18:10			아이쿠틀 <조선왕세자 도망실록>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19:30~21:30	오페라 쇼이스	다원	매릴리언 다이빙 리플렉스 <나이트워क्स 워드 팀에이저스>	해운대구 일원
	19:30~20:40		연극	씨 터틀 택트 <나를 잊지 말아요>	소형씨어터 우리은행홀

	10:00~12:00	커넥트	무용/음악	저스트 팀미닛	동서대학교 캠퍼스홀	
	10:00~14:00		종합	부스 2회차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10:00~10:30			피칭[텔레게이트]		
	10:30~12:00	연극/다원	피칭[아티스트]	부산시민공원		
	13:00~20:00		부산거리예술축제			
DAY4 10월 4일 (일)	13:30~13:50	오페셜 쇼케이스	음악	음악그물 오프 <기어>	부산시민공원 다솔마당	
	14:00~14:20			조선버전 <수류건(霰彈大)>		
	14:30~14:50			강나원 <썩썩>		
	15:00~15:20			아기웁스 <이어람 <바람의 여행자>>		
	15:30~15:50			더 미들 <썬-거문고 유니버스>		
	16:00~16:20	오페셜 초이스		64크사나 <64개의 찰나>	KT&G 상암마당 부산 라이브홀	
	16:30~17:00			동양고주파 <컬>		
	19:30~19:50			피터 고든 X 박선주 <플라이 오버>		
	20:00~20:30	커넥트	-	소 퍼커션 <소 퍼커션 레퍼토리>	서면 인근 공간	
	21:00~24:00			치열시		
DAY5 10월 5일 (월)	10:00~12:00	커넥트	-	넥스트 토크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10:00~12:00		종합	저스트 팀미닛	동서대학교 캠퍼스홀	
	10:00~14:00			부스 2회차	부산시민공원	
	13:00~20:00	웨이브:프로젝트		부산거리예술축제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13:30~13:50			경희댄스씨어터 <플로어 플라워>		
	14:00~14:20			한국중프로젝트 가마 <버터-고개>		
	14:25~14:45			티오비그를 <당신은 유죄입니까?>		
	14:50~15:15			고스트그를 <브래키메이션>		
	15:20~15:40	오페셜 쇼케이스	무용	프로젝트 모임 <세계, 쳐주세요>	동서대학교 북카페 라운지	
	15:45~16:05			졸션캵 <굿, 테크노>		
	16:30~17:00			원댄스 <별찌 비나리>		
	19:30~19:47	오페셜 초이스		포커스 댄스 캵퍼니 <화이트 III>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20:10~20:40			프로젝트 S <프레이어>		
DAY6 10월 6일 (화)	10:00~18:15	넥스트 스테이지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14:00~17:00	커넥트	-	아카데미: 커넥트	고운홀	
	18:30~19:30			BWC댄스캵퍼니 <당름매다: 신이 머문 자리>		동서대학교 북카페 라운지
	20:00~24:00	폐막				
DAY7 10월 7일 (수)	19:30~20:35	웨이브:라이징	연극	동서뮤지컬테아터먼트 <대답되지 않은 질문>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AY	TIME	PROGRAM	GENRE	TITLE	VENUE
DAY1 1 OCT (Thu.)	15:00~17:00	Opening	-	Orientation	Dongseo Univ. (Bookcafe)
	17:30~18:30		-	Reception	Dongseo Univ. (Convention)
	19:00~19:30		-	Opening Ceremony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19:30~21:10	Connect	Theater	Kimara P.Group TAE <QUAD Questions of Theatre: The sound of Macbeth>	Haeundae-gu Area
	21:00~24:00		-	Cheers!	
DAY2 2 OCT (Fri.)	10:00~12:00	Connect	-	Next Talk	Dongseo Univ. (Minseok)
	10:00~12:00		All Performing Arts	Just 10 Min.	Dongseo Univ. (Convention)
	10:00~14:00			Booth: Round 1	
	13:30~14:00	Multi. Arts		Climbmax <Climbmax>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14:15~14:55			Pop-up Theatre Elbowroom <Monmon>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15:05~15:40			Minjin Lee <Next to the Horizon>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15:50~16:05		Jin Hong Studio <Trace>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16:15~16:45		Kyungae Ro <Angel>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16:55~17:15	Official Choice	Jsun Kim <Freedom from the Imaginable>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17:30~18:00		Insectotrópics <The Conference of the Birds>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19:30~21:30		Mammalian Diving Reflex <Nightwalks with Teenagers>	Haeundae-gu Area	
DAY3 3 OCT (Sat.)	10:00~12:00	Connect	Theater/Multi. Arts	Just 10 Min.	Dongseo Univ. (Convention)
	10:00~14:00		All Performing Arts	Booth: Round 1	
	10:00~10:30			Pitching [Delegate]	
	10:30~12:00	Official Showcase	Dance/Music	Pitching [Artist]	Dongseo Univ. (Minseok)
	13:00~20:00		-	Street B	
	14:00~17:00			2026 K-Arts Consulting	
	13:20~15:10			Ummeeonn <Swipel>	
	15:30~16:00			Theater	
	16:20~16:50		Vaeda Theater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Dongseo Univ. (Sohyang Exp.)
	17:05~17:35		NAKEDBLUES <Not of This World>		Dongseo Univ. (Minseok)
	DAY4 4 OCT (Sun.)	17:50~18:10	Wave Project	Multi. Arts	ICONCONTACT <The Annals of the Runaway Crown Prince>
19:30~21:30		Mammalian Diving Reflex <Nightwalks with Teenagers>			Haeundae-gu Area
19:30~20:40		Official Choice	Theater	C Turtle Tactic <Forget Me Not>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DAY4 4 OCT (Sun.)	10:00~12:00	Connect	Dance/Music	Just 10 Min.	Dongseo Univ. (Convention)	
	10:00~14:00		All Performing Arts	Booth: Round 2		
	10:00~10:30		Theater/Multi. Arts	Pitching [Delegate]	Dongseo Univ. (Minseok)	
	10:30~12:00	Pitching [Artist]		Busan Citizens Park		
	13:00~20:00	Street B				
	13:30~13:50	OLOT <The Memory>				
	14:00~14:20	Josun Version <Su-ryu-gyeon: The Beast-Hound>				
	14:30~14:50	Nahyun Kang <SickSick>				
	15:00~15:20	Music	Yagi Works <Aram Lee <Vagabond>>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15:30~15:50		The Middle <Scene-Geomungo Universe>			
16:00~16:20	64ksana <64 Moments of ksana>					
16:30~17:00	Dongyang Gozupa <KYUL>					
19:30~19:50	Peter Gordon X Sunju Park <Fly Over>					
20:00~20:30	S5 Percussion <S5 Percussion Repertoire>					
DAY5 5 OCT (Mon.)	21:00~24:00	Connect	-	Cheers!	Seomyeon Area	
	10:00~12:00	Connect	-	Next Talk		Dongseo Univ. (Minseok)
	10:00~12:00		All Performing Arts	Just 10 Min.	Dongseo Univ. (Convention)	
	10:00~14:00			Booth: Round 2		
	13:00~20:00	Street B		Busan Citizens Park		
	13:30~13:50	Kyung Hee Dance Theater <Floor Flower>				
	14:00~14:20	Dance		Korea Dance Project GAMA <Enduring Hill>		
	14:25~14:45		TOB Group <Are You Guilty?>			
	14:50~15:15		Ghost Group <Brachiation>			
	15:20~15:40		Project MOIM <f/ HIT>			
15:45~16:05	Chumsuncap <Gut, Techno>					
16:30~17:00	Heen Dance <Byeolzzi Binari>					
DAY6 6 OCT (Tue.)	19:30~19:47	Official Choice	Focus Dance Company < White III>		Dongseo Univ. (Bookcafe)	
	20:10~20:40		Project S <Prayer>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10:00~18:15	Next Stage		Haeundae Cultural Center(Outdoor Plaza)		
	14:00~17:00	Connect	-	Academy: Connect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18:30~19:30	Wave Project	Dance	BWC Dance Company <Dang-Kle-Mae-Da: The Dwelling Place of God>	Dongseo Univ. (Bookcafe)	
	20:00~24:00	Closing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DAY7 7 OCT (Wed.)	19:30~20:35	Wave Rising	Theater	DSME (DongSeo Musical Entertainment) <Unanswered Question>	OASE BUSAN
					Dongseo Univ. (Sohyang Exp.)	

VENUES | 행사장소



오피셜(초이스·쇼케이스) 공연장

OFFICIAL (CHOICE·SHOWCASE) Venues

- ①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 ②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 Dongseo University Centum Campus
- ③ 해운대문화회관 | Haeundae Cultural Center
- ④ KT&G 상상마당 부산 | KT&G Sangsangmadang Busan
- ⑤ 부산시민공원 | Busan Citizens Park

웨이브(프로젝트·라이징) 공연장

WAVE (PROJECT·RISING) Venues

- ①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 Dongseo University Centum Campus
- ② 해운대문화회관 | Haeundae Cultural Center

넥스트 스테이지 공연장

NEXT STAGE Venue

- ① 해운대문화회관 | Haeundae Cultural Center

스트리트 공연장

STREET Venue

- ① 부산시민공원 | Busan Citizens Park

네트워킹 장소

Networking Venues

- ①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 Dongseo University Centum Campus
- ② 오아제 부산 | OASE Busan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개막 OPENING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및 개막공연

An opening ceremony and performance
marking the beginning of BPAM

OPENING

쿼드, 연극의 질문들: The sound of Macbeth

QUAD, Questions of Theatre: The sound of Macbeth

김아라 P.Group TAE Kimara P.Group TAE

10.01(Thu.) 19:00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러닝타임 130분 (개막식 30분, 개막공연 100분)

Running time 130min. (Opening Ceremony 30min., Opening Performance 100min.)

연극 Theater

13세 이상 Ages 13+



©대학로극장 쿼드·이강물



©대학로극장 쿼드·이강물



©대학로극장 쿼드·이강물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7명(출연자 23명 / 스태프 24명)

Participants Total 47 (Performers 23 / Staff 24)

투어인원 총 21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8명)

Touring Members Total 21 (Performers 13 / Staff 8)



©대학로극장 쿼드·이강물

단체소개

김아라는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로, 인간과 자연을 아우르는 시적인 무대언어를 통한 제의로서의 연극을 표방하며 독자적인 연극 세계를 구축해 왔다. 국립극단 사상 최연소·최초의 여성 연출가이자, 한국 실험연극의 산실인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의 창립 멤버로서 한국 현대연극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었다. 1986년 데뷔 이후 수많은 작품을 선보여 왔으며, 덴마크, 베를린 등 세계 각국에 초청되어 한국 공연예술의 예술성과 확장성을 널리 알렸다. 실험과 전위로 파격의 미장센을 펼쳐 온 독보적인 스타일리스트 김아라의 연극은 지금도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작품소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소리'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한 복합장르음악극이다. 원작의 서사를 재현하기보다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지닌 탁월한 시성과 은유, 음악적 운율에 주목하며 배우의 음성과 음악, 움직임, 신체를 하나의 무대언어로 결합해 텍스트가 가진 리듬과 정서를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The sound of Macbeth>는 셰익스피어의 언어와 철학을 가장 근원적인 '소리'로 되돌려 오늘의 관객이 욕망과 폭력이 반복되는 역사의 미궁을 성찰하게 하는 연극적 제의다.

ABOUT THE GROUP/COMPANY

Ara Kim is one of the leading figures in Korean experimental theatre. Rooted in a poetic stage language that embraces both humanity and nature, she has developed a distinctive theatrical world grounded in the idea of theatre as ritual. Since her debut in 1986, Ara Kim has created numerous works that have been presented internationally, including in Denmark and Berlin, bringing the artistic depth and expansive possibilities of Korean performing arts to audiences around the world. A singular stylist and director known for her bold and unconventional visual language, Ara Kim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theatre, constantly evolving her distinctive artistic practice.

ABOUT THE WORK

<The sound of Macbeth> is a cross-genre music theatre piece that reopens Shakespeare's tragedy through sound. Rather than retelling the original story, it listens to the poetry, the imagery and the musical rhythm inside Shakespeare's language. The actor's voices, music, movement and bodies come together as one stage language, giving the rhythm and feeling of the text a shape you can see and hear. <The sound of Macbeth> becomes a theatrical rite that asks today's audience to look again into the maze of history, where desire and violence keep coming back.

www.kimara.co.kr

출연진 CAST 김성녀(Soungnyo Kim), 정동환(Donghwan Chung), 송용진(Yongjin Song), 박호빈(Hobin Park), 장재승(Jaeseoung Jang), 임소영(Soyoung Lim), 김기민(Kimin Kim), 최홍준(Hongjune Choi), 황건(Gun Hwang), 장덕주(Dukju Jang), 안성채(Seongchae Ahn), 박소영(Soyoung Kwak), 김시우(Siwoo Kim), 김여준(Yeojun Kim), 심수민(Soomin Sim), 김재형(Jaehyeong Kim), 양정민(Jeongmin Yang), 박준영(Junyeong Park), 김민규(Mingyu Kim), 강미르(Mir Kang), 하현담(Hyundam Ha), 편우빈(Woobin Pyeon), 이우진(Woojin Lee)

제작진 CREDITS 원작(Original Playwright)-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재구성·연출(Director)**-김아라(Ara Kim) **각색(Adaptor)**-임야비(Yabi Lim) **움직임디렉터(Movement Director)**-박호빈(Hobin Park) **무대미술(Set Designer)**-박동우(Dongwoo Park) **음악감독(Music Director)**-신나라(Nara Shin)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김영빈(Youngbin Kim) **오브제디자이너(Object Designer)**-도나정(Zung Dona) **영상감독(Video Director)**-김태운(Taeun Kim) **의상디자이너(Costume Designer)**-김미정(Mijung Kim) **분장디자이너(Makeup Designer)**-김선희(Sunhee Kim) **음향감독(Sound Director)**-김준호(Junho Kim) **사진(Photographer)**-임종진(Jongjin Lim) **무대감독(Stage Manager)**-박현(Hyun Park) **무대제작소(Set Builder)**-김충신(Chungsin Kim) **사무총괄(Production Manager)**-송수연(Suyeon So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s)**-최상준(Sangjoon Choi), 박유리(Yuri Park) **미술조감독(Assistant Set Designer)**-김이환(Ehwan Kim) **제작(Produced by)**-김아라 P.Group TAE(Kimara P.Group TAE) **기획(Presented by)**-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쿼드(SFAC Theater QUAD) **주최(Hosted by)**-(재)예술경영지원센터(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주관(Organized by)**-서울문화재단(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후원(Supported by)**-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6 광역문화재단 대표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공연>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초이스 CHOICE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전막공연
Full-length performances officially
selected and invited by BPAM

쇼케이스 SHOWCASE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공식 초청 쇼케이스
Showcase performances officially
selected and invited by BPAM

OFFICIAL

오피셜 일정표 | OFFICIAL SCHEDULE

작품 공연 PERFORMANCES			
장소 Venues	10/1(Thu.)	10/2(Fri.)	10/3(Sat.)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Opening Theater 개막식 Opening Ceremony (30) 19:00~19:30 퀴드, 연극의 질문들: The sound of Macbeth QUAD, Questions of Theatre: The sound of Macbeth (100) 19:30~21:10		Choice Theater 나를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 (70) 19:30~20:40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나이트워크스 위드 틴에이지스 Nightwalks with Teenagers (120) 19:30~21:30	Choice Multidisciplinary Arts 나이트워크스 위드 틴에이지스 Nightwalks with Teenagers (120) 19:30~21:30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클라임막스 Climbmax (30) 13:30~14:00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문몬 읽기 Monmon (40) 14:15~14:55 트레이스 Trace (15) 15:50~16:05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he Imaginable (20) 16:55~17:15	
해운대구 일원 Haeundae-gu Area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Showcase Multidisciplinary Arts 수평선 옆에 Next to the Horizon (35) 15:05~15:40 천사 Angel (30) 16:15~16:45 더 컨퍼런스 오브 더 버즈 The Conference of the Birds (30) 17:30~18:0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Showcase Theater 스와이프! Swipe! (110) 13:20~15:10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랑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30) 16:20~16:50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Showcase Theater 의자들: Rebuild The Chairs: Rebuild (30) 15:30~16:00 이 세상 말고 Not of This World (30) 17:05~17:35

장소 Venues	10/4(Sun.)	10/5(Mon.)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Choice Dance 화이트 III White III (17) 19:30~19:47 프레이어 Prayer (30) 20:10~20:40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Choice Music 플라이 오버 Fly Over (20) 19:30~19:50 소 퍼커션 레퍼토리 Sō Percussion Repertoire (30) 20:00~20:3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Showcase Dance 버티-고개 Enduring Hill (20) 14:00~14:20 당신은 유죄입니까? Are You Guilty? (20) 14:25~14:45 브래키에이션 Brachiation (25) 14:50~15:15 세게, 쳐주세요 f. HIT (20) 15:20~15:40 굿, 테크노 Gut, Techno (20) 15:45~16:05
부산시민공원 다솔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Showcase Music 기억 The Memory (20) 13:30~13:50 수류견(獸類犬) Su-ryu-gyeon: The Beast-Hound (20) 14:00~14:20 씩씩 SickSick (20) 14:30~14:50 이아람 <바람의 여행자> Aram Lee <Vagabond> (20) 15:00~15:20 핀-거문고 유니버스 Scene-Geomungo Universe (20) 15:30~15:50 64개의 찰나 64 Moments of ksana (20) 16:00~16:20 Choice Music 결 KYUL (30) 16:30~17:00	
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 Dongseo Univ. Book Cafe Lounge		Showcase Dance 별찌 비나리 Byeolzzi Binari (30) 16:30~17:00

10.02.(Fri.) 19:30
10.03.(Sat.) 19:30
120min.

해운대구 일원
Haeundae-gu Area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전체관람
All Ages

나이트워크스 위드 틴에이지스 Nightwalks with Teenagers



단체소개

매멀리언 다이빙 리플렉스는 사회의 모순을 예술적 경험으로 전환하는 예술단체이다. 장소와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퍼포먼스, 연극, 참여형 전시, 영상 등 다양한 작업을 선보이며, 비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세대와 문화, 경제적·사회적 배경을 초월한 대화를 이끌며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문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고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작품을 만들어왔으며, 참여와 도전, 사유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을 지향한다. '세상의 끝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만든다.

작품소개

<나이트워크스 위드 틴에이지스>는 청소년들과의 협업으로 만든 워킹 퍼포먼스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도 낯선 도시 공간을 직접 기획하고 설계하며 밤의 여정을 이끈다. 이 프로젝트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과 성인이 같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류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걷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대화와 침묵은 사유의 시간을 열어준다. <나이트워크스 위드 틴에이지스>는 함께 걷는 행위의 힘에 주목하며, 상황주의의 '데리브(dérive)' 개념과 도시를 유영하는 심리·지리적적 탐색에서 영감을 받았다.

매멀리언 다이빙 리플렉스 Mammalian Diving Reflex

캐나다 Canada

참가인원 총 16명(출연자 12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6 (Performers 12 / Staff 4)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0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0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Mammalian Diving Reflex is dedicated to investigating the social sphere, always on the lookout for contradictions to whip into aesthetically scintillating experiences. They create site and social-specific performance events, theatre productions, participatory gallery installations, videos, film, art objects and theoretical texts, collaborating with non-artists to create work that recognizes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art, fosters a dialogue and dismantles barriers between individuals of all ages,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backgrounds. Mammalian brings people together in new and unusual ways around the world, to create work that is engaging, challenging, and gets people talking, thinking and feeling. They make ideal entertainment for the end of the world.

ABOUT THE WORK

<Nightwalks with Teenagers> is a walking performance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young people, who plan, design and lead public walks through the city at night, through an area that is new to them. The project brings together teens and adults who might not otherwise meet, to have experiences related to a shared place and time; it offers an opportunity for adults to socialize with young people in a safe social space, where everyone can let loose, and silences offer moments for contemplation. <Nightwalks with Teenagers> is focused on the power of walking together, and is inspired in part by the Situationist notion of the "derive," as well as psycho-geographic wanderings through the city.

www.mammalian.ca

@mammaliandivingreflex

Mammalian Diving Reflex

출연진 CAST 거침없는 우다다학교 학생들(Students from Udada School)

제작진 CREDITS 감독(Director)-Ngawang Luding 프로듀서(Producer)-Virginia Antonipillai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Darren O'Donnell 주니어 프로젝트 코디네이터(Jr. Project Coordinators)-Sabrina Bonollo, Zara Yavuz 후원(Supported by)-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온타리오예술위원회(Ontario Arts Council)

10.03.(Sat.) 19:30
70min.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연극
Theater

13세 이상
Ages 13+

나를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



단체소개

씨 터틀 택틱은 극작가이자 다원예술가 윈 쑤니가 2015년 대만 가오슝에서 설립한 단체이다. 윈 쑤니는 베를린에서 돌아온 뒤, 오래된 집 복원과 뜨개질, 등산,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며 대만을 새롭게 바라보는 작업을 이어왔다. 단체의 중국어 명칭 '후이유스'는 이주, 놀이, 행동을 의미하며, 영어 명칭 'Turtle'은 바다거북의 귀소 본능을 상징한다. 씨 터틀 택틱은 도시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며 지역의 기억과 정체성을 다양한 예술로 풀어내고, 극장을 벗어난 공간과 공동체를 무대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예술가들과 교류하고 있다.

작품소개

<나를 잊지 말아요>는 윈 쑤니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기억하고자 하는 연극적 실험이다. 2022년 2월 24일 이후, 전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윈 쑤니는 생존 키트나 탈출 경로를 준비하는 대신, 연극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대만, 필리핀, 한국 출신의 여섯 예술가는 국가, 식민주의, 계급, 전쟁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기억과 기록되지 않은 세 나라의 연결을 추적한다. 연극은 우리를 위한 기념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cturtletactic

출연진 CAST 공동 창작 / 연기자(Co-creation / Performer)-Russ Ligtas, Yutsen Liu, Szu-Ni Wen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Szu-Ni Wen 프로듀서(Producer)-Yinru Lo 무대 / 영상디자인(Stage / Video Design)-Huei Ming Chang 음향디자인(Sound Design)-Tao Chiang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Myungjun Noh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Xing Yee Lim 무대감독(Stage Manager)-Hsiang Ting Teng 드라마투르그(Dramaturg)-Inza Lim 공동제작(Commissioned by)-대만 국립극장(National Theater & Concert Hall, Taiwan), 대한민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Republic of Korea) 후원(Supported by)-대만 국가문화예술기금회(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Taiwan (NCAF))

씨 터틀 택틱 C Turtle Tactic

대만 Taiwan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3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3 / Staff 5)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3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3 / Staff 6)



ABOUT THE GROUP/COMPANY

C Turtle Tactic was established in Kaohsiung in 2015 by Szu-ni Wen, a theater director and transdisciplinary artist. Since returning to Kaohsiung from Berlin that year, Wen has sought to rediscover Taiwan through old house renovation, knitting, mountain climbing, and immersion in local culture and history. The group's Mandarin name, huiyóushì, refers to migration, play, and action — echoed in English by "Turtle," evoking the sea turtle's instinct to return home.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humanity, C Turtle Tactic creates works that weave local memory, imagination, and identity into diverse art forms, staged in non-theatrical spaces and communities. In recent years, starting from Kaohsiung, the group has expanded exchanges and connections with artists across East and Southeast Asia.

ABOUT THE WORK

<Forget Me Not> is director Wen Szu-ni's experiment in remembering a war that has not yet occurred. Since February 24, 2022, war no longer feels like something that will never happen. Rather than preparing survival kits or escape routes, Wen chooses theater as her way of preparing, seeking a new language of time that lets us remember an unlivd past and future. Six artists from Taiwan, the Philippines, and Korea trace personal memories and transnational histories through the shadows of nationhood, colonization, martial law, and war, uncovering unrecorded ties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bsent from any monument. Together, they ask: can theater become a monument for us—and who is "us"?

10.04.(Sun.) 16:30
30min.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결 KYUL



단체소개

동양고주파는 퍼커션 연주자 장도혁, 양금 연주자 윤은화, 베이스 연주자 함민휘로 구성된 3인조 밴드이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감각이 교차하는 소리의 경계를 탐구하며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양금-베이스-퍼커션의 독특한 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레시브 록, 국악, 팝, 포크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동양고주파의 음악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 그 어디쯤의 경계에 위치한다. 양금, 베이스, 퍼커션이라는 독특한 악기 편성을 바탕으로 강렬한 리듬과 화려한 사운드를 펼쳐낸다. 이번 작품 <결>은 시간 속에 켜켜이 쌓인 연주와 감각을 하나의 결로 엮어낸 공연이다. 전통 장단이 지닌 원형적 에너지와 현대 음악의 음향적 확장을 통해 순간과 시간, 반복과 변화가 교차하는 시간을 음악적으로 풀어낸다.

동양고주파 Dongyang Gozup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Dongyang Gozupa is a Korean trio featuring Dohyuk Jang (percussion), Eunhwa Yun (yanggeum), and Minhwi Ham (bass). The trio explores the sonic boundary where tradition meets modernity and East meets West. With their unique instrumentation, their music blends a variety of genres, such as progressive rock, Korean traditional music, pop, and folk, creating a distinctive sound in which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ABOUT THE WORK

Dongyang Gozupa's music exists somewhere along the boundary between East and West. With its distinctive instrumentation of yanggeum (Korean hammered dulcimer), bass, and percussion, the trio creates a powerful sonic landscape driven by dynamic rhythms and rich textures. <KYUL> weaves together the performances and sensations accumulated over time into a single kyul—a layered texture woven through time. Drawing on the primal energy of Korean traditional rhythms and the expansive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sound, the piece explores the interplay of moment and duration, repetition and transformation.

@dongyanggozupa

@dongyanggozupa2143

출연진 CAST 퍼커션(Percussion)-장도혁(Dohyuk Jang) 양금(Yanggeum)-윤은화(Eunhwa Yun)

베이스(Bass)-함민휘(Minhwi Ham)

제작진 CREDITS 투어매니저(Tour Manager)-박정연(Jeongyeon Park) 사운드엔지니어(Sound Engineer)-최윤녕(Yunhyung Choi)

10.04.(Sun.) 19:30
20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플라이 오버 Fly Over



단체소개

피터 고든은 뉴욕 실험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색소포니스트이다. 러브 오브 라이프 오케스트라(LOLO)를 통해 댄스와 실험 음악을 결합한 독창적인 사운드를 구축하며, 뉴욕 언더그라운드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왔다. 박선주는 가야금을 메고 움직이며 연주하는 '가야금 퍼포먼스'를 개척한 연주자로, 악기와 몸, 공간을 결합한 동시대적 표현을 탐구하며 국제적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두 예술가는 최근 뉴욕 퍼렐먼 공연예술센터에서 성공적인 즉흥 공연을 선보이며, 서로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하는 예술적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플라이 오버>는 색소폰 연주자 피터 고든과 가야금 연주자 박선주가 만들어내는 즉흥 기반의 실험적 음악 퍼포먼스다. 두 예술가는 정해진 악보나 장르의 규칙에 머무르지 않고, 순간의 감각과 서로의 호흡으로 음악을 확장한다. 가야금의 신체적 움직임과 색소폰의 독창적인 사운드가 교차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악기는 즉흥이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작품은 전통 악기가 동시대적 감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진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열어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www.petergordon.com

www.park-sunju.art

@pg_lolo

@freezybone200

출연진 CAST 색소폰(Saxophone)-Peter Gordon 가야금(Gayageum)-박선주(Sunju Park)

피터 고든 X 박선주 Peter Gordon X Sunju Park

미국&대한민국 USA&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Peter Gordon is a composer and saxophonist who has shaped New York's experimental music scene. Through his project Love of Life Orchestra (LOLO), he developed a distinctive sound that blends dance and experimental music, influencing the city's underground music for decades. Sunju Park is a performer who has pioneered "gayageum performance," playing the instrument while moving through space and exp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 body, and environment. She continues to explore contemporary expressions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The two artists recently shared a successful improvisational performance at the Perelman Performing Arts Center in New York, continuing an artistic collaboration that expands each other's musical worlds.

ABOUT THE WORK

<Fly Over> is an improvisation-based experimental performance created by gayageum performer Sunju Park and saxophonist Peter Gordon. The two artists build the music through real-time interaction rather than following fixed scores or genre conventions. Park's movement-driven gayageum performance and Gordon's distinctive saxophone language meet in the present moment, creating a sound world shaped by intuition and exchange. In <Fly Over>, their instruments, rooted in different histories and cultures, come together through improvisation to form a space that is not defined by tradition or genre. The work explores how traditional instruments can move and evolve within contemporary sensibilities, and how they can continue to open new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10.04.(Sun.) 20:00
30min.

KT&G 상상마당 부산 라이브홀
KT&G Sangsangmadang Busan Live Hall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소 퍼커션 레퍼토리 Sō Percussion Repertoire



미국 US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For 25 years and counting, Grammy-winning percussion quartet Sō Percussion has redefined chamber music for the 21st century through an “exhilarating blend of precision and anarchy, rigor and bedlam” (The New Yorker). They are celebrated by audiences and presenters for a dazzling range of work: for live performances in which “telepathic powers of communication” (The New York Times) bring to life the vibrant percussion repertoire; for an extravagant array of collaborations in classical music, pop, indie rock, contemporary dance, and theater; and for their work in education and community-building, seeking to explore the immense possibility of art in our time.

ABOUT THE WORK

<Sō Percussion Repertoire> consists of four percussion works: Steve Reich’s <Music for Pieces of Wood>, a classic of the percussion repertoire, calls for four tuned pieces of wood to play the same patterns against each other in dizzying counterpoint; Caroline Shaw’s <Strange and Artificial Echoes> combines the voices of mid-20th century avant-garde composers with radios and keyboard instruments; Kendall Williams’ <Panorama for Mallet Quartet> harnesses the ecstatic joy of steel bands from Trinidad; and Bryce Dessner’s unique amplified percussion string instruments in <Music for Wood and Strings> cross electric guitars with hammer dulcimers.

단체소개

그레미상을 수상한 타악 사중주단 소 퍼커션은 25년 넘게 활동하며 21세기 실내악을 새롭게 정의해왔다. <더 뉴요커>는 이들의 음악을 “정교함과 무질서, 엄격함과 혼돈이 어우러진 전율의 조화”라고 평했다. 소 퍼커션은 폭넓은 활동으로 관객과 공연기획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텔레파시와 같은 소통 능력”이라고 극찬한 라이브 공연은 역동적인 타악 레퍼토리를 생생하게 구현하며, 클래식, 팝, 인디 록, 현대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교육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작품소개

<소 퍼커션 레퍼토리>는 네 편의 타악 작품으로 구성된다. 타악 레퍼토리의 고전인 스티브 라이히의 <뮤직 포 피스 오브 우드>는 음정을 맞춘 네 개의 나무 타악기가 동일한 패턴을 교차 연주하며 현란한 대위법을 만들어낸다. 캐롤라인 쇼의 <스트레인지 앤 아티피셜 에코스>는 20세기 중반 아방가르드 작곡가들의 목소리를 라디오 및 건반악기와 결합한다. 켄달 윌리엄스의 <파노라마 포 말렛 콰르텟>은 트리니다드 스틸 밴드의 환희를 담아낸다. 브라이스 데스너의 <뮤직 포 우드 앤 스트링스>는 일렉트릭 기타와 해머 덜시머를 결합한 독창적인 증폭 악기를 사용한다.

www.sopercussion.com

@sopercussion

So Percussion

출연진 CAST 퍼커션(Percussion)-Jason Treuting, Adam Sliwinski, Josh Quillen, Eric Cha-Beach

제작진 CREDITS 음향감독(Audio Engineer)-Christopher Botta 투어 매니저(Tour Manager)-Amy Garapic

10.05.(Mon.) 19:30
17min.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무용
Dance

전체관람
All Ages

화이트 III White III



단체소개

포커스 댄스 컴퍼니는 대만을 대표하는 차세대 현대무용 플랫폼으로, 역량 있는 신진 무용수들이 활동하는 지역의 핵심 무용단이다. 엄격한 신체 훈련과 독창적인 문화 언어를 결합해 동시대와 호흡하는 강렬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무용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피나 바우쉬, 이르지 킬리안, 호페시 셰chter, 마사 그레이엄, 린 화이민 등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대표 레퍼토리를 공연해왔다. 또한 포커스 댄스 컴퍼니는 세계적인 무용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로서, 국제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졸업생들은 탄츠테아터 부퍼탈 피나 바우쉬, 네덜란드 댄스 시어터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서 활약하고 있다.

작품소개

<화이트 III>는 3부작 <화이트>의 마지막 작품으로, 흰색을 순수함과 공허, 무(無)의 상징으로 다룬 추상 무용이다. 흰색 의상과 여백, 강렬한 움직임으로 긴장을 쌓되 터뜨리지 않으며, 움직임과 정지, 유형과 무형 사이의 대화를 이끈다. “서양 발레와 중국 무술을 아우르는 린 화이민의 생동감 넘치는 안무는 다양한 기법으로 훈련된 무용수들의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몸짓으로 강렬하고 깊은 울림을 주는 명상적 작품을 완성한다.” (더 타임스)

@tnua23rd

출연진 CAST Hsiao Chen-hung, Chang Yu-hsuan, Sung Pei-chen, Chen Pei-ying, Chen Yu-chi, Chen Yi-cheng, Chang Pei-chi, Chang Yu-cheng, Huang Yu-yi, Tai Yu-yu, Huang Chih-ning, Su Pei-tzu, Yang Shih-jie, Huang Yu-xun, Tai Wei-wei, Yang Yu-wen

제작진 CREDITS [초연][Premiere] 안무(Choreography)-Lin Hwai-min 작곡 / 음악(Composer / Music)-Atsuhiko Gondai / The Beginning of the End / After the End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Chang Tsan-tao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Isabel Wen [재구성][Reconstructed Version] 리허설 디렉터(Rehearsal Director)-Lee Ching-chun 리허설 어시스턴트(Rehearsal Assistant)-Chiu I-wen, Hou Tang-li 조명 재구성(Lighting Reconstruction)-Liu Chih-chen 의상 재구성(Costume Reconstruction)-Fang Chu-huei

포커스 댄스 컴퍼니 Focus Dance Company

대만 Taiwan

참가인원 총 20명(출연자 16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20 (Performers 16 / Staff 4)

투어인원 총 20명(출연자 16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20 (Performers 16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Focus Dance Company is Taiwan’s premier platform for next-generation contemporary dance artists. Combining rigorous physical training with distinctive artistic voices, the company creates powerful works that reflect the present. Its dancers have performed acclaimed repertoire by artists including Pina Bausch, Jiří Kylián, Hofesh Shechter, Martha Graham and Lin Hwai-min. Alumni have gone on to prestigious companies including Tanztheater Wuppertal Pina Bausch, Nederlands Dans Theater, Hofesh Shechter Company, Martha Graham Dance Company and Cloud Gate Dance Theatre.

ABOUT THE WORK

<White III> is the last part of <White>, a triptych. In this abstract dance “white” functions not merely as a chromatic image, but as a symbol of purity, emptiness, and the void. Through white costuming, negative space and intense movements, the choreography builds up tension from the beginning and never lets it break out, inviting a dialogue between motion and stillness, the tangible and the intangible. “Here Lin’s animated choreography wears its multiple disciplines proudly, with Western ballet meeting Chinese martial arts. The dancers, superbly trained in a variety of techniques, are incredibly grounded yet impossibly fluid in this powerful and resonant meditation.” (The Times)

10.05.(Mon.) 20:10
30min.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Sohyang Theater Woori Bank Hall

무용
Dance

전체관람
All Ages

프레이어

Prayer



단체소개

프로젝트 S는 2009년 창단 이후 ‘쉽지만 가법지 않은 작품’을 지향하며, 동시대 무용의 예술성과 관객과의 소통 가능성을 함께 확장해 왔다. 사회적 이슈와 인간의 보편적 정서를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아, 무용이 관객과 공감하고 사유를 이끄는 예술적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작품을 창작해 왔다. 또한 예술성과 대중적 접근성을 균형 있게 갖춘 레퍼토리를 꾸준히 구축하고 있다.

작품소개

〈Prayer〉는 2022년 국제현대무용제(MODAFE)와 대전예술의전당 공동 프로젝트로 제작된 작품이다. 초연 이후 국내 15회 이상 초청 공연을 이어왔으며, 2025년에는 대한민국무용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 작품은 한국 전통 굿의 정화와 치유, 해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상실과 두려움, 고통을 마주한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삶을 견디고 나아가는 내면의 생명력을 강렬한 신체 언어와 호흡, 리듬으로 펼쳐낸다.

프로젝트 S

Project 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0명(출연자 16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20 (Performers 16 / Staff 4)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9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9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Since its founding in 2009, Project S has pursued the creation of works that are accessible yet never superficial, expanding both the artistic possibilities of contemporary dance and its connection with audiences. Drawing on social issues and universal human emotions as its creative starting points, the company creates works in which dance becomes an artistic medium for empathy and reflection. Project S continues to build a repertoire that balances artistic excellence with public accessibility.

ABOUT THE WORK

〈Prayer〉was created in 2022 as a co-production between MODAFE and the Daejeon Arts Center. Since its premiere, the work has been invited to perform more than 15 times across Korea. In 2025, it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Prize, the highest honor at the Korea Dance Awards, in recognition of its artistic excellence. Drawing on the rituality and symbolic language of Korean traditional gut, the work reinterprets the themes of purification, healing, and resolution through a contemporary sensibility. Through powerful physical language, breath, and rhythm, 〈Prayer〉reveals the inner vitality of human beings who endure and move forward even in the face of loss, fear, and suffering.

@_project_s

출연진 CAST 정석순(Suksoon Jung), 안남근(Namkeun An), 박민지(Minji Park), 박정무(Jungmu Park), 배상은(Sangeun Bae), 옥모성(Mosung Ok), 이민서(Minseo Lee), 김서현(Seohyun Kim), 차시원(Siwon Cha), 김현진(Hyunjin Kim), 김예원(Yewon Kim), 이가연(Gayeon Lee), 이나연(Nayeon Lee), 남윤서(Yunseo Nam), 차효빈(Hyobin Cha), 박하민(Hamin Park)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정석순(Suksoon Jung)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허환(Hwan Heo) 무대디자인(Stage Design)-조일경(Ilkyung Cho)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허지혜(Jihye Heo) 조명오퍼레이터(Lighting Operator)-박현주(Hyunju Park) 의상(Costume)-김혜령(Hyeryeong Kim)

10.02.(Fri.) 13:30
3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전체관람
All Ages

클라임막스

Climbmax



단체소개

클라임막스는 서남재와 마용환(MArt)이 클라이밍을 훈련하며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해 온 프로젝트이다. 서커스 무대에서 다듬어진 움직임과 감각을 확장해 클라이밍의 원리를 무대 위에서 새롭게 풀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탐구를 바탕으로 클라임막스는 2025년 서울문화재단 서커스 창·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작품을 초연했다. 이후에도 클라이밍과 서커스를 결합한 새로운 무대 언어를 실험하며 신체 움직임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작품소개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서로의 몸을 딛고 오르며, 두려움이 신뢰로 바뀌는 순간을 그린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선택은 함께 서는 높은 순간을 만들어낸다. 무대 위 13개의 의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쌓고 무너뜨리는 구조물이 된다. 한 사람의 움직임은 다른 한 사람의 무게가 되고, 한 사람의 균형은 다른 한 사람의 흔들림에서 시작된다. 클라이밍의 원리인 ‘잡고, 버티고, 놓고, 다시 잡는’ 움직임을 반복하며 서로의 한계를 시험한다. 구조물이 무너지는 순간 새로운 구조가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실패와 재시도, 신뢰와 의심이 교차한다.

www.circusnamj.com

@namj_s

@mm_art

출연진 CAST 서남재(Namjae Seo), 마용환(Yonghwan M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서남재(Namjae Seo), 마용환(Yonghwan Ma) 무대세트디자인(Stage & Set Design)-신재욱(Jaewook Shin) 음악감독(Music Director)-김현수(Hyunsoo Kim) 영상감독(Visual Director)-신우주(Wooju Shin), 한종윤(Jongyun Han) 무대감독 / 통역(Stage Manager / Interpreter)-김지효(Jihyo Kim)

클라임막스

Climbmax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Climbmax is a project launched by Namjae Seo and Yonghwan Ma (MArt). Through their climbing practice, they explore the natural movements of the body. Building on the movement and senses refined through circus performances, they reinterpret the principles of climbing on stage. Selected for the 2025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s Circus Creation Support Program, Climbmax premiered at the Seoul Mountain Culture Experience Center. The project continues to expand the possibilities of body language by fusing the art of circus with climbing techniques.

ABOUT THE WORK

Two performers climb an unstable structure, using each other's bodies as a point of support while climbing. Fear slowly turns into trust. A choice made at the lowest point leads to a moment of standing together at the highest point. Thirteen chairs on the stage become the mediators between the two, building and destroying their relationship. One's movement becomes the other's weight, and one's balance stems from the other's tremor. The principles of climbing repeat between the two: grip, hold, let go, and grip again. They cooperate, compete, and test each other's limits. When one structure falls, a new one arises. Failure and retry, trust and doubt, always come hand in hand.

10.02.(Fri.) 14:15
4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9세 이상 Ages 9+

몬몬 읽기 Monmon



단체소개

팔꿈치의 활동범위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공연을 만드는 창작단체이다. 팝업북의 그림이 펼쳐지는 형식을 무대미술과 접목해, 공간 자체가 이야기를 펼쳐내는 무대를 선보여왔다. 기억의 되살아남과 사라짐, 도시 재개발, 생물의 서식과 멸종 등 팝업북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우리 주변의 존재들을 무대 위에 기록한다. 예술을 통해 지구 생태계와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

작품소개

짜꿍과 함께 사진 앨범을 읽다 보면 주인공 몬몬의 기억이 팝업북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사를 떠나며 유일한 친구인 튼튼과 헤어져야 했던 어린 시절의 몬몬은, 우연히 발견한 옛 방 사진 한 장을 통해 튼튼과 함께했던 시간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간다. 그날 이후 몬몬은 자신의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시작한다. 기억을 영원히 간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팔꿈치의 활동범위 Pop-up Theatre Elbowroo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2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2 / Staff 3)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2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2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Pop-up Theatre Elbowroom creates performances where stories come alive, providing an immersive environment. The group creates performances by bringing the visual language of pop-up books into scenography, transforming spaces into unfolding narratives. The performances explore things that appear and disappear around us, like pop-up books: memories that come and go, urban redevelopment, and the habitats and extinction of living beings. Pop-up Theatre Elbowroom continues to explore ways of living in harmony with Earth's ecosystems through art.

ABOUT THE WORK

While reading through an old photo album with a friend, the memories of the main character, Monmon, begin to pop out of its pages. When Monmon was young, he had to move away and leave behind his only friend, Teunteun. Looking at a photograph of his old room, Monmon is taken back to the time before he moved, before he was separated from his best friend. After this experience, he begins taking photos of every moment of his life. What does it mean to hold on to memories forever?

@popuptheatre_elbowroom 출연진 CAST 온정연(Jeongyeon On), 한태경(Taekyung Han)

제작진 CREDITS 글 / 연출(Story / Director)-정진웅(Jinwoong Jeong) 시노그래피(Scenography)-정결(Gyeol Jeong) 음악(Music)-변지민(Jimin Byun)

10.02.(Fri.) 15:05
35min.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19세 이상 Ages 19+

수평선 옆에 Next to the Horizon



단체소개

이민진(1995년 서울 출생, 서울 활동)은 춤을 추고, 목격하고, 만드는 공연예술가이자 무용가이다. 무용수의 수행성과 주체성에서 출발한 그의 예술 실천은 춤을 단지 공연을 위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무대와 삶, 일상과 비일상, 중심과 주변을 가로지르는 감각적 탐색의 매개로 바라본다. 안무라는 형식보다 춤 자체의 생명력과 관계성에 주목하며, 때로는 전혀 춤 같지 않은 것들 속에서 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작품소개

무대 위에서 무용수는 주체이자 객체이며, 미학적으로는 한 개인인 동시에 예술작품의 일부로 존재한다. 그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둘 다이거나 둘 다 아니고자 하는 양가적인 상태를 마주한다. <수평선 옆에>는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춤추는 몸은 표현의 책임과 재현의 기대, 정체성의 증명이라는 구조적 요청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minjinlee.co.kr

출연진 CAST 이민진(Minjin Lee)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이민진(Minjin Lee) 드라마투르그(Dramaturg)-윤상은(Sangeun Yun) 음악(Music)-양선용(Sunyoung Yang) 후원(Supported by)-국립현대미술관(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옵신페스티벌(Ob/Scene Festival),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이민진 Minjin Le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Minjin Lee (born in 1995, Seoul) is a Seoul-based performer and dancer who embodies, witnesses, and produces dance. Her artistic practice originates from the performativity and subjectivity of the dancer. She uses dance not just as a means of expression but as a medium for sensory exploration across the stage and reality, the ordinary and the extraordinary, and the center and its surroundings. Rather than focusing on choreography, her work emphasizes the vitality of dance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orld, sometimes seeking new possibilities for dance in things that may not appear to be dance at all.

ABOUT THE WORK

On stage, the dancer is both subject and object; aesthetically, they exist not only as an individual but also as part of an artwork. They sway endlessly on this boundary. Rather than choosing one side and abandoning the other, they confront the ambivalent desire to be both and neither. <Next to the Horizon> begins with these questions. Can the dancing body be liberated from its structural demands—the responsibility to express the dancer's intent, the audience's expectation of representation, and the need to prove one's identity?

10.02.(Fri.) 15:50
15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전체관람
All Ages

트레이스 Trace



진홍스튜디오 Jin Hong Studi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1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1 / Staff 2)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Jin Hong Studio is a Busan-based media art group. Centered on video and dance production, the studio fuses various technologies—VR, AR, motion capture, and projection mapping—with the language of the body. The studio explor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analog and the digital, studying the sensibilities and inspiration arising from their friction.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how coldly mediated technology and the living body collide and seep into each other.

ABOUT THE WORK

〈트레이스〉examines the rupture between the real and the virtual that social media produces. The performer films themselves on a smartphone, live-streams the footage, and projects it back onto their own body. As the image circulates through the platform and returns, the boundary between original and copy dissolves; the delayed image overlays the live body, and strata of identity accumulate. Social media is at once a mirror and a window, and when the amplified image finally overwhelms the physical body, the work asks anew what remains after the repetition—the self, or the image.

작품소개

〈트레이스〉는 SNS가 만들어내는 현실과 가상의 균열을 다룬다. 수행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라이브 스트리밍하고, 그 영상을 다시 자신의 신체 위에 투사한다. 플랫폼을 경유해 되돌아오는 영상의 순환 속에서 원본과 복제의 경계는 흐려지고, 지연된 화면이 실시간의 몸과 겹쳐지며 정체성의 지층이 차곡차곡 쌓인다. 소셜 미디어는 거울이자 창이 되고, 증폭된 영상이 끝내 현실의 신체를 압도하는 순간, 작품은 반복 끝에 남는 것이 과연 나인지, 아니면 이미지인지를 되묻는다.

📺 @jinhongstudios

출연진 CAST 허경미(Kyungmi Her)

제작진 CREDITS 연출 / 영상감독(Director / Visual Director)-홍석진(Sukjin Hong) 안무(Choreographer)-허경미(Kyungmi Her)

10.02.(Fri.) 16:15
30min.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7세 이상
Ages 7+

천사 Angel



단체소개

노경애는 퍼포먼스부터 다매체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업 과정에서는 몸의 감각과 사유에 초점을 두며, 이를 통해 비물질성에 대한 탐구를 점차 심화해왔다. 이러한 탐구는 퍼포먼스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몸, 소리, 공간, 빛처럼 자연적이거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들을 통해, 퍼포먼스의 비물질성은 무엇을 드러내며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꾸준히 질문하고 있다.

작품소개

이 작업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 사이에 고요히 존재하는 것들을 드러낸다. 몸과 그 움직임을 통해 비가시적이고 잠재된 영의 감각을 조용히 두드린다. 천사를 본 적 있는가. 그것은 환상일까. 천사를 보기 위해 우리는 지금까지 지탱해온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시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을 향해, 이 작업은 조용히 나아간다.

📺 @kyungaero

출연진 CAST 김명신(Myeongshin Kim), 조명희(Myunghee Cho), 송명규(Myounggyu Song), 천영재(Youngjae Cheon), 정재필(Jaepil Jeong) 피아노(Piano)-박윤진(Yoonjin Park)

제작진 CREDITS 컨셉 / 안무(Concept / Choreographer)-노경애(Kyungae Ro) 후원(Supported by)-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 커미션(Commissioned by Seo-Seoul Museum of Art)

노경애 Kyungae Ro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Kyungae Ro works across performance and multidisciplinary projects. Her practice centers on an ongoing exploration of bodily perception and thought, alongside a deep interest in immateriality. In exploring these ideas, she returns to the fundamental elements of performance that are natural and time-based such as the body, sound, space, and light. She continually asks: What does the immateriality of performance reveal, and how does it disappear?

ABOUT THE WORK

This work reveals what quietly exists at the boundary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hrough the body and its movements, it gently awakens a sense of invisible and latent spirits. Have you ever seen an angel? Is it an illusion? To perceive the unseen, we may need to deconstruct the systems of belief that have shaped our understanding of reality. This work quietly moves toward another reality that cannot be visually proven but surely exists.

10.02.(Fri.) 16:5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전체관람
All Ages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the Imaginable



김지선
Jisun Ki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0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0 / Staff 3)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0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0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Can we fundamentally rethink the system? Jisun Kim's artistic practice is rooted in this question. Exploring the multilayered "No One's Land" that emerges within social systems, culture, and the boundaries between them, she has questioned the structures of systems that organize the world, through diverse media such as performance, games, AI, and web-based environments. Expanding on this inquiry, her recent project focuses on exploring the very ways we perceive and sense ourselves and the world around us.

ABOUT THE WORK

<Freedom from the Imaginable> is a performance video that explores the entanglement of AI model collapse, technological revolution, and ancient Indian logic. Within a space composed of irregular screens and projections, images that are continuously generated and collapsed dismantle the logic through which we conceptualize the world, revealing the points at which imagination comes to a halt.

단체소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할 수 있을까? 김지선의 작업은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사회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경계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No One's Land를 탐구해온 작가는 퍼포먼스, 게임, AI, 웹 환경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세계를 조직하는 시스템의 구조를 질문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탐구를 확장해 나와 세계를 감각하는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모든 상상으로부터의 자유>는 AI 모델 붕괴, 기술 혁명, 인도의 고대 논리학이 뒤얽힌 영상 퍼포먼스이다. 비정형 스크린과 프로젝션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생성과 붕괴를 반복하는 이미지들은 세계를 개념화하는 기존의 논리를 흔들고, 상상이 멈춰선 자리를 드러낸다.

www.kimjisun.net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지선(Jisun Kim) 조연출(Assistant Director)-강윤지(Yoonzee Kang)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김지명(Jimmy Kim) 후원(Supported by)-서울시(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문화재단(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10.02.(Fri.) 17:30
30min.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7세 이상
Ages 7+

더 컨퍼런스 오브 더 버즈 The Conference of the Birds



단체소개

인섹토포트릭스는 201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설립된 다원예술 공연단체이다. 라이브 시네마, 회화, 연극, 음악, 실시간 영상 창작을 결합한 몰입형 공연을 통해 무대 위에서 창작 과정을 드러내는 독창적인 작업을 선보인다. 지난 15년간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20여 개국에서 활동하며 고유한 시각 언어를 구축해왔다. <더 컨퍼런스 오브 더 버즈>는 2025년 런던 워터맨스 아트센터 프리미어에 이어 피라 타레가에서 공식 초연되었으며, 현재 국제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인섹토포트릭스는 또한 장소 특정형 프로젝트와 설치, 참여형 예술 작업도 선보이고 있다.

작품소개

<더 컨퍼런스 오브 더 버즈>는 12세기 수피 시인 파리드 우딘 아타르의 시에서 영감을 받은 다원예술 라이브 시네마 공연이다. 고대 우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자기 발견을 향한 인간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그린다. 아타르의 이야기 속 새들처럼 우리 모두는 의심과 불확실성,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 라이브 페인팅, 연극, 창작 음악, 실시간 영상 제작을 통해 관객은 눈앞에서 탄생하는 영화적 세계를 경험한다. 작품은 창작 과정을 공연의 일부로 드러내 제작과 결과물의 경계를 허물고, 공동체와 공동의 책임, 함께할 때 나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www.insectotropics.com

@insectotropics

출연진 CAST 예술감독 / 출연(Artistic Director / Performer)-Laia Ribas 총괄감독 / 기술감독(Executive Director / Creative Technologist)-Maria Thorson 출연(Performer)-Marga Socías 시각예술가 /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스트 - Jan Barceló 음악감독 / 작곡(Musician / Composer)-Bru Ferrí 영상감독 / 융복합 예술가(Live Cinema / Multidisciplinary Artist)-Jaime Jiménez

제작진 CREDITS 해외 유통(International Distribution)-Desirée Povedano 후원(Supported by)-카탈루냐 문화산업진흥원(ICEC - Catalan Institute for Cultural Companies), 워터맨스 아트센터(Watermans Arts Centre)

인섹토포트릭스
Insectotròpics

스페인 Spain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ABOUT THE GROUP/COMPANY

Insectotròpics is a multidisciplinary performing arts company based in Barcelona, founded in 2011. The company creates immersive performances that combine live cinema, painting, theatre, music and real-time image creation, revealing the creative process on stage. Over the past fifteen years, Insectotròpics has developed a distinctive visual language presented in more than 20 countries across Europe, Latin America and Asia. Their latest production, <The Conference of the Birds>, premiered at FiraTàrraga 2025 after a pre-premiere at Watermans Arts Centre (London), and is currently touring internationally. The company also creates site-specific projects, installations and participatory experiences for festivals, museums and public spaces.

ABOUT THE WORK

Inspired by Farid ud-Din Attar's 12th-century Sufi poem, <The Conference of the Birds> is a multidisciplinary live-cinema performance that uses the ancient allegory as a contemporary metaphor for the human journey towards self-discovery. Like the birds in Attar's story, we all experience moments of doubt, uncertainty and transformation. Through live painting, theatre, original music and real-time video creation, the audience witnesses a cinematic world created before their eyes. By revealing the creative process as part of the performance, the work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making and finished artwork, inviting audiences to reflect on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hared responsibility and the idea that we can only truly move forward together.

10.03.(Sat.) 13:2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연극 19세 이상
11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Theater Ages 19+

스와이프! Swipe!



음이온 Ummeeonn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4명 / 스태프 9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4 / Staff 9)
투어인원 총 12명(출연자 4명 / 스태프 8명)
Touring Members Total 12 (Performers 4 / Staff 8)

ABOUT THE GROUP/COMPANY

Ummeeonn is a contemporary theater team based in Seoul. We understand the play as multiple relationships that occur temporarily. We wonder what forms of relationships can engrave political and aesthetic times in the city.

단체소개

서울을 기반으로 한 컨템퍼러리 연극 단체 음이온은 연극을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다중 관계 네트워크로 이해하며, 어떤 형태의 관계가 미학적이고, 정치적인 시간을 도시에 새겨넣는지 고민한다.

작품소개

햄릿을 AI, 포스트휴먼, SF, 비인간이라는 프리즘으로 재창안한 작품. 인간과 사물의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의 마음에 관해 질문하며, 전통적인 극장을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라이브카메라를 활용하여 사각지대를 눈 앞에 겹쳐놓는 큐비즘적인 무대와 다양한 물질의 진동을 통해 사운드스케이프를 만들어내는 다이애나밴드와의 협업을 통해 극장을 의아하고 생경한 장소로 재창출한다.

ABOUT THE WORK

<Swipe!> reimagines Hamlet through the prisms of AI, posthumanism, science fiction, and the nonhuman. What emerges from the encounter of humans and objects—can it be called a heart? The performance questions the nature of the heart in a new era while reinterpreting traditional theater across multiple contexts. Live cameras layer blind spots before the audience in a cubist-inspired stage, and in collaboration with DianaBand, whose soundscapes emerge from the vibrations of diverse materials, the theater is transformed into a strange, uncanny, and mesmerizing space.

@ummeeeonn

출연진 CAST 김중엽(Joongyeop Kim), 이주협(Joohyub Lee), 전해민(Hyein Jeon), 허윤경(Yunkyung Hur)
제작진 CREDITS 구성 / 연출(Conception / Director)-김상훈(Sanghoon Kim) 소리사물(Sound Objects)-다이애나밴드(Dianaband) 무대감독(Stage Manager)-이라임(Lime Lee)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서가영(Gayeong Seo) 영상(Video)-전석희(Sukhee Jeon) 의상(Costume)-미팍(MI PAK) 프로듀서(Producer)-박이분(Eevn Bahk), 전강채(Kangchae Jeon)

10.03.(Sat.) 15:30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연극 13세 이상
30min.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Theater Ages 13+

의자들: Rebuild The Chairs: Rebuild



단체소개

극단 코코는 사회적 부조리와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을 움직임, 오브제, 시각적 이미지로 풀어내는 공연예술단체이다. '관객이 먼저'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다양한 이슈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며, 언어를 넘어서는 감각적 무대 언어를 통해 새로운 시선과 경험을 제안한다.

작품소개

〈의자들: Rebuild〉는 외젠 이오네스코의 〈의자들〉을 배우들의 신체 표현과 오브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이 보이지 않는 손님들을 빈 의자로 표현했다면, 이 작품은 마리오네트와 오브제를 통해 그 존재들을 무대 위에 실체화한다. 점차 쌓여가는 빈 의자는 인간의 결핍과 관계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며, 이러한 상징을 바탕으로 한국적 상징과 동시대적 움직임을 결합한 비언어 공연으로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관객과 소통한다.

@theater_coco

출연진 CAST 김대원(Daewon Kim), 김명수(Myeongsoo Kim), 박민정(Minjeoung Park), 오형민(Hyeongmin Oh), 조희원(Heeweon Cho), 임해승(Haeseung Lim)
제작진 CREDITS 연출 / 프로듀서(Director / Producer)-안로겸(Rogeom Ahn) 조연출(Assistant Director)-박수빈(Subeun Park)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강진구(Jingu Kang) 안무(Choreographer)-김대원(Daewon Kim)

극단 코코 COCO Theatre Compan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6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6 / Staff 3)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6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6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COCO Theatre Company is a performing arts group that interprets social absurd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rough movement, objects, and visual imagery. Guided by the belief that audiences come first, COCO Theatre Company redefines contemporary issues through an artistic lens and develops a sensory stage language that offers new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beyond language.

ABOUT THE WORK

<The Chairs: Rebuild> reinterprets Eugène Ionesco's <The Chairs> through a performance language centered on physical expression and objects. While the original play represents its invisible guests through empty chairs, this adaptation materializes them on stage through marionettes and objects. The accumulating chairs symbolize human incompleteness and the longing for connection, creating a non-verbal theatrical experience that combines Korean symbolism with contemporary movement, communicating with audiences beyond linguistic and cultural boundaries.

10.03.(Sat.) 16:2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연극 13세 이상
3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Theater Ages 13+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황 소리 한 번 없이 흐느낌으로 This is the way the world ends not with a bang but a whimper



극단 배다 Vaeda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3명(출연자 7명 / 스태프 6명)

Participants Total 13 (Performers 7 / Staff 6)

투어인원 총 13명(출연자 7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Total 13 (Performers 7 / Staff 6)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17, Vaeda Theater showcases performances that explore the human psyche and the traumas left by history, reflecting upon the current state of society and humanity. Examining questions surrounding war, technology, diaspora, and the overwhelming anxieties felt by younger generations, Vaeda Theater has developed a distinctive and sensorial theatrical language. The theater's recent work, <Korean Peninsula-Politan Project>, explores civic identity in the aftermath of division and war, expanding the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through an international sensibility. Through experimental works that transcend genre boundaries and distinctive directorial aesthetics, Vaeda Theater continues to create new points of connection with audiences in Korea and abroad.

ABOUT THE WORK

Based on Nevil Shute's novel <On the Beach>, the performance depicts humanity in its final days after a nuclear war. The Northern Hemisphere has already been wiped out by radioactive fallout, and the cloud is slowly drifting south. Those remaining in Melbourne, Australia, have six months left. Acknowledging the inevitable extinction, people struggle to preserve a sense of normalcy. In an age desensitized to images of disaster and war, the performance quietly contemplates human dignity and our attitude toward life, posing new questions to contemporary audiences.

단체소개

2017년 창단한 극단 배다는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상흔을 탐구하며, 동시대 사회와 인간성을 응시하는 공연예술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쟁, 기술, 디아스포라, 청년 세대의 불안 등 동시대적 질문을 바탕으로 감각적인 무대 언어를 구축해왔으며, 최근에는 '한반도-폴리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분단과 전쟁 이후의 시민성을 탐구하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국제적 감각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성과 연출 미학을 통해 국내외 관객과의 새로운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작품소개

네빌 슈트의 장편소설 <해변에서>를 원작으로 한 작품. 핵전쟁 이후 인류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북반구는 이미 방사능 낙진으로 전멸했고, 그 공기는 서서히 남반구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 호주 멜버른에 남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6개월. 사람들은 끝을 알면서도 평범한 일상을 지키려 애쓴다. 재난과 전쟁의 이미지에 익숙해진 오늘날, 인간의 존엄과 삶의 태도를 조용히 응시하며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동시대적 작품이다.

@vaedatheater

출연진 CAST 선종남(Jongnam Sun), 박경주(Kyungzoo Park), 김호준(Hojun Kim), 김현(Hyun Kim), 문수아(Sooah Moon), 박신애(Shinae Park), 안준모(Joonmo Ahn)

제작진 CREDITS 각색(Adaptor)-박주영(Juyoung Park) 연출(Director)-장한새(Hansae Ja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서진호(Jinho Seo) 무대디자인(Stage Design)-남경식(Kyoungsik Nam)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김지우(Jiwoo Kim) 음향(Sound)-이현석(Hyunseok Lee) 음악(Music)-장한솔(Hansol Jang) 의상(Costume)-이윤진(Yunjin Lee) 프로듀서(Producer)-임예지(Yeji Lim) 협력프로듀서(Collaborating Producer)-양승민(Pacino Yang)

10.03.(Sat.) 17:05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연극 13세 이상
30min.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Theater Ages 13+

이 세상 말고 Not of This World



단체소개

네이키드블루스는 창작자 김예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창작집단으로,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고립과 불안, 관계의 결핍을 동시대적 감각으로 무대화한다. 연극, 움직임, 거리극 등 장르를 넘나들며 배우의 신체와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무대를 선보여 왔다. 현대적 우화와 신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현실의 이면을 탐색하며, 특정 국가나 문화에 한정되지 않는 이야기를 통해 국경과 언어를 넘어 공감하는 동시대의 우화를 창작한다. 블랙박스 극장과 거리, 비전통 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연 형식을 지향한다.

작품소개

"내일이면 다 사라져.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된다." 연극 <이 세상 말고>는 세상을 용서할 수 없는 열여섯 이인과 키코가 폭탄을 만들어 저항하려는 계획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이 흔들리며, 두 아이는 건잡을 수 없는 위기와 직면하게 된다. 작품은 청소년기의 고립과 상처, 그리고 불안 속에 갇힌 이들의 위태로운 순간을 그리며, 사회가 외면해 온 목소리를 무대 위로 불러내는 동시대 연극이다.

www.nakedblues.carrd.co

@nakedblues_

출연진 CAST 김예은(Yeeun Kim), 배재영(Jaeyoung Bae)

제작진 CREDITS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김예은(Yeeun Kim) 협력연출(Associate Director)-이창균(Changgyun Lee) 메인프로듀서(Main Producer)-이정연(Jeongyeon Lee) 윤색(Adaptor)-황나영(Nayoung Hwang) 글로벌프로듀서 / 투어매니저(Global Producer / Tour Manager)-양승민(Seungmin Yang) 무대디자인(Stage Design)-정승환(Seunghwan Jeong)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박유진(Yujin Park) 음향디자인(Sound Design)-이현석(Hyunseok Lee) 음악감독(Music Director)-조충만(Chungman Jo)

10.04.(Sun.) 13:30
20min.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기억 The Memory



음악그룹 오롯 OLOT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OLOT was formed in 2020 by Hangil Kim, a piri and saenghwang player, and Sunkyung Yoo, a haegeum and yanggeum player. They reinterpret the textures of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through contemporary sound design and field recording. True to their name—meaning “wholly complete, nothing lacking”—they build meditative soundscapes by quietly observing and studying the essence of sound, creating a sensory environment where listeners natura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flow of sound. Critics in Korea and abroad have described their work as “music you could listen to endlessly” and “music that lets you look inward.”

ABOUT THE WORK

<The Memory> begins with a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inquiry into “memory”—the very foundation of human existence. Memory is not a fragment of the past, but a composition that makes up who we are, acting as a compass that guides us through an uncertain future. Drawing on Bergson’s concept of “pure memory,” the work summons unconscious fragments buried deep within the mind into the present moment through the medium of sound. In this performance, the creator translates personal memory into musical language, paradoxically guiding the audience to come face to face with their own forgotten memories, experiencing a unique artistic journey through their own memories.

www.olotofficial.com

@official_olot

출연진 CAST 해금 / 양금(Haengeum / Yanggeum)-유선경(Sunkyung Yoo)
피리 / 생황 / 글로켄슈필(Piri / Saenghwang / Glockenspiel)-김한길(Hangil Kim)

제작진 CREDITS 기획 / 작곡(Promotor / Composer)-음악그룹 오롯(OLOT) 음향감독 / 오퍼레이터(Sound Director / Operator)-우경민(Kyungmin Woo) 프로듀서(Producer)-이다호(Daho Lee)

10.04.(Sun.) 14:00
20min.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음악
Music

13세 이상
Ages 13+

수류견(獸類犬) Su-ryu-gyeon: The Beast-Hound



조선버전 Josun Version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Josun Version is a creative Korean music group that pursues both “a contemporary version of Joseon (a historic Korean dynasty) music” and “a Joseon version of contemporary music.” The group reinterprets the sounds and emotion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today’s sensibility, combining popular music, stage art, and contemporary expression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Josun Version transforms tradition into a living language of the present, creating music that resonates with audiences in Korea and abroad.

ABOUT THE WORK

<Su-ryu-gyeon: The Beast-Hound> is a Korea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inspired by a Joseon-era horror tale, drawn from a single line in the Annals of King Jungjong: “A dog-like beast appeared in the royal palace.” Traditional instruments, visuals, and stage movement build an eerie atmosphere, keeping audiences on edge as the story unfolds with haunting twists and turns, leaving a lasting resonance of horror and fear.

단체소개

조선버전은 ‘조선음악의 현대버전, 현대음악의 조선버전’을 지향하는 창작음악 단체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소리와 정서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대중음악과 무대예술, 동시대적 표현을 결합해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통을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언어로 풀어내며, 국내외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수류견>은 『중종실록』에 기록된 “궁궐에 개 같은 짐승이 나타났다”는 한 문장에서 출발한 조선괴담 국악공연이다. 전통악기의 서늘한 음색과 영상, 무대 위 움직임이 궁궐을 뒤덮은 불안과 긴장을 서서히 쌓아 올리며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지며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공포의 여운을 남긴다.

@josun_ver

출연진 CAST 거문고(Geomungo)-김새벽(Saebyeok Kim) 대금(Daegum)-임경훈(Gyeonghoon Lim)
해금(Haengeum)-이종민(Jongmin Lee) 장구(Janggu)-안유진(Yujin Ahn) 키보드(Keyboard)-변재벽(Jaebyeok Byeon) 아쟁(Ajaeng)-양은지(Eunjee Ya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용호(Yongho Kim)

10.04.(Sun.) 14:30
20min.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음악
Music

전체관람
All Ages

씩씩 SickSick

강나현
Nahyun Kang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단체소개

소리꾼 강나현은 전통 판소리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서사와 감각을 탐구하는 판소리 창작자이다.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를 소리극과 창작 판소리로 확장하며, 전통 창법과 현대적 음악 언어를 결합한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1인 소리극 <아홉수 가위>와 판소리 기반 자전적 프로젝트 <SickSick> 등이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Nahyun Kang is a pansori artist and creator who explores contemporary narratives and sensibilities through the traditional art of pansori. Drawing on her personal memories and experiences, she creates contemporary pansori works and theatre by combining traditional vocal techniques with contemporary artistic language. Her major works include the solo pansori theatre <Ahopsu Gawhi> and the autobiographical pansori-based performance <SickSick>.

작품소개

<SickSick>는 청년 소리꾼 '강'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 기반 공연이다. 반복적으로 어긋나는 삶과 불안의 감각을 유희와 자기풍자의 언어로 풀어내며, 전자음악과 판소리 창법을 결합한 동시대적 사운드를 선보인다. 전통 성음과 현대적 감각의 조화를 통해 동시대 관객과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가는 작품이다.

ABOUT THE WORK

<SickSick> is a pansori-based performance built around the autobiographical story of Kang, a young pansori singer. The performance portrays a life repeatedly thrown off course and the persistent sense of anxiety through wit and self-deprecating humor. It showcases a contemporary sound by blending electronic music with traditional pansori vocal techniques. By harmonizing traditional vocal expressions with contemporary sensibilities, the performance creates new points of connection with today's audiences.

@na_hhong

출연진 CAST 판소리(Pansori)-강나현(Nahyun Kang) 장구 / 징 / 팽과리(Janggu / Jing / Kkwaenggwari)-김한샘(Hansaem Kim) 가야금(Gayageum)-한수진(Sujin Han) 전자음악 / 기타(Electronic Music / Guitar)-홍석영(Seokyoung Ho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수민(Sumin Kim)

10.04.(Sun.) 15:00
20min.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음악
Music

7세 이상
Ages 7+

이아람 <바람의 여행자> Aram Lee <VAGABOND>

야기웍스
Yagi Works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단체소개

야기웍스는 클래식, 재즈, 전통음악 연주자들과 다양한 협업을 이어가는 콘텐츠 제작 단체이다.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음원, 영상,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뛰어난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치유의 음악을 전한다. 또한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과 제작 환경을 마련해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Yagi Works is a group of content creators that engages in diverse collaborations with musicians from the classical, jazz,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scenes. By creating various forms of content—music, video, and performance content—rooted in the fine arts, the group introduces outstanding artists to the public while delivering music that heals and comforts. Yagi Works also provides a nurturing environment where artists have the freedom to experiment and create. The group continues to create meaningful outcomes while striving to document and share its journey as enriching content.

작품소개

<바람의 여행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금 연주자 이아람이 2008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작업하고 연주하며 쌓아온 음악적 조각들을 엮어낸 기록이다. 이아람은 이 작품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만난 예술가와 관객, 그리고 다양한 음악적 언어를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전통예술과 결합해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펼쳐낸다. 방랑자(Vagabond)로서의 자유로운 감성과 대금의 깊은 숨결이 어우러진 특별한 시간을 선사한다.

ABOUT THE WORK

<Vagabond> is a record woven from the musical fragments accumulated through years of working and performing around the world since 2008, drawing on the experiences of leading daegeum player Aram Lee. Combining the diverse musical languages and the artists and audiences he encountered around the world with the traditional arts deeply rooted within him, Lee creates an original artistic world. <Vagabond> offers a special experience where the free-spirited sensibility of a vagabond harmonizes with the deep breath of the daegeum.

www.aramleemusic.com

출연진 CAST 대금 / 통소(Daegeum / Tungso)-이아람(Aram Lee) 해금(Haegeum)-김보미(Bomi Kim) 가야금(Gayageum)-이준(Joon Lee) 거문고(Geomungo)-김민영(Minyoung Kim) 장구(Janggu)-조한민(Hanmin Cho) 더블베이스(Double Bass)-송인섭(Inseop Song)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 / 음향디자인(Producer / Sound Design)-이현진(Hyunjin Lee) 매니저 / 조명오퍼레이터(Manager / Lighting Operator)-변유빈(Yubin Byeon)

10.04.(Sun.) 15:30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음악 7세 이상
20min.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Music Ages 7+

씬-거문고 유니버스 Scene-Geomungo Universe



단체소개

솔리스트이자 창작자인 황진아는 더 미들의 대표로 활동하며, 거문고의 소리를 뒤돌고 재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솔로 거문고' 장르를 개척하고 있다. 포스트록, 일렉트로닉, 엠비언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왔다. 2017년 데뷔 이후 발표한 <The middle>과 <Short film>으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으며, 대표작 <Scene> 시리즈는 국내 초연을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웰링턴, 아부자 등 해외 무대에 초청되며 국제적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작품소개

<Scene-Geomungo Universe>는 서사성이 강한 음악을 통해 관객 스스로 장면을 펼쳐내도록 이끈다.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도 거문고 음악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미디어 아트와의 조우를 통해 음악의 흐름을 즉각적으로 시각화하며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낸다. 거문고의 묵직한 울림과 미디어 아트의 화려한 이미지가 황진아 특유의 속도감과 만나, 하나의 악기가 무수한 소리의 층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눈앞에서 펼쳐 보인다. 관객은 소리와 이미지가 교차하며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더 미들 The Middl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1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1 / Staff 2)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1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1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Gina Hwang is a geomungo soloist, composer, and director of The Middle, pioneering a new genre of solo geomungo music by deconstructing, transforming, and reassembling the instrument's sound. Moving through different genres such as post-rock, electronic, and ambient music, she has built a distinctive musical world. Since her debut in 2017, her works, such as <The Middle> and <Short Film>, have gained widespread acclaim from both critics and audiences. Her signature performance project, the <Scene> series, which premiered in Korea, has since been performed internationally in New York, Washington, D.C., Wellington, and Abuja, where it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artistic excellence.

ABOUT THE WORK

<Scene-Geomungo Universe> invites audiences to unfold their own scenes through cinematic, story-driven music rooted in the sound of the geomungo. Blending diverse musical influences with responsive media art that visualizes the flow of the music, the performance transcends genre boundaries while revealing the distinctive identity of geomungo music. The performance invites audiences to experience the layers of sound created by a single instrument, driven by the artist's distinctive sense of momentum. <Scene-Geomungo Universe> is an immersive experience where sound and imagery converge, creating a universe in which music and visuals become one while revealing the extraordinary expressive possibilities of the geomungo.

www.ginahwang.creatorlink.net 출연진 CAST 거문고(Geomungo)-황진아(Gina Hwang)

@hwang_gina

@GinaHwang

제작진 CREDITS 미디어아트(Media Art)-송주형(Zoohyeong Song) 프로듀서(Producer)-김이끼(Ikki Kim)

10.04.(Sun.) 16:00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음악 7세 이상
20min. Busan Citizens Park Dasom Madang Music Ages 7+

64개의 찰나 64 Moments of ksana



단체소개

64ksana(64크사나)는 굿음악과 테크노를 기반으로 한국 무속음악을 현대로 재해석하는 얼터너티브 전자음악 밴드다. 전자음악, 퍼커션, 보컬/타악, 미디어아트를 결합해 현대판 굿을 연상시키는 다감각 공연을 선보인다.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24,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등 무대와 북미 공연예술마켓 CINARS 쇼케이스를 통해 해외에 진출했으며, 첫 EP 발매와 함께 '올해의 일렉트로닉 트랙'에 선정됐다. 이후 Sunfest, SXSW Sydney, Wonderfruit와 2026년 첫 유럽 투어를 통해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64ksana의 작품 <64개의 찰나>, <군문열림>, <Rite of Now>에서 선보인 주요 곡들을 콘서트 형식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미디어아트와 함께 선보인다. 작품마다 축적된 음악적 서사와 무대의 감각을 하나의 공연으로 엮어내며, 여러 차례의 공연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온 64ksana만의 셋리스트를 만날 수 있다.

64크사나 64ksan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3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3 / Staff 3)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3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3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64ksana is an alternative electronic music band that fuses traditional Korean shamanic music with contemporary techno. The band creates immersive, multi-sensory performances by combining electronic music, percussion, vocals, and media art, inviting the audience into a space reminiscent of a modern-day gut (shamanic) ritual. 64ksana has performed at multiple major festivals such as SyncNext24 and the Ansan Street Arts Festival. In 2024, the band made its international debut at CINARS in Montreal and released its debut EP, which included a track selected as OnEum's "Electronic Track of the Year." Since then, 64ksana has continued to expand its international presence through performances at Sunfest, SXSW Sydney, Wonderfruit, and its first European tour in 2026.

ABOUT THE WORK

The performance brings together signature pieces from 64ksana's works <64 Moments of Ksana>, <Edge of Sacred>, and <Rite of Now>, reconfigured in a concert format alongside media art. Weaving together the musical narratives and theatrical sensibilities developed across these works, the performance showcases a setlist that has been refined through numerous performances into its most concert-ready form.

www.64ksana.com

@64ksana

출연진 CAST 보컬 / 타악(Vocal / Korean Percussion)-원재연(Jaeyeon Won) 퍼커션(Percussion)-타무라 료(Ryo Tamura) 전자음악(Electronic Music)-준도(Jundo)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고동욱(Donguk Ko) 음향(Sound)-박준(Jun Park) 미디어아트 / VJ(Media Art / VJ)-문규민(Gyumin Moon) 의상(Costume)-정현주(Hyeonju Chung)

10.05.(Mon.) 14:0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무용 7세 이상
2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Dance Ages 7+

버티-고개 Enduring Hill



한국춤프로젝트 가마 Korea Dance Project GAMA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Korea Dance Project GAMA is a Busan-based Korean creative dance company founded in 2018. Based on the physical experiences and sensibilities cultivated through Korean dance performances, the group explores a contemporary dance language and seeks to present the emotions and experiences of contemporary life on stage. Taking a flexible approach to genres and formalities, GAMA expands the aesthetics of Korean dance through a modern perspective while continuing to create works that connect tradition with the present, as well as local identity with universality.

ABOUT THE WORK

<Enduring Hill> focuses on the generation of Korean parents, more specifically the bodies of middle-aged women who have long sacrificed to serve as pillars of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 Korea. Years of labor, care, and sacrifice leave traces of imbalance and wear upon the body. Through a contemporary dance language, the performance brings to light the identity that has been lost through a lifetime of selflessness while uncovering the emotions and memories held by those who have lived for others. <Enduring Hill> raises questions about endurance, recovery, and what it means to continue living.

단체소개

한국춤프로젝트 가마는 부산을 기반으로 2018년 창단된 한국창작춤 단체이다. 한국춤을 통해 축적된 신체적 경험과 감각을 바탕으로 오늘의 춤 언어를 탐구하며, 동시대의 삶과 정서를 무대 위에 담아내고자 한다. 장르와 형식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한국춤의 미학을 현재의 시선으로 확장하고, 전통과 동시대성, 지역성과 보편성을 잇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작품소개

〈버티-고개〉는 가족과 사회의 버팀목으로 살아온 한국의 부모 세대와 중년 여성의 몸에 주목한다. 오랜 노동과 돌봄, 희생의 시간은 기울어짐과 불균형의 흔적으로 몸에 새겨져 있다. 작품은 타인을 위해 살아온 존재가 품은 기억과 감정을 동시대적 춤 언어로 풀어내며, 견딜 시간 속에서 잊힌 자신과 다시 마주하는 순간을 그린다. 이를 통해 버팀과 회복, 그리고 삶을 지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묻는다.

@kdp_gama

KoreaDanceProject.GAMA

출연진 CAST 한지은(Jieun Han), 김나영(Nayoung Kim), 조아영(Ayoung Jo)

제작진 CREDITS 안무 / 연출(Choreographer / Director)-한지은(Jieun Han)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조세현(Sehyeon Jo)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이용진(Yongjin Lee)

10.05.(Mon.) 14:25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무용 13세 이상
2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Dance Ages 13+

당신은 유죄입니까? Are You Guilty?



티오비그룹 TOB Group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3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3 / Staff 3)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on the motto "Think Out of the Box," TOB Group is a collective of choreographers committed to expanding the language of contemporary performance. Questioning familiar perspectives and conventional forms, the group merges movement, objects, and narratives in unexpected ways to craft immersive works that challenge perception and invite new modes of engagement. TOB continuously translates contemporary questions into artistic language, exploring how dance can evolve and connect within the complexities of contemporary society.

ABOUT THE WORK

Who creates violence? And who chooses to just watch? No music or spoken words. Only bodies, a table, and relentless rhythms expose the mechanics of the bystander effect. As the event unfolds on stage, the audience unknowingly becomes a bystander. The final question is directed silently toward the audience: "Are You Guilty?"

단체소개

TOB 그룹은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자(Think Out of the Box)'라는 이념 아래 모인 안무가 집단이다. 익숙한 시선과 형식을 의심하며 움직임, 오브제, 스토리텔링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을 통해 새로운 감각을 담은 무대를 제안한다. 또한 동시대의 질문을 예술적 언어로 풀어내며, 지금 이 시대의 관객과 연결될 수 있는 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작품소개

폭력은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지켜보는가. 음악도 언어도 없다. 오직 몸과 테이블, 그리고 리듬만으로 방관의 구조를 해부한다. 사건은 무대 위에서 벌어지지만, 관객은 어느새 그 현장의 방관자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조용히 객석을 향한다. "Are you guilty?"

@grouptob

@be_tha_man

출연진 CAST 황용연(Yonghyun Hwang), 조병욱(Byungwook Cho), 김현호(Hyunho Kim)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김민(Min Kim) 리허설디렉터 / 조안무(Rehearsal Director / Assistant Choreographer)-이마드리드(Madrid Lee)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김민수(Minsu Kim)

10.05.(Mon.) 14:5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무용 13세 이상
25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Dance Ages 13+

브래키에이션 Brachiation



고스트그룹 Ghost Group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3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3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Ghost Group, as its name suggests, is a contemporary dance company that explores what is invisible yet undeniably present—traces and energies that exist beyond the physical realm, as well as the intrinsic instability of human existence—and embodies them through the language of the body. Moving beyond the norm of storytelling, the company transforms the sensory tension between body, space, and perception into a visual experience. Through continuous experimentation, it seeks to create a performance language that connects the inner and outer worlds.

ABOUT THE WORK

“The body still remembers the spaces between the trees.” The modern body moves less and less. In an environment constructed around convenience and efficiency, the body no longer sways, nor does it leap across. <Brachiation> sets the rigid, immobilized body into motion. Drawing on the arboreal movements of our primate ancestors, <Brachiation> exposes raw physical moments—of hanging, shifting, releasing, and grasping. When the body begins to move freely once more, we reclaim our existence as multidimensional beings. How free were we? How confined have we become?

작품소개

“몸은 아직, 나무 사이를 기억하고 있다.” 현대의 몸은 점점 덜 움직인다. 편리함과 효율로 이루어진 환경 속에서 신체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건너지지도 않는다. <브래키에이션>은 이처럼 고정된 몸에 균열을 낸다. 먼 과거, 나무 사이를 오가던 영장류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브래키에이션’을 통해 매달리고, 이동하고, 놓고, 다시 붙잡는 신체의 순간들을 드러낸다. 몸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입체적인 존재가 된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제한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www.ghostgroup.
myportfolio.com
@ghostgroup_official

출연진 CAST 류진욱(Jinyook Ryu), 마창성(Changsheng Ma), 윤승민(Seungmin Yun)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류진욱(Jinyook Ryu) 프로듀서 / 음향오퍼레이터(Producer / Sound Operator)-최예지(Meloria / Yeji Choi)

10.05.(Mon.) 15:2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무용 13세 이상
2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Dance Ages 13+

세계, 쳐주세요 f. HIT



프로젝트 모임 Project MOIM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3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3 / Staff 5)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3명 / 스태프 7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3 / Staff 7)

ABOUT THE GROUP/COMPANY

Project MOIM is a performing arts platform founded in 2026 by choreographer Eunkyung Lee, building on her individual practice to pursue expanded collaboration and new artistic experiments. Named after the Korean word “moim,” meaning “gathering,” the platform brings together different bodies and ideas to share artistic questions and develop them into creative works. Bringing together artists from dance, music, theater, and other disciplines, the platform explores contemporary sensibilities and social questions, where the language of the body transforms personal experiences into collective experience.

ABOUT THE WORK

<f.HIT> begins with familiar scenes from everyday life. A desk is arranged. Papers are shuffled. A cup is set down. These ordinary actions repeat, and with each repetition, they gradually begin to take on different meanings. Merging the languages of dance, theater, and music, three dancers build a landscape of tension and silence through everyday gestures and seemingly insignificant actions. What appears ordinary slowly becomes unfamiliar, and the order we recognize gives way to a growing sense of unease. Some watch. Some look away. Some pass by as if nothing has happened. <f.HIT> follows moments of indifference and silence embedded in everyday life, tracing the marks left behind by the simple act of looking away.

단체소개

프로젝트 모임은 ‘모임(MOIM)’이라는 이름처럼 서로 다른 몸과 생각이 만나 예술적 질문을 나누고 이를 작품으로 발전시키는 공연예술 플랫폼이다. 안무가 이은경의 개인 작업을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협업과 새로운 시도를 위해 2026년 결성되었다. 무용,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함께 동시대의 감각과 사회적 질문을 탐구하며, 개인의 경험이 공동의 경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신체 언어로 구현하고자 한다.

작품소개

<세계, 쳐주세요>는 익숙한 일상의 풍경에서 출발한다.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넘기고, 컵을 내려놓는 평범한 행동은 반복될수록 조금씩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한다. 무용과 연극, 음악이 교차하는 무대에서 세 명의 무용수는 일상의 몸짓과 사소한 행동을 쌓아 올리며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침묵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평범한 일상은 점차 낯설어지고, 작품은 그 안에 스며든 방관과 침묵의 순간을 따라가며 아무렇지 않게 내린 선택이 남기는 흔적을 조용히 되짚는다.

@eeekworks

출연진 CAST 천종원(Jongwon Chun), 임종경(Jongkyung Im), 전종근(Joongkeun Jeon)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이은경(Eunkyung Lee) 음악감독(Music Director)-라예송(Yesong Ra) 드라마투르그(Dramaturg)-백석광(Seokgwang Baek) 의상디자이너(Costume Design)-정호진(Hojin Jeong) 프로듀서(Producer)-부혜영(Hyejeong Boo)

10.05.(Mon.) 15:45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무용 7세 이상
20min.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Dance Ages 7+

굿, 테크노 Gut, Techno



춤선캡 Chumsuncap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10 / Staff 0)
투어인원 조정가능
Touring Members Flexible

ABOUT THE GROUP/COMPANY

Chumsuncap is a contemporary dance company exploring new choreographic language through the fusion of traditional Korean movement and contemporary sensibilities. Led by choreographer Jongin Choi, the company integrates Korean dance, contemporary dance, street culture, and multimedia into original creations. Balancing artistic innovation with accessibility, Chum Suncap actively presents its works at international festivals, performances, and collaborative projects.

ABOUT THE WORK

<Gut, Techno> reimagines the Korean Gut ritual through the energy of techno and rave culture. The dancers become shamans, entering a state of trance through repetitive rhythms and leading the ritual with improvised movement. Traditional gestures merge with club dance, dissolving the boundaries between the sacred and the secular, the past and the present. Rooted in Korean shamanism, the work transforms ritual into a contemporary performance, inviting audiences to experience connection and liberation through the body.

작품소개

<굿, 테크노>는 한국의 굿을 테크노와 레이브 문화의 에너지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무용수는 무당이 되어 반복되는 리듬 속에서 트랜스 상태에 이르고, 즉흥적인 움직임으로 의식을 이끈다. 전통의 몸짓은 클럽의 움직임과 뒤섞이고, 신성함과 세속성, 과거와 현재의 경계는 사라진다. 한국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이 작품은 굿이라는 의례를 현대적인 공연으로 확장하며, 몸을 통해 연결과 해방의 경험을 제안한다.

@chumsuncap

출연진 CAST 최종인(JongIn Choi), 이선진(SunJin Lee), 황민하(MinHa Hwang), 천왕록(Wangrok Cheon), 유혜린(HyeRin Yu), 김가현(GaHyun Kim), 김승윤(SeungYun Kim), 이정연(Jeongyeon Lee), 김하은(HaEun Kim), 이재영(ChaeYoung Lee)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최종인(JongIn Choi) 음악(Music)-이명(Earring), 준도(Jundo)

10.05.(Mon.) 16:30 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 무용 7세 이상
30min. Dongseo Univ. Book Cafe Lounge Dance Ages 7+

별찌 비나리 Byeolzzi Binari



단체소개

힌댄스는 유럽·미국·한국에서 활동해온 예술가들이 서울을 거점으로 모인 무용 단체다. 단체명 ‘힌’은 하얀 도화지, 곧 ‘여백과 무(無)’의 상태처럼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무’에서 ‘유’로 향하는 창작 과정에서 놀이와 공상, 시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깊이 탐구한 신체를 바탕으로 예술적 메시지를 전하고 삶과 삶을 잇는 무대를 지향한다.

작품소개

<별찌 비나리>는 순우리말 ‘별찌(유성)’와 ‘비나리(축복)’에서 비롯된 제목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의 파편과 그에 깃든 삶의 축복을 상징한다. 찰나에 스쳐 사라지는 기억과 감정, 곧 하강하는 파편의 이미지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사라짐을 붙잡기보다 그 하강의 궤적을 끝까지 따라간다. 유성이 스스로를 소진하며 가장 밝게 빛나듯, 고통과 소진이 환희에 이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을 무용수의 몸을 통해 탐구한다.

www.heendance.kr

@heen_dance

출연진 CAST 김단(Dan Kim), 설은주(Eunju Seol), 양다원(Dawon Yang), 윤명인(Myungin Yoon), 이예림(Yearim Lee), 임재령(Jaeryeong Lim), 허결(Gyeol Heo)

제작진 CREDITS 연출 / 안무(Director / Choreographer)-정희은(Heeun Jeong), 김천웅(Chunwoong Kim)
무대디자인(Stage Design)-김천웅(Chunwoong Kim) 작곡(Composer)-최해순(Haesun Choe), 민트 박(Mint Park), 키라라(Kirara)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승호(Seungho Lee) 프로듀서(Producer)-한정후(Junghoo Han), 손지형(Jihyung Son)

힌댄스 Heen Dan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7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7 / Staff 4)
투어인원 총 12명(출연자 8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2 (Performers 8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Heen Dance is a Seoul-based dance group formed by artists from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Korea. Its name, “Heen” (white), evokes a blank canvas—a state of emptiness and openness in which anything can take shape. Moving from nothing into something, the group sets no limits on creation, imagination, or experimentation. With the rigorously explored body as its primary material, Heen Dance delivers artistic messages and connects one life with another.

ABOUT THE WORK

<Byeolzzi Binari> takes its title from two native Korean words—byeolzzi (a shooting star) and binari (a blessing)—meaning shards of light that fall from the sky and the blessings held within them. The work begins with the image of descending fragments: fleeting memories and emotions that flicker past and vanish. Rather than grasping at what disappears, the performance invites us to follow the descent to the very end. As a meteor burns brightest while consuming itself, the dancers’ bodies explore the paradox that pain and exhaustion may be the very passage to joy.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프로젝트 PROJECT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연예술작품을 창작하여
선보이는 공연

Showcase of new performing arts works
created in and representing Busan

라이징 RISING

부산 지역 대학 공연예술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협력 공연

Collaborative performances featuring
performing arts students from universities
in Busan

WAVE

웨이브 일정표 | WAVE SCHEDULE

프로젝트 PROJECT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조선왕세자 도망실록 The Annals of the Runaway Crown Prince	20m	10.03.(Sat.) 17:50~18:10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플로어 플라워 Floor Flower	20m	10.05.(Mon.) 13:30~13:50	
무용 Dance	당클매다: 신이 머문 자리 Dang-Kle-Mae-Da: The Dwelling Place of God	60m	10.06.(Tue.) 18:30~19: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라이징 RISING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대답되지 않은 질문 Unanswered Question	65m	10.07(Wed.) 19:30~20:35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10.03.(Sat.) 17:50
20min.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연극
Theater

전체관람
All Ages

조선왕세자 도망실록 The Annals of the Runaway Crown Princ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4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4 (Performers 10 / Staff 4)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10 / Staff 4)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Busan, ICONTACT builds contemporary work on two pillars — the spirit of resistance and the spirit of the times. Since 2020 the company has developed trilogy-based fictional universes across four director-led labels, now holding twelve original IPs spanning theatre, musical, physical theatre and immersive work. Selected for ARKO's Creative Body programme for six consecutive years (2022~2027), ICONTACT has toured to Edinburgh, seven cities across three Eastern European countries, New York and Santiago.

ABOUT THE WORK

Joseon, 17th century — reimagined. Dohyeon, a crown prince who wants no crown, flees the palace when his uncle seizes power. Crossing mountains and the southern sea, he learns not how to become a king but why he must be one. A K-Authentic Fantasy Musical whose magic comes not from Western spellcraft but from Korean notions of breath, energy and rhythm: no heavy scenery, only bodies, chorus and percussion conjuring a whole country. Through the riddles of the goblin Cheongwol, it asks — what does strength really mean?

단체소개

부산에서 설립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동시대 예술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실험하고 있다. 2020년부터 3부작 시리즈 세계관을 구축해 왔으며, 현재 연극, 뮤지컬, 퍼지컬 씨어터, 이머시브 공연 등 총 12개의 오리지널 IP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공연예술창작주체 사업에 6년 연속(2022~2027) 선정되었으며, 에든버러, 동유럽 3개국 7개 도시, 뉴욕, 산티아고 등에서 투어 공연을 진행했다.

작품소개

가상의 17세기 조선. 왕이 되기 싫은 왕세자 도현은 숙부의 반란을 피해 궁을 떠나고, 산과 바다를 건너며 '왕이 되는 법'이 아니라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다. 서구식 마법 대신 기운과 숨결, 장단이라는 한국적 감각에서 출발한 K-어센틱 판타지 뮤지컬. 거대한 장치 없이 배우의 신체와 합창, 타악의 에너지만으로 조선을 생성하며, 도깨비 청월의 질문 속에서 '강함이란 무엇인가'를 유쾌한 활극으로 묻는다.

@iccontact_kr

출연진 CAST 황태현(Taehyun Hwang), 이태성(Taeseong Lee), 채민수(Minsu Chae), 서보기(Bogi Seo), 박준수(Junsu Park), 강승환(Seunghwan Kang), 박문현(Moonhyun Park), 최지혜(Jihye Choi), 최선희(Seonhee Choi), 허다영(Dayoung Heo)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양승민(Seungmin Yang)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유병은(Byungeun Yoo) 작곡 / 음악감독(Composer / Music Director)-강유(Yu Ka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김수진(Sujin Kim) 무대감독(Stage Manager)-손희승(Huiseung Son)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강진구(Jingu Kang) 음향감독(Sound Director)-박동재(Dongjae Park) 영상감독(Visual Director)-임태홍(Taehong Lim)

10.05.(Mon.) 13:30
20min.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무용
Dance

전체관람
All Ages

플로어 플라워 Floor Flower



경희댄스씨어터 Kyung Hee Dance Theater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6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6 / Staff 3)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6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6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The theater was founded in 2016 by choreographer Jaehyun Park, following his leadership of M.note Dance Company, July Dance Company, and Contemporary Dance Company Jayu. The group focuses on producing contemporary dance projects that transcend genre boundaries by mixing music, theater, visual arts, and more. The projects aim to provide fresh perspectives for audiences and showcase the multifaceted nature of performing arts.

단체소개

M.note무용단, 줄라이무용단, 현대무용단 자유의 대표를 역임한 박재현 안무가를 중심으로 2016년 창단된 이래, 장르의 경계를 넘어 창작 현대무용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무용을 단순한 움직임에 국한하지 않고 음악, 연극, 미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의 다각적인 가능성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작품소개

이 작품은 인간의 영혼에 깃든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끝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부조리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논리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연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타인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루기도 어렵다. 동백꽃은 필 때도 인상적이지만, 질 때 더욱 아름답다. 꽃잎이 다 벌어지기도 전에 싱싱한 꽃이 통째로 툭 떨어져 내린다. 피어나기도 전에 지는 꽃, 동백꽃은 요절과 가까운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ABOUT THE WORK

This project takes the audience to the pit of the human soul, to show how deep the darkness within can go.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just state of the world around us, we needn't only study sociological theories and logic but also understand the dark and twisted human psyche. Without self-awareness, one cannot understand others, the world, or impose positive change. Camellias are beautiful when in bloom, but even more so in the face of death. The flower head completely drops off during the peak of its beauty. The premature death of camellias reminds us of tragic deaths, deaths that came too soon.

출연진 CAST 김소이(Soyi Kim), 허성준(Seongjun Heo), 이제형(Jehyeong Lee), 김근영(Geunyoung Kim), 임수연(Suyeon Im), 박재현(Jaehyun Park)

제작진 CREDITS 안무 / 연출(Choreographer / Director)-박재현(Jaehyun Park) 무대감독(Stage Manager)-김호진(Hojin Kim)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조세현(Sehyun Jo)

10.06.(Tue.) 18:30
60min.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Haeun Hall

무용
Dance

전체관람
All Ages

당클매다: 신이 머문 자리 Dang-Kle-Mae-Da: The Dwelling Place of God



BWC댄스컴퍼니 BWC Dance Company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3명(출연자 35명 / 스태프 8명)
Participants Total 43 (Performers 35 / Staff 8)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8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8 / Staff 2)

ABOUT THE GROUP/COMPANY

BWC Dance Company is a professional dance company based in Busan. Grounded in street dance, the company collaborates with dancers from various dance genres — Korean traditional dance, contemporary dance, belly dance, and ballet — to create performances. By combining the dynamic expressiveness of street dance with stage artistry, BWC presents original works that resonate with audiences.

ABOUT THE WORK

<Dang-Kle-Mae-Da: The Dwelling Place of God> is a multi-genre dance performance inspired by the Dang-Kle, a traditional shrine shelf dedicated to the divine. Grounded in street dance, the work combines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shamanism with multi-genre staging. Expressing the space where humanity meets the sacred through clear direction and synchronized performance, it offers an immersive stage experience that deeply resonates with audiences.

단체소개

BWC댄스컴퍼니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문 무용 단체이다. 스트릿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용, 현대무용, 벨리댄스, 발레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들과 협업하며 공연을 제작한다. 스트릿댄스의 역동적인 표현력과 무대 예술성을 결합하여, 관객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소개

<당클매다: 신이 머문 자리>는 신을 모시는 제단인 '당클'에서 영감을 받은 다장르 융합 무용 작품이다. 스트릿댄스를 기반으로 한국 전통 무속의 요소와 다양한 장르의 연출을 결합하여 무대를 구성한다. 신성함과 인간의 삶이 맞닿는 자리를 정교한 연출과 무용수들의 함으로 그려내며, 관객에게 깊은 공감과 몰입감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bwc_dance

출연진 CAST 서덕구(Duckku Seo), 박수화(Suhwa Park), 이원영(Wonyoung Lee), 윤아연(Ahyeon Yun), 김보경(Bokyung Kim), 박한별(Hanbyeol Park), 손영일(Youngil Son), 황세민(Semin Hwang), 허성우(Seongwoo Heo), 정지원(Jiwon Jung), 소재환(Jaehwan So), 천병준(Byoungjun Chun), 노희범(Heebum Noh), 윤상민(Sangmin Yun), 장수현(Soohyun Jang), 이범수(Beomsu Lee), 김도영(Doyeong Kim), 고세민(Semin Go), 변지우(Jiwoo Byeon), 홍채은(Chaeun Hong), 정윤(Yoon Jung), 김한솔(Hanseul Kim), 유수민(Sumin Yoo), 박소현(Sohyun Park), 서예은(Yeeyun Seo), 정수민(Sumin Jeong), 조연서(Yeonseo Jo), 황지원(Jiwon Hwang), 김지아(Jia Kim), 이지예(Jiye Lee), 김채린(Chaerin Kim), 김나경(Nagyung Kim), 안소희(Sohee Ahn) **사운드퍼포머(Sound Performer)**-문수경(Sukyung Moon) **악사(Musician)**-최진석(Jinseok Choi)

제작진 CREDITS 연출 / 안무(Director / Choreographer)-서덕구(Duckku Seo)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김해성(Haesoung Kim) 무대감독(Stage Manager)-김호진(Hojin Kim)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곽동인(Dongin Kwak), 정강화(Kunghwa Jung), 손희원(Heewon Son) 기획(Promotor)-김은영(Eunyoung Kim), 임재환(Jaewhan Lim) **홍보(PR)**-진보라(Bora Jin)

10.07.(Wed.) 19:30
65min.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Dongseo Univ. Sohyang Experimental Theater

연극
Theater

7세 이상
Ages 7+

대답되지 않은 질문 Unanswered Question



단체소개

동서뮤지컬엔터테인먼트는 동서대학교 뮤지컬엔터테인먼트과의 교내 가상기업(IFS)으로, 공연예술 및 미디어 콘텐츠의 창작부터 무대 실연까지 수행하는 전문 창·제작 단체이다.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 협력 기업과 연계하여 예비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작품소개

전쟁, 폭력, 억압, 구속, 속박.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너무나 쉽게 마주치는 것들.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질문은 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물음에 작고 간절한 몸부림으로 다가간다.

동서뮤지컬엔터테인먼트 DSME (DongSeo Musical Entertainment)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7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7 / Staff 4)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7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7 / Staff 3)

ABOUT THE GROUP/COMPANY

Dongseo Musical Entertainment is an In-school Field System (IFS) affiliated with the Department of Musical Entertainment at Dongseo University. It is a professional performing arts production company that develops performing arts and media content and presents live stage performances. The company collaborates with local partner companies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al theatre and drama, providing an environment for aspiring artists to develop their skills and grow. Furthermore,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culture through its creative and educational activities.

ABOUT THE WORK

War, violence, oppression, confinement, and restraint. We may think these things are far removed from our reality, but in truth, they exist within us, beside us, and are embedded at the core of our existence. “Who? Why? For what purpose?” We approach these mundane yet difficult questions with timid and desperate measures.

출연진 CAST 오세준(Sejoon Oh), 양정민(Jongmin Yang), 이예린(Yerin Lee), 이나경(Nagyung Lee), 이수하(Soocha Lee), 모리 코무기(Komugi Mori), 오오바 이부키(Ibuki Oub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윤태식(Teashik Yoon) 안무(Choreographer)-이시윤(Siyoun Lee)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문훈(Hoon Moon)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넥스트 스테이지 NEXT STAGE

성장 가능성을 지닌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
Showcase of projects by young local artists with
strong growth potential

부산청년프린지연합 Busan Emerging Artists Fringe

부산청년프린지연합(Busan Emerging Artists Fringe)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산의 청년 예술단체들이 모여 릴레이 쇼케이스형
프린지를 선보입니다.

The Busan Emerging Artists Fringe is a collective
of young arts organizations in Busan. The Alliance
presents a series of showcase-style fringe
performances, fostering an artistic ecosystem
where emerging artists can freely experiment, take
creative risks, and embrace new challenges.

NEXT STAGE

넥스트 스테이지 일정표 | NEXT STAGE SCHEDULE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배우는 변호사 정민정 The Learning Lawyer, Jeong Min-jeong	20m	10.06.(Tue.) 10:00~10:2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쿠바의 리듬, 겿츠의 음악 Cuban Ritmo, Getz's Music	20m	10.06.(Tue.) 10:25~10:4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무명 The Nameless	20m	10.06.(Tue.) 10:50~11:1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The Moment We Connect	20m	10.06.(Tue.) 11:15~11:3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추락하지 않았다 The Unfallen	20m	10.06.(Tue.) 11:40~12: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넌 내 꿈: 록큰롤 한마당 Neon Nae Kkum: Rock 'n' Roll Hanmadang	20m	10.06.(Tue.) 12:05~12:2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플레이 인 그라운드 Play in Ground	20m	10.06.(Tue.) 12:30~12:5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렌필드 Renfield	20m	10.06.(Tue.) 12:55~13:1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성숙의 시대 The Age of Maturity	20m	10.06.(Tue.) 13:20~13:4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무용 Dance	템포 루바토 Tempo Rubato	20m	10.06.(Tue.) 13:45~14:0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무용 Dance	부서진 나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No One Heard the Broken Me	20m	10.06.(Tue.) 14:10~14: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Genre	Title	Running Time	Date & Time	Venue
연극 Theater	블라인디드 아일랜드 Blinded Island	20m	10.06.(Tue.) 14:35~14:5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아빠! 어디가? Where did Dad go?	20m	10.06.(Tue.) 15:00~15:2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그림 밖 500년: 전우치 시대를 춤추다 500 Years Outside the Painting: Jeonwoochi, Dancing the Ages	20m	10.06.(Tue.) 15:25~15:4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판타스틱 카툰 Fantastic Cartoon	20m	10.06.(Tue.) 15:50~16:1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삼색 프로젝트 - 한국의 전래동화 The Tricolor Project - The Folklores of Korea	20m	10.06.(Tue.) 16:15~16:3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음악 Music	환상적 탱고 Korean Tango Fantasy	20m	10.06.(Tue.) 16:40~17: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브리즈 앤 그루브스: 더 사운드 오브 결 Breeze & Grooves: The Sound of KYUL	20m	10.06.(Tue.) 17:05~17:2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월지문 The Moon's Kiss	20m	10.06.(Tue.) 17:30~17:5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음악 Music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이야기 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Stories	20m	10.06.(Tue.) 17:55~18:15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배우는 변호사 정민정 The Learning Lawyer, Jeong Min-jeong

넥스트 랩 스테이지-26 Next Lab Stage-26



10.06.(Tue.) 10:0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ll Ages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투어인원 총 14명(출연자 11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14 (Performers 11 / Staff 3)

단체소개

넥스트 랩 스테이지-26은 창작을 시작하는 예비 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개발하고, 쇼케이스와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창작 언어를 발견해 가는 공연예술 프로젝트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Next Lab Stage-26 is a performing arts project where emerging artists at the beginning of their creative journeys develop original works together and discover their own artistic voices through showcases and live performances.

작품소개

연습 중인 대본과 똑같은 실제 살인 사건을 의뢰받다! 비극으로 정해진 결말을 시원하게 찢어버리고 현실의 피고인을 구하러 나선, 열혈동맹 이상한 변호사 정민정의 우당탕탕 블랙코미디 법정극이다.

ABOUT THE WORK

A real-life murder case lands on his desk—and it mirrors the script he's rehearsing! Determined to defy tragedy, eccentric lawyer Minjeong Jeong fights to save the defendant in a chaotic black comedy.

출연진 CAST 강대현(Daehyeon Kang), 오제니(Jenny Oh), 김현영(Hyunyeong Kim), 황우성(Woosung Hwang), 김민규(Mingyu Kim), 정다운(Dawoon Ju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양정윤(Jeongyun Yang)
작가(Playwright)-정민제(Minje Jeong) 포스터 디자이너(Poster Designer)-전현정(Hyeonjeong Jeon), 조예솔(Yesol Jo) 조명(Light Director)-이영준(Youngjun Lee) 음향(Sound Director)-이호원(Howon Lee) 무대(Stage)-김재한(Jaehan Kim)

@next_lab_stage

쿠바의 리듬, 겟츠의 음악 Cuban Ritmo, Getz's Music

겟츠 Getz



10.06.(Tue.) 10:2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7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7 / Staff 0)

투어인원 총 7~12명(출연자 7~1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7~12 (Performers 7~12 / Staff 0)

단체소개

겟츠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7인조 쿠바 라틴 재즈 밴드이다. Son, Danzón, Cha-cha-chá, Mambo, Salsa를 바탕으로 쿠바 음악의 전통과 겟츠만의 작곡곡을 선보인다.

ABOUT THE GROUP/COMPANY

Getz is a Busan-based seven-piece Cuban Latin jazz band. Drawing on Son, Danzón, Cha-cha-chá, Mambo, and Salsa, Getz blends Cuban musical traditions with original compositions.

작품소개

겟츠는 쿠바의 전통음악인 Son, Danzón, Cha-cha-chá, Bolero에서 Mambo와 Salsa에 이르기까지, 쿠바 음악의 전통을 따라가며 겟츠의 자작곡으로 이어지는 음악적 여정을 선보인다.

ABOUT THE WORK

Getz takes audiences on a musical journey through Cuban traditions—from Son, Danzón, Cha-cha-chá, and Bolero to Mambo and Salsa—leading to Getz's original compositions.

출연진 CAST 보컬(Vocal)-배수진(Sujin Bae), 관현진(Hyunjin Kwak)
기타(Guitar) / 코러스(Chorus)-박동재(Dongjae Park) 피아노(Piano)-정시윤(Siyeon Jeong) 베이스기타(Bass Guitar) / 코러스(Chorus)-김선훈(Sunhoon Kim) 드럼(Drum) / 퍼커션(Percussion)-오르티즈 사마다 알라인(Ortiz Samada Alain) 색소폰(Saxophone) / 코러스(Chorus)-하재현(Jaehyun Ha)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하재현(Jaehyun Ha), 박동재(Dongjae Park)

@getz_busan

무명 The Nameless

넥스트 랩 스테이지-26 Next Lab Stage-26



10.06.(Tue.) 10:5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7세 이상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ges 7+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5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5 / Staff 2)

단체소개

넥스트 랩 스테이지-26은 창작을 시작하는 예비 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개발하고, 쇼케이스와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창작 언어를 발견해 가는 공연예술 프로젝트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Next Lab Stage-26 is a performing arts project where emerging artists at the beginning of their creative journeys develop original works together and discover their own artistic voices through showcases and live performances.

작품소개

조선 신분제의 억압에 맞서 목숨을 걸고 판을 흔든 광대 백진과 양반 지현의 뜨거운 선연. 답답한 불합리의 벽을 깨부수고 관객과 함께 가슴속 울분을 터뜨릴 거대한 마지막 연희, '도깨비 잔치'가 펼쳐진다.

ABOUT THE WORK

A fierce declaration by clown Baek-jin and nobleman Ji-heon, who risk their lives to free Joseon from its brutal class system. In defiance, 'Dokkaebi Banquet' begins—a final performance unleashing their rage.

출연진 CAST 임경민(Kyungmin Lim), 박준영(Junyoung Park), 고가영(Gayoung Go), 조예솔(Yesol Jo), 유진혁(Jinhyuk Yu)

제작진 CREDITS 작가(Writer)-최윤정(Yoonjung Choi) 연출(Director)-강명진(Myeongjin Kang) 음악(Music)-노재하(Chaeha No) 조명(Light Director)-이영준(Youngjun Lee) 음향(Sound Director)-이호원(Howon Lee) 무대(Stage)-김재한(Jaehan Kim)

@next_lab_stage

우리가 연결되는 순간 The Moment We Connect

강혜인 퀸텟 Hyein Kang Quintet



10.06.(Tue.) 11:1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단체소개

강혜인 퀸텟은 탄탄한 연주력과 유기적인 앙상블로 쉽고 따뜻한 재즈를 선보이는 5인조 밴드이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깊이 있는 인터플레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관객층과 편안하게 공감하고자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Hyein Kang Quintet is a 5-piece band delivering approachable, warm jazz with solid musicianship and organic interplay. Grounded in lyrical melodies, they comfortably resonate with a wide audience.

작품소개

다섯 악기가 주고받는 정교한 음악적 대화를 매개로 연주자와 관객, 공간이 하나로 이어진다. 서정적 멜로디에서 폭발적 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언어를 넘어 서로의 온기를 깊이 연결한다.

ABOUT THE WORK

Through an intricate musical dialogue between five instruments, musicians, audiences, and space become seamlessly connected. Moving from lyrical melodies to dynamic live energy, it deeply unites everyone in shared warmth beyond language.

출연진 CAST 피아노(Piano)-강혜인(Hyein Kang) 보컬(Vocal)-정세미(Semi Jeong) 기타(Guitar)-송명기(Myoungki Song) 베이스(Bass)-심규환(Kyuhwan Shim) 드럼(Drum)-홍영호(Youngho Hong)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 / 작곡 / 작사(Producer / Composer / Lyricist)-강혜인(Hyein Kang) 작곡 / 작사(Composer / Lyricist)-정세미(Semi Jeong)

@gracehyein_k

추락하지 않았다 The Unfallen

넥스트 랩 스테이지-26 Next Lab Stage-26



10.06.(Tue.) 11:4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13세 이상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ges 13+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4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4 / Staff 4)

단체소개

넥스트 랩 스테이지-26은 창작을 시작하는 예비 예술가들이 함께 작품을 개발하고, 쇼케이스와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창작 언어를 발견해 가는 공연예술 프로젝트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Next Lab Stage-26 is a performing arts project where emerging artists at the beginning of their creative journeys develop original works together and discover their own artistic voices through showcases and live performances.

작품소개

“실내”는 “절대 추락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서진은 두렵기만 하다. “실내”는 “절대 추락하지 말고 건물을 점령하라.”며 아이들을 “야외”로 내쫓는다. 서진은 과연 살아남아 살아갈 수 있을까?

ABOUT THE WORK

The “Inside” tells the children, “You must never fall,” but Seojin is frightened. It sends them out to the “Outside” with one order: “Never fall and invade the building.” Will Seojin survive—and find a way to live?

출연진 CAST 강소현(Sohyun Kang), 김준일(Junil Kim), 나도휘(Dohwi Na), 조희연(Heeyeon J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황소정(SoJeong Hwang)
작가(Writer)-최지우(Jiwoo Choi) 조명(Light Director)-이명준(Youngjun Lee) 음향(Sound Director)-이호원(Howon Lee) 무대(Stage)-김재한(Jaehan Kim)

@next_lab_stage

넌 내 꿈: 록큰롤 한마당 Neon Nae Kkum: Rock 'n' Roll Hanmadang

넌 내 꿈 Neon Nae Kkum



10.06.(Tue.) 12:0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단체소개

넌 내 꿈은 ‘서로가 서로에게 꿈이 되자’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삶과 꿈을 거칠지만 따스한 록으로 노래한다. 일상의 희로애락과 작은 희망을 자신만의 언어로 담아내는 록 뮤지션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Neon Nae Kkum is a rock musician guided by the vision, “Let’s become a dream for one another.” Through raw yet warm rock music, he sings of our lives and dreams, giving voice to the joys, sorrows, and small hopes found in everyday life.

작품소개

거칠거칠한 록 사운드 위에 익살 퍼포먼스를 장착한 넌 내 꿈의 무대! 우리들의 삶과 꿈을 장난인지 진심인지 아리송하게 풀어내며, 모두가 함께 웃고 뒤흔 수 있는 록큰롤 한마당을 펼친다.

ABOUT THE WORK

With humor and sincerity side by side, Neon Nae Kkum transforms everyday lives and dreams into a rock ‘n’ roll party where everyone can laugh, jump, and join the fun.

출연진 CAST 기타(Guitar) / 보컬(Vocal)-넌 내 꿈(Neon Nae Kku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넌 내 꿈(Neon Nae Kkum)

@neon_nae_kkum

@NEONNAEKKUM-pi8jb

플레이 인 그라운드 Play in Ground

아이컨택 ICONTACT



10.06.(Tue.) 12:3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ll Ages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3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10명)
Participants Total 23 (Performers 13 / Staff 10)

투어인원 총 23명(출연자 13명 / 스태프 10명)
Touring Members Total 23 (Performers 13 / Staff 10)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전개하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in Busan that develops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and exhibitions based on two main creative triggers: resistance and zeitgeist mindsets.

작품소개

한·중·일 청년 예술가들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외로움’을 몸으로 번역한다. 학교, 원룸, 사무실을 지나 놀이터로. 세 나라, 하나의 무대.

ABOUT THE WORK

Young artis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turn isolation and loneliness into a wordless physical language — from school, one-room and office to a shared playground. Three countries, one stage.

출연진 CAST 장재영(Jaeyoung Jang), 김경훈(Kyunghoon Kim), 장시현(Sihyun Jang), 손창민(Changmin Son), 민유원(Yuwon Min), Yubing Chen, Hairou Sun, Yilei Yuan, Tomoki Kawamura, Takuto Sakurai, Yusuke Miya, Shunya Kawaguchi, Souta Takagi

제작진 CREDITS 연출 / 프로듀서 (Director / Producer)-양승민(Pacino Yang) 연출(Director)-박용희(Yonghee Park) 프로듀서(Producer)-최지혜(Jihye Choi) 조연출(Assistant Director)-윤재원(Chaewon Yoon) 조명감독(Light Director)-이명준(Youngjun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손희승(Huseung Son) 무대(Set)-아우라 스테이지(Aura Stage) 기획(Promotor)-김수진(Sujin Kim) 코디네이터(Coordinator)-신미숙(Misook Catherine Shin) 프로듀서(Producer)-Zishuo Xing 연출(Director)-Zhiwei Wu 드라마터그(Dramaturg)-Xiaolei Sun 음향 / 무대디자인(Sound / Stage Design)-Pengfei Zhu (Playwright,Director)-Tomoki Kawamura (Choreographer, Sound Artist)-Takuto Sakurai (Choreographer, Art Producer)-Yusuke Miya (Dramaturg, Theatre Producer)-Kensuke Seto Cameron

@icontact_kr

렌필드 Renfield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 Wussami



10.06.(Tue.) 12:5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우주왕복선싸이드미러는 일상의 찰나를 포착해 따뜻하고 위트 있는 인디팝을 선보인다. 멀어지는 풍경을 비추는 거울처럼, 당신의 모든 계절에 다정한 위로의 주파수를 맞춘다.

ABOUT THE GROUP/COMPANY

Wussami captures the beauty of everyday moments through warm, witty indie pop. Like a mirror reflecting the passing scenery, their cozy sound becomes the perfect soundtrack to your daily life.

작품소개

<렌필드>는 영화적 퍼포먼스와 인디팝의 경계를 허무는 쇼케이스이다. <당년장>의 향수부터, <드라큘라걸>, <평생>으로 이어지는 짙은 감성의 서사를 통해, 관객의 마음에 잊지 못할 여운을 새긴다.

ABOUT THE WORK

A showcase blending cinematic performance with indie pop. Moving from the nostalgia of <A Better Tomorrow> to the deep emotional arcs of <DRACULAGIRL> and <P.S.>, it leaves an unforgettable impression.

출연진 CAST 보컬(Vocal) / 기타(Guitar)-백충원(Prewussami) 기타(Guitar) / 백보컬(Backing Vocal)-김선훈(Sunhoon Kim)

@wussami_

성숙의 시대 The Age of Maturity

물레방아 Water Wheel



10.06.(Tue.) 13:2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4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4 / Staff 3)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6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6 / Staff 4)

단체소개

물레방아는 끊임없이 돌아가며 새로운 물을 만들어내는 물레방아처럼, 익숙한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과 무대 언어로 다시 빚어내며 오늘날의 관객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ABOUT THE GROUP/COMPANY

Like a watermill that turns endlessly to draw fresh water, Water Wheel Theatre continually reshapes familiar stories through new perspectives and theatrical languages, creating stories that speak to audiences today.

작품소개

“나는 누군가의 연인도, 조수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의 고통을 빚는 조각가다.” 로망의 연인이자 조수로 알려진 천재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삶을 바라본다.

ABOUT THE WORK

“I am not someone’s lover, nor someone’s assistant. I am a sculptor who only shapes my own pain.” The work explores the life of a woman who sought to exist under her own name, as an artist in her own right.

출연진 CAST 이설(Seol Lee), 이충환(Chunghwan Lee), 이세림(Serim Lee), 남동훈(Donghun Na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최유경(Yukyung Choi)
무대감독(Stage Manager)-최지환(Jihwan Choi) 조연출(Assistant Director)-전민지(Minji Jeon)

@mullebanga

템포 루바토 Tempo Rubato

극예술실험집단 초
Theater Arts Experiment Group CHO



10.06.(Tue.) 13:4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9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9 / Staff 2)

투어인원 총 11명(출연자 9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1 (Performers 9 / Staff 2)

단체소개

“밝히다, 자라다, 시작하다, 흐르다, 뛰어넘다.” 극예술실험집단 초는 연극의 새로운 형식과 방식을 실험하고 도전한다. 연극을 찾는 모두에게 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to reveal, to grow, to begin, to flow, to surpass.” Theater Arts Experiment Group CHO explores and takes risks in pursuit of new forms and styles of theater. We aim to offer everyone who comes to see our theater a new experience.

작품소개

빠르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만의 속도를 잃어가던 한 사람의 방향과 회복을 통해, 서로 다른 속도와 리듬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ABOUT THE WORK

In a fast-moving society, a person who has lost their own rhythm embarks on a journey of wandering and recovery, discovering the value of embracing different paces and rhythms and finding a way to exist together.

출연진 CAST 목수연(Suyeon Mok), 황정인(Jeongin Hwang), 강진서(Jinseo Kang), 윤지원(Jiwon Yoon), 박찬준(Chanjun Park), 김지윤(Jiyeon Kim), 김지섭(Jiseop Kim), 조형준(Hyungjun Jo), 차은서(Eunseo Cha)

제작진 CREDITS 연출 / 무대감독 (Director / Stage Manager)-노민재(Minjae Noh) 안무감독(Choreography Director)-한승우(Seungwoo Han) 음악감독(Music Director)-노채하(Chaeha Noh)

@cho_thespian
https://linktr.ee/chothespian

부서진 나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No One Heard the Broken Me

배-아트 Bae-Art



10.06.(Tue.) 14:1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단체소개

배-아트는 외부에서 마주하는 감각과 자극, 그리고 그에 따른 내면의 반응을 통해 신체적 감정을 탐구한다. 그 과정에서 감각과 감정을 움직임으로 풀어내며, 신체가 지닌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Bae-Art work explores physical emotions through sensory experiences and stimuli encountered externally, as well as the internal responses they evoke. Through this process, she translates these sensations and emotions into movement, seeking new possibilities within the body.

작품소개

가만히 있고 싶었다. 그러나 누군가와 맞닿은 채 홀로 흔들린다. 정적은 고요하지 않다. 조용할수록 미세한 떨림이 몸의 경계를 따라 진동한다. 내면의 진동은 마침내 하나의 ‘몸의 기록’으로 남는다.

ABOUT THE WORK

I wanted to remain still, yet tremble through contact with another. Stillness is never truly quiet. The quieter it becomes, the more subtle tremors resonate through the body, leaving a “record of the body.”

출연진 CAST 배진아(Jinah Bae), 장진솔(Jinsol Jang), 김규나(Gyuna Kim)

제작진 CREDITS 연출 / 안무 (Director / Choreographer)-배진아(Jinah Bae) 조안무(Assistant Choreographer)-장진솔(Jinsol Jang) 작곡 / 편곡 (Composer / Arranger)-황세민(Semim Hwang) 음향감독(Sound Director)-박문현(Moonhyun Park)

블라인디드 아일랜드 Blinded Island

극단 우릿 Theater Woolit



10.06.(Tue.) 14:3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1명(출연자 9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11 (Performers 9 / Staff 2)

투어인원 총 18명(출연자 12명 / 스태프 6명)
Touring Members Total 18 (Performers 12 / Staff 6)

단체소개

극단 우릿은 연극, 뮤지컬, 신체극 등 다양한 창작 공연을 제작하고 있다. “좋은 감동은 좋은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 아래, 쉽게 설명되지 못했던 감정과 존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theatre creating original plays, musicals, and physical theatre. Guided by the belief that “meaningful inspiration creates meaningful change,” it tells stories of overlooked lives and emotions.

작품소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 가까스로 살아남은 선희는 낙원이라 불리는 섬에 도착한다. 그러나 완벽한 질서 뒤에 숨은 진실을 마주하며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ABOUT THE WORK

In a world devastated by war, Seon-ho, a survivor, arrives on an island known as paradise. But as he uncovers the truth hidden behind its seemingly perfect order, he begins to question what it truly means to live as a human being.

출연진 CAST 문석종(Seokjong Mun), 강유정(Yujeong Kang), 강우혁(Woohyuck Kang), 이정민(Jeongmin Lee), 김주연(Jiyeon Kim), 정부경(Bugyeong Jung), 박준현(Junhyun Park), 이열우(Yeolu Lee), 권명호(Youngho Kwon)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or)-이수지(Suji Lee) 연출 / 작가 (Director / Writer)-강인정(Injung Kang) 작곡(Composer)-한상훈(Sanghoon Han) 안무(Choreographer)-강희정(Huijeong Ka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이해솔(Haesol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손희승(Huiseung Son) 음향감독(Sound Director)-이호원(Howon Lee) 무대디자인(Stage Design)-손현성(Hyeonseong Son) 조명디자인(Lighting Design)-이영준(Youngjun Lee) 의상디자인(Costume Design)-김주연(Jiyeon Kim)

@woolit_theater_

아빠! 어디가? Where did Dad go?

극단 아티 Theatre Arti



10.06.(Tue.) 15:0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13세 이상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ges 13+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4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4 / Staff 2)

단체소개

극단 아티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연출을 실험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함께 고민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다양한 무대 언어를 통해 동시대의 질문을 관객과 나누는 작품을 제작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atre Arti is a performing arts group that explores new theatrical ideas and original approaches, creating accessible works that connect contemporary questions with audiences.

작품소개

블랙박스에 남겨진 소리로 아빠의 행적을 추적하는 가족의 이야기. 보이지 않는 장면을 소리로 상상하고 각자의 추측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사운드 기반 연극이다.

ABOUT THE WORK

A family traces their father's whereabouts through sounds left in a car's black box. This sound-based play explores how imagination and suspicion turn into certainty.

출연진 CAST 국민용(Minyong Kook), 김세진(Sechin Kim), 박문현(Moonhyun Park) **퍼커션(Percussion)**-양민우(Minwoo Ya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박성준(Sungjun Park)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강진구(Jingu Kang)

@artistreet.company

그림 밖 500년: 전우치 시대를 춤추다 500 Years Outside the Painting: Jeonwoochi, Dancing the Ages

예술단체 백의(百意)

Art Organization Baekeui



10.06.(Tue.) 15:2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8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8 / Staff 1)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8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8 / Staff 1)

단체소개

예술단체 백의(百意)는 다양한 예술인들이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활발한 문화예술 교류로 그 가치를 세상에 확산시키는 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Baekeui is an arts organization where diverse artists converge to create new art at the intersect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actively sharing its value with the world through vibrant cultural and artistic exchange.

작품소개

500년 동안 그림 속에 갇혀 변화하는 세상을 지켜본 전우치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변화한 시대의 흐름을 압도적인 예술로 창조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예술적 시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ABOUT THE WORK

After 500 years trapped in a painting, witnessing an evolving world, Jeonwoochi is finally liberated. He powerfully transforms the flow of these changed eras into art, inviting you to an artistic realm where tradition and modernity coexist.

출연진 CAST 임영환(Youngwan Im), 이청빈(Cheongbin Lee), 홍주성(Juseong Hong), 정원욱(Wonwook Jung), 김승민(Seungmin Kim), 서정우(Jeongwoo Seo), 이수환(Suhan Lee), 서황민(Hwangmin Se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임영환(Youngwan Im) 기획(Promoter)-김승민(Seungmin Kim) 조연출(Assistant Director)-이다영(Dayoung Lee) 예술감독(Artistic Director)-이청빈(Cheongbin Lee) 안무(Choreographer)-홍주성(Juseong Hong), 정원욱(Wonwook Jung) 조안무(Assistant Choreographer)-서황민(Hwangmin Seo), 서정우(Jeongwoo Seo)

@baekeui_
www.baekeui.com

판타스틱 카툰 Fantastic Cartoon

판플 Fanpl



10.06.(Tue.) 15:5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ll Ages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단체소개

판플은 '판타스틱 플레이'의 줄임말로, 부산의 청년예술가들이 모인 공연예술단체이다. 다양한 공연 언어를 바탕으로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을 만들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지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Fanpl, short for 'Fantastic Play,' is a performing arts collective of young artists from Busan. Drawing on diverse theatrical languages, they create bold, innovative works that engage and connect with audiences.

작품소개

<판타스틱 카툰>은 관객의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완성하는 참여형 공연이다. 만화적 분장과 움직임, 코믹한 즉흥 연기로 언어의 경계를 넘어 매끄러운 무대를 만든다.

ABOUT THE WORK

An interactive performance where the audience's ideas shape the story. Through cartoonish makeup, movement, and improvisations, it transcends language barriers to create a unique performance each time.

출연진 CAST 이크신(Keusin Lee), 문재희(Jaehee Moon), 강규민(Gyumin Kang), 박준희(Junhee Park), 유시화(Sihwa Yoo), 고유라(Yura Ko)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양재영(Jaeyoung Yang)

@fantasticplay37
https://fantasticplay.creatorlink.net/

삼색 프로젝트 - 한국의 전래동화 The Tricolor Project - The Folklores of Korea

도담양상블 Ensemble Dodam



10.06.(Tue.) 16:1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전체관람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단체소개

도담양상블은 2019년에 창단된 부산을 대표하는 현악4중주단 중 하나이다. 미국 국무부 IVLP 임팩트 어워드를 수상한 작곡가 강현민을 중심으로, 부산 클래식 음악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Dodam Ensemble, founded in 2019, is one of Busan's leading string quartets. Led by composer Hyunmin Kang, a recipient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s IVLP Impact Award, the ensemble is dedicated to expanding the reach of classical music in Busan.

작품소개

<삼색 프로젝트>는 한국의 다양한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창작 클래식 음악 프로젝트로, 예술을 통해 한국 전래동화에 숨겨진 문화적, 정치적, 편견적 요소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ABOUT THE WORK

An original classical music project inspired by diverse Korean folktales. Through music, it explor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contexts and biases embedded within these traditional narratives.

출연진 CAST 바이올린(Violin)-김민화(Minhwa Kim), 진혜빈(Hyebin Jin) 비올라(Viola)-권나영(Nayoung Kwon) 첼로(Cello)-정혜주(Hyeju Jeong)

제작진 CREDITS 작곡/ 음악감독(Composer / Music Director)-강현민(Hyunmin Kang)

환상적 탱고 Korean Tango Fantasy

친친탱고 ChinChin Tango



10.06.(Tue.) 16:4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4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4 / Staff 0)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4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4 / Staff 0)

단체소개

친친탱고는 희로애락이 담긴 탱고의 매력을 전하는 컨템포러리 반도네온 앙상블이다. '친친'은 스페인어로 "건배", 한국어로는 '친한 친구'를 뜻한다.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탱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ontemporary bandoneon ensemble capturing life's diverse emotions. Named after the Spanish toast "¡Chinchín!" and a Korean phrase for "close friends", they make tango accessible to all.

작품소개

이번 공연은 친친탱고의 자작곡으로 구성되며, 반도네온의 섬세한 음색으로 유년의 아련한 기억을 담아낸 <나비의 춤>을 비롯해 치열하면서도 몽환적인 다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ABOUT THE WORK

Composed entirely of original works, this concert features <Dance of the Butterfly>—which evokes the tender childhood memories through the nuanced textures and dreamlike compositions of the bandoneon.

출연진 CAST 반도네온(Bandoneon)-김종완(Jongwan Kim)
피아노(Piano)-이안나(Anna Lee) 바이올린(Violin)-강소연(Soyeon Kang) 드럼(Drum) / 퍼커션(Percussion)-이영훈(Younghoon Lee)
제작진 CREDITS 연출 / 작곡(Director / Composer)-김종완(Jongwan Kim)

@chinchintango

브리즈 앤 그루브스: 더 사운드 오브 겔 Breeze & Grooves: The Sound of KYUL

음악그룹 겔 Music Group KYUL



10.06.(Tue.) 17:0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투어인원 총 5~7명(출연자 5~7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5~7 (Performers 5~7 / Staff 0)

단체소개

음악그룹 겔은 다양한 '소릿겔'을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기승전결'의 의미를 담아, 관객을 풍성하고 유기적인 음악적 여정으로 초대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Music Group KYUL creates music everyone can enjoy through a diverse tapestry of sounds (Sorit-kyul). Embracing Gi-seung-jeon-gyul, the group takes audiences on a rich and cohesive musical journey.

작품소개

<바람결>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움직임을 음악으로 표현한 곡이다. <민요재즈>는 '본조아리랑', '군밤타령', '꼭두각시', '밀양아리랑' 등 친숙한 민요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된 곡이다.

ABOUT THE WORK

A piece capturing the subtle, ever-present movement of wind brushing past us. <Folk Song Jazz (Minyo Jazz)> reimagines familiar Korean folk melodies, including Bonjo Arirang, Gunbam Taryeong, and Milyang Arirang.

출연진 CAST 해금(Haengeum)-백진주(Jinju Baek) 피리(Piri)-황자원(Jiwon Hwang) 피아노(Piano)-장세연(Seyeon Chang) 베이스(Bass)-전영주(Youngjoo Jun) 드럼(Drum)-홍영호(Youngho Hong)
제작진 CREDITS 기획(Promotor)-백진주(Jinju Baek) 음악감독(Music Director)-장세연(Seyeon Chang) 홍보(Public Relations)-황자원(Jiwon Hwang)

@kyul_official

월지문 The Moon's Kiss

아이컨택 ICONTACT



10.06.(Tue.) 17:30 20min.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Haeundae Cultural Center Goun Hall Ages 7+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0명(출연자 5명 / 스태프 5명)
Participants Total 10 (Performers 5 / Staff 5)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5명 / 스태프 4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5 / Staff 4)

단체소개

아이컨택은 저항정신과 시대정신이라는 두 창작정신을 바탕으로 연극, 뮤지컬, 이머시브, 전통, 전시, 융복합 등 독특한 세계관을 전개하는 부산의 청년 공연예술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Icontact is a youth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in Busan that develops unique worldviews through theater, musicals, and exhibitions based on two main creative triggers: resistance and zeitgeist mindsets.

작품소개

달빛 아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진다는 전설의 '월지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러던 편지 한 통이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네 남녀의 마음은 뒤엉키기 시작한다.

ABOUT THE WORK

WOLJIMUN (The Moon's Kiss) is a fast-paced romantic comedy inspired by the legend of a bridge where two hearts are said to become connected when they reveal their true feelings under the moonlight.

출연진 CAST 윤채원(Chaewon Yoon), 박문현(Moonhyun Park), 최선희(Sunhee Choi), 손창민(Changmin Son), 안영현(Younghyun Ahn)
제작진 CREDITS 프로듀서(Producer)-양승민(Pacino Yang), 최지혜(Jihye Choe) 연출(Director)-박성준(Sungjun Park) 작가(Writer)-김수진(Sujin Kim) 음악감독(Music Director)-박동재(Dongjae Park)

@icontact_kr

평범한 사람들, 특별한 이야기 Ordinary People, Extraordinary Stories

권눈썹 Knoonssup



10.06.(Tue.) 17:55 20min.
해운대문화회관 야외광장
Haeundae Cultural Center Outdoor Plaza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권눈썹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이다. 우리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 먼발치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든다.

ABOUT THE GROUP/COMPANY

Knoonssup is a Busan-based singer-songwriter. She makes music about the people who pass by unnoticed in our everyday lives, as if sending paper airplanes from a distance toward them.

작품소개

이번 무대에서 권눈썹은 쿠바 전통 현악기 트레스 연주자 박곤잘과 함께한다. 다이내믹한 어쿠스틱 기타 리듬에 트레스의 독특한 음색이 더해져, 익숙한 이야기를 낯선 풍경으로 들려준다.

ABOUT THE WORK

A collaboration between Knoonssup and Gonzal Park on the tres, a traditional Cuban string instrument. Woven into acoustic guitar, the tres adds vibrant tones and rhythms, opening unexpected musical landscapes.

출연진 CAST 보컬(vocal) / 기타(guitar)-권눈썹(Knoonssup) 트레스(tres)-박곤잘(Gonzal Park)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권눈썹(Knoonssup)

@knoonssup

@knoonssup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 도심을 무대로 펼쳐지는 수준 높은
거리예술작품 공연
Street art performances staged across
the heart of Busan

STREET

댄싱 그래피티 Dancing Graffiti

반다르트 프로덕션 BANDART Productions



25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7세 이상
Ages 7+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헝가리 Hungary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헝가리의 비주얼 댄스 시어터 단체로, 라이브 애니메이션과 무용을 결합한 공연을 선보인다. 6회 수상 경력과 함께 4개 대륙, 100개 이상의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Hungarian visual dance theatre company creating live animation and dance performances for private and public spaces. With 6 awards, its works have been presented at 100+ festivals across 4 continents.

작품소개

이 작품은 라이브 디지털 드로잉과 무용을 결합해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탐구한다. 한 여성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유쾌한 움직임과 애니메이션, 그래피티를 통해 입체적으로 담아낸다.

ABOUT THE WORK

<Dancing Graffiti> combines live digital drawing and dance to explore personal and social boundaries. A woman's journey from childhood to adulthood unfolds through playful movement, animation and graffiti.

출연진 CAST 카탈린 령겔(Katalin Lengyel), 서볼치 토트제트(Szabolcs Tóth-Zs)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카탈린 령겔(Katalin Lengyel)
라이브 드로잉 / 프로그래밍 / 음악(Live Drawing / Programming / Music)-서볼치 토트제트(Szabolcs Tóth-Zs)

@bandartproductions

음악하는 식물들 The Musical Plants

플레이어블 스트리트 Playable Streets



300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전체관람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호주 Australi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연극 연출가, 작곡가, 엔지니어, 비주얼 아티스트, 인터랙션 디자이너가 모인 예술 단체다. 기술과 디자인, 드라마투르기, 사운드로 사람들이 연결되는 공간을 조성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n arts company of theatre makers, composers, engineers, visual artists and interaction designers, using technology, design, dramaturgy and sound to build environments where people connect.

작품소개

인체의 전기를 감지해 살아 있는 식물을 악기로 전환하는 작품이다. 잎을 터치해 소리의 질감을 조절하며 음악과 자연,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간을 선사한다.

ABOUT THE WORK

The work turns live plants into instruments by sensing the electrical charge in our bodies. Touch a leaf to control sonic textures, creating a space where music, nature and people connect.

출연진 CAST 글렌 월튼(Glen Walton), 발레리아 마르케다(Valeria Marqueda)

제작진 CREDITS 크리에이티브 퍼실리테이터(Creative Facilitator)-글렌 월튼(Glen Walton), 발레리아 마르케다(Valeria Marqueda)

@playablestreets
www.playablestreets.com

디아볼로 페인팅 Diabolo Painting

우 하오종 Wu Haw-Jong



25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전체관람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만 Taiw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단체소개

2016 도쿄 국제 디아볼로 챔피언십 우승자이자 2025 세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대만 아티스트이다. 9개국 축제 투어를 통해 독창적인 디아볼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Taiwanese diabolo artist and the 2016 Tokyo International Diabolo Championship winner. He toured nine countries and served as a judge at the World Diabolo Contest in 2025.

작품소개

디아볼로를 붓 삼아 무대 위에서 실시간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라이브 퍼포먼스. 정교한 기술로 물감을 묻힌 디아볼로의 궤적을 그려내며 독창적인 시각 예술을 선보인다.

ABOUT THE WORK

Diabolo Painting turns the diabolo into a paintbrush. Using precise technique, the performer traces the paint-loaded toy across a canvas, creating a finished artwork live onstage.

출연진 CAST 우 하오종(Wu Haw-Jong)

@wuhow613
https://portaly.cc/wuhow613

포켓 저글링 Pocket Juggling

우로스 마롤트 Uroš Marolt



30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전체관람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슬로베니아 Sloveni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단체소개

우로스 마롤트는 '언더트리'로 활동하는 슬로베니아의 저글러이자 거리 예술가이다. 아나 몽로 극장을 졸업한 뒤 슬로베니아 최초의 현대 서커스 텐트 '미션 텐트' 멤버로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Uroš Marolt is a Slovenian juggler and street performer known as Undertree. A graduate of Ana Monro Theatre, he is part of Mission Tent, Slovenia's first contemporary circus tent, and has toured globally.

작품소개

지나가는 이들의 주머니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공 5개와 주머니 7개, 재치 있는 손짓이 펼쳐는 정교한 저글링이 사소한 일상을 유쾌하고 생생한 시각 코미디로 탈바꿈시킨다.

ABOUT THE WORK

What hides in the pockets of passers-by? A virtuosic symphony of 5 balls, 7 pockets and 2 or 3 hands reveals it all. Pocket Juggling turns everyday objects and small daily habits into visual comedy.

출연진 CAST 우로스 마롤트(Uroš Marolt)

제작진 CREDITS 연출 / 극본(Director / Writer)-우로스 마롤트(Uroš Marolt)

@undertree.org
www.undertree.org

모바일 MOBILE

서커스 델리리오 CIRCO DELIRIO



4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브라질 Brazil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단체소개

2003년 설립된 시아 서커스 델리리오는 전통과 현대 서커스를 유쾌하게 결합하는 수상 경력의 극단이다. 정교한 신체 코미디와 관객 참여를 더해 독창적이고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03, Cia CIRCO DELIRIO is an award-winning circus and theater company blending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circus with humor, physical comedy and audience participation.

작품소개

창립 20주년 기념작 <모바일>은 현대 서커스와 코미디, 신체극으로 인간의 이주와 이동성을 다룬다. 탁월한 균형과 오브제 조작 기술을 바탕으로 익숙한 무대 공간을 새롭게 탈바꿈시킨다.

ABOUT THE WORK

<MOBILE>, created for the company's 20th anniversary, explores human migration and mobility through contemporary circus, comedy and physical theater, transforming space through balance and manipulation.

출연진 CAST 에스테반 헤츠(Esteban Hetsch), 마리아 드루크(Maria Druck), 타시오 폴리(Tassio Folli)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에스테반 헤츠(Esteban Hetsch)
프로듀서(Producer)-마리아 드루크(Maria Druck)

@ciacircodelirio

더 넥스트 챕터 : 브레이킹의 유산은 계속된다 THE NEXT CHAPTER : The Legacy Of Breaking Continues 키즈 인투 더 딥 KIDZ INTO THE DEEP



15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무용 Dance | 중국 Chin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6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6 / Staff 2)

단체소개

2022년 김송일(MECCA) 대표가 창립한 KIDZ INTO THE DEEP은 SOCOOL BBOYZ의 키즈 프로젝트 팀이다. 탄탄한 기본기와 테크닉으로 한-중-일 등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인 미래형 브레이킹 크루다.

ABOUT THE GROUP/COMPANY

Founded in 2022 by Songil Kim (MECCA), KIDZ INTO THE DEEP is SOCOOL BBOYZ's youth team. With solid fundamentals and dynamic technique, this rising breaking crew shines across international stages in Korea, China, and Japan.

작품소개

<THE NEXT CHAPTER>는 브레이킹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이야기다. 지나간 유산이 아닌, 지금도 살아 숨 쉬는 브레이킹의 미래를 보여준다.

ABOUT THE WORK

<THE NEXT CHAPTER> shows children inheriting the history and spirit of breaking, writing a new story with their own style. It proves breaking is not a bygone legacy, but a living future.

출연진 CAST 루이스 셴(LOUIS SHAN), 칩 제트(CHIC_Z), 다이내믹 에이(DYNAMIC-A), 엠제이 락(MJ.ROCK), 미키(MIQI), 유니크(UNIQU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송일(MECCA) 코치매니저(Coach & Manager)-최현욱(CHOI)

@socolbboyz

플레프! PLAF!

줄리아 Julia



4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연극 Theater | 캐나다 Canad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단체소개

2017년부터 시작된 몬트리올 대표 거리예술 축제 'FAR'의 에이전시다. 2018년 퀘벡 서커스 학교를 졸업한 서커스 아티스트 줄리아 페롱(Julia Perron)이 참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booking agency for Festival des arts de ruelle (FAR), Montreal's leading street arts festival since 2017. Circus artist Julia Perron, a 2018 École de cirque de Québec graduate, is featured.

작품소개

<PLAF!>는 1950~70년대의 당찬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은 퀘벡 아티스트 줄리아 페롱의 비언어 거리 서커스 공연이다. 훌라후프, 물구나무 균형 잡기, 바닥 아크로바틱, 저먼 휠 연출을 선보인다.

ABOUT THE WORK

<PLAF!> is a wordless street circus show by Quebec artist Julia Perron, inspired by the bold women of the 1950s-70s and featuring hula hoop, hand balancing, floor acrobatics and German wheel.

출연진 CAST 줄리아 페롱라플람(Julia Perron-Laflamme)

제작진 CREDITS 부킹 에이전트(Booking Agent)-레아 필립(Léa Philippe)

@juliaplaf
https://www.juliaperron.net/

카툰!! Cartooooon!! Street Ver.

위티 룩 Witty Look



4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연극 Theater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단체소개

전(前) 외발자전거 세계 챔피언 DAIKI와 클라운 CHEEKY가 선보이는 세계 유일의 외발자전거 비주얼 코미디 서커스 듀오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duo featuring former Unicycle World Champion DAIKI and clown, performer, and artistic director CHEEKY, presenting the world's only unicycle-centric visual comedy circus.

작품소개

빠른 전개와 강렬한 에너지, 관객과의 소통이 돋보이는 신체 서커스 작품이다. 언어를 최소화한 유머 속에서 두 캐릭터가 진정한 유대감을 쌓아간다.

ABOUT THE WORK

A fast-paced, high-energy, physical, and highly interactive circus experience. With minimal spoken language and humor, two characters gradually build a genuine connection.

출연진 CAST 다이키(Daiki), 치하루(Chiharu)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치하루(Chiharu)

@wittylook_circus
http://wittylook.com

퍼포머 쇼!의 쇼

Performer SYO!'s show

퍼포머 쇼! Performer SYO!



4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단체소개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저글링·아크로바틱 묘기의 대가. 전 세계의 다양한 축제에서 놀라운 기술과 화려한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아 온 일본 대표 퍼포머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Master of so many tricks you will be amazed! With over 15 years of experience, Performer SYO! has captivated audiences at festivals around the world.

작품소개

일본 최고의 퍼포머가 선보이는 하이템포 쇼. 놀라운 저글링과 다이내믹한 아크로바틱이 쉴 새 없이 펼쳐지며 시작부터 끝까지 관객의 숨을 죽이게 만든다.

ABOUT THE WORK

Japan's best performer brings his high-quality, high-tempo show packed with mind-blowing juggling and dynamic acrobatics! Breathtaking from start to finish!

출연진 CAST 쇼 타나카(Sho Tanaka)

IG @performersyo
www.performersyo.com

벤치

Bench

제로코 ZEROKO



4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연극 Theater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제로코는 마임과 클라운 기법 바탕으로 정교함과 즉흥성을 결합하여 유쾌한 공연을 만드는 신체 코미디 듀오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ZEROKO is a physical comedy duo that produce playful performances by combining elements of exquisiteness and improvisation based on clowning techniques used by mime artists and clowns.

작품소개

<벤치>는 길모퉁이 벤치를 배경으로, 대사 없이 이웃과의 만남과 사건을 통해 이야기가 펼쳐지는 비언어 공연이다.

ABOUT THE WORK

Set on a bench at a street corner, the performance unfolds without dialogue, through events and encounters with those nearby. From these fleeting interactions, a story is born.

출연진 CAST 카도야 마사시(Kadoya Masashi), 하마구치 케이스케(Hamaguchi Keisuke), 나카무라 히로후미(Nakamura Hirofumi)

제작진 CREDITS 극본 / 연출(Writing / Direction)-카도야 마사시(Kadoya Masashi), 하마구치 케이스케(Hamaguchi Keisuke)
의상 디자인(Costume Designer)-나카하라 사치코(Sachiko Nakahara)
음악(Music)-나카무라 히로후미(Nakamura Hirofumi) 소품(Props)-조즈카 유리카(Jozuka Yurika)

IG @zeroko_jp
https://www.zeroko.net

우키후네

Ukifune

우키모 프로젝트 UKIMO Project



3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일본 Japan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3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3 / Staff 0)

단체소개

카가와 출신 아티스트들이 씨어 휠, 깃발, 아지 석재로 신체·오브제·환경의 연결을 탐구하는 2025년 설립된 현대 서커스 단체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ontemporary circus collective founded in 2025 by artists from Kagawa, using Cyr wheels, large flags, and Aji stone to create works that connect the body, objects, and environment.

작품소개

쇠고리인 씨어 휠이 부드러운 원을 그리고, 대형 깃발이 바람에 흔들린다. 무대 위 아지 석재는 관객의 마음속에 산과 바다, 시간의 기억을 깨운다.

ABOUT THE WORK

A Cyr wheel, a ring of steel, traces a gentle circle. A great flag sways in the wind. An Aji stone rests onstage, awakening memories of mountains, sea, and time within those who watch.

출연진 CAST 다니구치 카이(Kai Taniguchi), 마후(Mafu), 노세야마 미즈키(Mizuki Noseyama)

제작진 CREDITS 연출 / 콘셉트(Director / Concept)-다니구치 카이(Kai Taniguchi), 마후(Mafu), 노세야마 미즈키(Mizuki Noseyama)

IG @ukimoproject

서커스 게임즈

Circus Games

서커스 디 랩 Circus.D.Lab



3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서커스 디 랩은 기존의 틀을 넘어 오브제를 탐구하고 새로운 장면을 발굴하며, 동시대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을 창작하는 서커스 크루이다.

ABOUT THE GROUP/COMPANY

Circus.D.Lab is a circus collective that goes beyond conventional boundaries, discovering new scenes through object research and creation while producing works that resonate with today's audiences.

작품소개

<서커스 게임즈>는 스포츠의 긴장감과 서커스의 희열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동과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류 화합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무대 위에 펼쳐 보인다.

ABOUT THE WORK

<Circus Games> combines the intensity of sport with the excitement of circus, exploring cooperation, respect, and unity through the spirit of competition.

출연진 CAST 이준상(Junsang Lee), 함서울(Seoyul Ha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준상(Junsang Lee), 함서울(Seoyul Ham)

www.circusdlab.com

교감 Gyogam(Access)

포스 FORCE



35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단체소개

FORCE(포스)는 신체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시대와 사람을 연결하는 공연예술단체이다. 공연 창작을 비롯해 축제 기획과 국제교류를 기반으로 동시대의 감각을 담은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 간다.

ABOUT THE GROUP/COMPANY

FORCE is a performing arts company that connects people and the contemporary world through the interplay of the body and technology. It develops new performance languages through global collaboration.

작품소개

<교감>은 물류센터를 배경으로 산업용 로봇암과 서커스를 결합한 로보틱 아트 서커스이다. 인간과 로봇이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 낸다.

ABOUT THE WORK

<Gyogam(Access)> is a robotic art circus set in a logistics center, combining an industrial robotic arm with contemporary circus to explore understanding, connection, and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robots.

출연진 CAST 김선혁(Sunhyuk Kim), 김찬양(Chanyang Kim), 강성주(Sungju Kang)
제작진 CREDITS 예술감독 / 로봇 오퍼레이터(Artistic Director / Robot Operator)-이영호(Youngho Lee)

@force_artech
www.force-artech.com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 El Niño in Suspicious Land

우주마인드프로젝트 Would You Mind Project



4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탈극장 장소맞춤형 공연을 지향하는 토커티브 비주얼 씨어터이다.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향한 질문을 유희적인 언어와 소리, 음악,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ABOUT THE GROUP/COMPANY

Would You Mind Project is a talkative visual theater for site-specific performances. The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ity and society through humorous language, sound, music, and movement.

작품소개

<수상한 나라의 엘니뇨>는 기후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불신과 자책감에 휩싸인 개인의 내면을 시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혼란과 혼돈 속 인간의 모습을 비춘다.

ABOUT THE WORK

A poetic exploration of the chaos and turmoil that sweep through the human psyche, driven by distrust and self-reproach in the age of the climate crisis.

출연진 CAST 김승언(Seungeon Kim), 신문영(Moonyoung Shin)
제작진 CREDITS 작가 / 연출(Writer / Director)-김승언(Seungeon Kim), 신문영(Moonyoung Shin) 음악감독(Music Director)-박소연(Soyeon Park)

@wouldyoumindproject
우주마인드프로젝트 Would You Mind Project

부러진 의자 Broken Chair

극단 아이모멘트 IMOMENT



25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단체소개

아이모멘트는 몸과 사람, 그리고 장소성에 주목하는 창작단체다. 움직임과 오브제를 주요 창작 도구로 삼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공간과 장소에 축적된 다양한 기억을 작품의 소재로 풀어낸다.

ABOUT THE GROUP/COMPANY

IMOMENT is an arts collective centered on the body, people, and place. Working with movement and objects, it embrace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drawing on memories embedded in the environment.

작품소개

<부러진 의자>는 마치 부러진 의자처럼 기댈 곳을 찾는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부러진 의자와 흔들리는 테이블, 공을 활용해 위태로운 두 인물의 관계를 시적인 몸짓으로 그려낸다.

ABOUT THE WORK

Like a broken chair seeking support, this performance portrays lonely people seeking connection. Through movement and play, it explores the fragile bond between two precarious figures and imperfect objects.

출연진 CAST 노제현(Jeahyun Nho), 이예진(Yejin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노제현(Jeahyun Nho) 무대감독(Stage Manager)-강민지(Minji Kang) 프로듀서(Producer)-임현진(Hyun Jin Yim)

@imoment.arts

231의 스케치북 231's Sketch book

231쇼 231show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1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1 / Staff 1)

단체소개

231쇼는 마술과 서커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최근 종이를 매개로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는 공연단체다.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는 실험으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며 새로운 감각과 감동을 선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231show is a performance company rooted in magic and circus arts, currently expanding its artistic scope through paper-based works. Turning imagination into reality, the group offers fresh sensations.

작품소개

<231의 스케치북>은 종이라는 일상적 소재에 창의적 발상을 더해 상상을 무대 위 현실로 시각화한 독창적인 공연으로, 옴니버스 형식의 기발한 에피소드로 관객과 유쾌하게 소통한다.

ABOUT THE WORK

This unique performance gives new life to the everyday material of paper, turning imagination into reality on stage. Playful omnibus episodes create a lively dialogue with the audience.

출연진 CAST 이석원(Seokwon Lee)
제작진 CREDITS 세트디자인(Set Design)-박유빈(Youbin Park)

www.231show.com

찰칵 찰칵 Click Click

루모스 씨어터 Lumos Theatre



3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단체소개

루모스 씨어터는 마술사 남편과 배우 아내가 함께하는 공연단체다. 일상의 이야기를 영화 같은 무대로 풀어내며, 연기와 움직임, 마술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관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Lumos Theatre composed of a magician husband and actress wife, transforms everyday stories into cinematic performances. Blending acting, movement, and magic, the duo creates a unique experience for audiences.

작품소개

<찰칵 찰칵>은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가족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작품으로, 낡은 카메라와 오래된 물건들이 불러오는 영동한 사건 속에서 가족사진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ABOUT THE WORK

Reunited after a long time, a family gathers for a portrait, but an old camera and various objects spark a series of mishaps. Will they succeed in capturing their family photo?

출연진 CAST 신우주(Woojoo Shin), 이다연(Dayeon Lee)

@Lumos_theatre

우산 아래 Under The Umbrella

씨레온 C.LEON



3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1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1 / Staff 2)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1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1 / Staff 2)

단체소개

씨레온은 서커스적 움직임을 기반으로 직관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들을 다각적이고 반전 있는 시선으로 재해석해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예술단체다.

ABOUT THE GROUP/COMPANY

C.LEON is a contemporary circus company that connects with audiences through circus-based movement and intuitive artistic expression. It offers fresh perspectives and new ways of experiencing everyday life.

작품소개

<우산아래>는 관객과 함께 소리를 수집해 음악을 만들고, 작은 우산을 거대한 우산으로 확장해 가는 참여형 현대서커스로, 차이니즈 폴 퍼포먼스를 통해 영상적 몰입과 공동체의 감각을 함께 경험하게 한다.

ABOUT THE WORK

<Under The Umbrella> is an interactive circus performance where the crew and audiences sample sounds and create music together. Through Chinese pole performance, the work fosters connection and immersion.

출연진 CAST 최재영(Jaeyoung Choi)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최재영(Jaeyoung Choi)
무대감독(Stage Manager)-권해원(Haewon Kwon) 크루(Crew)-권혁재(Hyuckjae Kwon)

@c.leon.official

알안 Egg ALAN

스튜디오 감탄호 Studio Gamtanho



30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3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3 / Staff 1)

단체소개

스튜디오 감탄호는 거리예술, 인형극, 영화, 참여형 예술을 기반으로 관객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창작단체다. 일상 속 감탄의 순간을 발견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reative collective that works with audiences to create narratives through street arts, puppetry, film, and participatory art. It finds wonder in everyday life and presents work internationally.

작품소개

<알안>은 사라진 동지를 찾아 거리로 나온 알들의 소동을 그린 참여형 탈인형극으로, 동지를 잃은 알안이 관객과 함께 새로운 동지를 만들며 그 안에서 새로운 탄생의 순간을 완성해 간다.

ABOUT THE WORK

A participatory masked puppet performance about a group of lost eggs who work with the audience to build a new nest. Together, they share a touching moment of evolution and birth.

출연진 CAST 이민규(Minkyu Lee), 양선아(Suna Yang), 김지홍(Jihong Kim)

제작진 CREDITS 연출 / 기획(Director / Promotor)-이민규(Minkyu Lee)
프로듀서 / 음향(Producer / Sound)-고유림(Yurim Ko)

@gamtanho

진화 Evolution: Parade of Life

허경미무용단-무무 Dance Company-MUMU



24min.
전체관람
All Ages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2명(출연자 9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12 (Performers 9 / Staff 3)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7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7 / Staff 1)

단체소개

허경미무용단-무무는 한국무용의 전통적 감각을 동시대 언어로 확장하며, 장소와 사람을 연결하는 신체 언어로 삶과 공동체를 탐구하는 창작예술단체다. 공연장과 거리에서 새로운 예술의 만남을 만든다.

ABOUT THE GROUP/COMPANY

Dance Company-MUMU reinterprets Korean dance through a contemporary artistic approach, connecting people to places while exploring life and community. The company fosters engagement in theaters and on streets.

작품소개

<진화>는 '멈추지 않는 삶의 행진'을 그린 작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실과 단절에도 나아가는 인간의 여정을 담아낸다. 방울을 착용한 발걸음은 의식의 진화와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다.

ABOUT THE WORK

This work portrays "the unending parade of life" humanity's drive to move forward despite loss and disruption. The dancers' bell-adorned footsteps symbolize evolving consciousness and human resilience.

출연진 CAST 허경미(Kyungmi Her), 정기정(Kijung Jung), 박은영(Eunyoung Park), 함수경(Sukyung Ham), 방영미(Youngmee Bang), 강경희(Kyunghee Kang), 김민찬(Minchan Kim), 박은지(Eunji Park), 정선우(Seonwoo Jung), 김하은(Haeun Kim), 황세민(Semin Hwang)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y)-허경미(Kyungmi Her) 무대감독(Stage Manager)-홍석진(Sukjin Hong) 음향오퍼레이터(Sound Operator)-박지애(Jiae Park)

dance.mumu

보라매와 아이

Boramae and the Child

극단 봄 Theater Bom



4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연극 Theater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4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4 / Staff 3)

투어인원 총 7명(출연자 4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7 (Performers 4 / Staff 3)

단체소개

극단 봄은 대형 인형극을 기반으로 미술, 음악, 멀티미디어를 융합한 시각극을 선보이는 공연단체다. 거대하면서도 섬세한 퍼펫으로 전 세대의 오감을 자극하며, 따뜻한 위로와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Theater Bom is a visual theater company using large-scale puppetry to blend art, music, and multimedia. Through giant yet delicate puppets, the company creates engaging and unforgettable experiences.

작품소개

〈보라매와 아이〉는 시민들이 원정대가 되어 엄마 새를 찾는 참여형 공연으로, 환상적인 음악과 거대 퍼펫의 불빛 아래 관객이 함께 지혜를 모으며 공동체의 연대와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ABOUT THE WORK

An interactive performance where audiences join an expedition to find a lost mother bird. With music and glowing giant puppets, audiences share wisdom and discover a message of hope and community.

출연진 CAST 강지성(Jiseong Kang), 김형중(Hyeongjung Kim), 김두영(Dooyoung Kim) **바이올린(Violin)**-박세영(Seyoung Park)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수정(Soojeong Lee)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이병창(Byungchang Lee)
음향감독(Sound Director)-박진열(Jinyeol Park)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루넬 Lunell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투어인원 총 1명(출연자 1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1 (Performers 1 / Staff 0)

단체소개

루넬은 다양한 무대 언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존 퍼포먼스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탐구하는 창작단체다. 공연예술과 비예술 분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장르 창조를 목표로 활동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Lunell is a creative collective that delivers messages through diverse stage languages and innovative forms beyond convention. The group seeks to create new genre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작품소개

〈무대 위에서〉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음악과 함께 상황극을 만들어 가는 즉흥 마임으로, 관객과의 실시간 호흡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유쾌한 무대를 펼쳐낸다.

ABOUT THE WORK

An improvised mime performance that sparks audience interaction by instantly reading passersby's style and behavior, transforming them into spontaneous live street scenes.

출연진 CAST 김영주(Youngju Kim)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김영주(Youngju Kim)

해원 解願

Wish

코드세시 CodeSassy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2명(출연자 2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2 (Performers 2 / Staff 0)

단체소개

코드세시는 서커스를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술적 재료이자 도구로 바라보며, 이를 통해 인간의 감각과 본질을 탐구하는 창작단체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지향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CodeSassy sees circus as a medium to reveal human instincts. Through circus, the company explores the senses and essence of existence, creating works that invite audiences to experience, connect, and empathize.

작품소개

〈해원(解願)〉은 한국 전통 샤머니즘인 '굿'과 서커스의 기예를 융합한 작품으로, 바이올린과 기타, 루프스테이션을 활용한 라이브 연주와 서커스, 라이브페인팅, 무용으로 우리의 소망을 함께 기원한다.

ABOUT THE WORK

A contemporary circus performance inspired by the Korean shamanic ritual 'Gut', where prayers are expressed through performance. Blending circus, live painting, music, and dance, a ritual of wishing is shared.

출연진 CAST 권해원(Haewon Kwon), 윤현로(Hyunro Yoon)

제작진 CREDITS 연출 / 예술감독(Director / Artistic Director)-권해원(Haewon Kwon) **프로듀서(Producer)**-문수빈(Subin Moon)

기사들

Delivery Knights

프로젝트 통 Project TOnG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2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2 / Staff 4)

투어인원 총 4명(출연자 2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4 (Performers 2 / Staff 2)

단체소개

프로젝트 통은 신체와 일상에서 마주하는 오브제를 통해 동시대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작단체다. 거리와 극장을 넘나들며 익숙한 일상을 낯설게 바라보고, 새로운 시선으로 마주하게 하는 공연을 창작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reative collective that reinterprets contemporary narratives through the body and everyday objects. Moving between street and theater, the company invites audiences to rediscover the ordinary.

작품소개

〈기사들〉은 유통혁명의 시대, 도시민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리를 누비는 기사(Knights)들의 '택배서커스 쇼'를 통해 소비 욕망과 노동의 관계를 탐구하는 오브제극이자 우화 형식의 공연이다.

ABOUT THE WORK

An object-theatre performance and contemporary fable that humorously explores consumerism and the labor market through "courier circus," where knights roam the city as delivery workers.

출연진 CAST 김광호(Kwangho Kim), 임국(Kuk Lim)

제작진 CREDITS 무대디자인(Stage Design)-이민영(Minyoung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공하성(Hasung Kong) **음향디자인(Sound Design)**-김시율(Siyul Kim) **연출(Director)**-유영봉(Youngbong You)

興(흥), 블루스 Heung, Blues

위오댄스프로젝트 W.I.O Dance project



10min.
전체관람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5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5 / Staff 0)

단체소개

W.I.O는 'We, I, One'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인의 개성과 공동체의 조화를 지향하는 한국무용단체다. 전통과 동시대 감각을 더한 창작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탐구하며 활동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W.I.O, "We, I, One," is a Korean dance company founded on the belief that individual identity and the collective complement one another. The company studies and creates works that balance tradition and innovation.

작품소개

〈興(흥), 블루스〉는 한국적인 장단과 호흡을 바탕으로 블루스의 정서와 리듬을 더한 창작 작품으로, 전통 장단의 흐름 위에 느리고 묵직한 감정을 담아 익숙한 움직임을 새로운 결로 확장한다.

ABOUT THE WORK

<Heung, Blues> is a project blending Korean traditional rhythms with the slow, heavy sounds of blues. It brings traditional and contemporary sensibilities together through a unique rhythmic fusion.

출연진 CAST 박지현(Jihyeon Park), 이지수(Jisoo Lee), 이혜숨(Hyesom Lee), 안지혜(Jihae An), 김지영(Jiyoung Kim)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er)-박지현 (Jihyeon Park)
작곡(Composer)-김기훈 (Kihoon Kim)

광장한 춤 GWANGJANGHAN CHUM

모든 컴퍼니 MODEUN COMPANY



23min.
전체관람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2명(출연자 8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12 (Performers 8 / Staff 4)

투어인원 총 10명(출연자 8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0 (Performers 8 / Staff 2)

단체소개

모든 컴퍼니는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전통과 스포츠, 기술을 동시대적 움직임으로 융합해 새로운 공연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공연예술단체다. 무대와 거리를 넘나들며 다양한 창작 작업을 선보인다.

ABOUT THE GROUP/COMPANY

MODEUN COMPANY is a contemporary dance company that creates new performance languages by reinterpreting tradition, sports, and technology for both private and public stages.

작품소개

〈광장한 춤〉은 구스타브 홀스트의 클래식 〈행성〉에서 영감을 받아 서로 다른 몸들이 각자의 궤적을 그리며 광장을 하나의 우주로 펼쳐내는 현대무용 거리예술 작품이다.

ABOUT THE WORK

Inspired by Gustav Holst's The Planets, this outdoor contemporary dance transforms a public square into a cosmic landscape, where bodies trace their own orbits through infinite movement.

출연진 CAST 강예람(Yeram Kang), 김현진(Hyunjin Kim), 변수민(Sumin Byun), 이정빈(Jeongbin Lee), 이채연(Chaeyeon Lee), 정강한(Kanghan Jeong), 정민우(Minwoo Jeong), 천왕록(Wangrok Cheon)

제작진 CREDITS 안무(Choreography)-김모든(Modeun Kim)
음악(Music)-최혜원(Hyewon Choi) 의상(Costume Design)-최인숙(Insook Choi) 프로듀서(Producer)-정규연(Gyuyeon Jeong)

@modeun_company

신호수VS신호수 The Signalman

걸작들 Masterpiece-s



40min.
전체관람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투어인원 총 5명(출연자 4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5 (Performers 4 / Staff 1)

단체소개

걸작들은 몸과 대사로 공간을 채우며, 거리와 공공공간의 장소성을 무대로 전환하는 퍼포먼스 그룹이다. 리듬감 있는 말과 아크로바틱, 핸드 투 핸드 서커스를 결합한 움직임으로 거리와 극장을 넘나든다.

ABOUT THE GROUP/COMPANY

A performance collective that brings bodies and dialogue into public spaces, turning them into stages. Through rhythmic speech, acrobatics, and hand-to-hand circus, they perform across streets and theaters.

작품소개

〈신호수VS신호수〉는 신호수라는 노동 아래 가려진 '사람'을 조명하는 이동형 거리극으로, 몸과 대사, 아크로바틱을 통해 노동과 대체의 불안, 존재의 가치를 블랙코미디로 풀어낸다.

ABOUT THE WORK

An itinerant street theatre performance portraying the lives of traffic controllers. Through movement, dialogue, and acrobatics, it explores labor, job insecurity, and human value through black comedy.

출연진 CAST 권혁재(Hyukjae Kwon), 송윤아(Yoona Song), 이창균(Changkyun Lee), 윤예은(Yeeyun Yun)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윤예은(Yeeyun Yun)
안무(Choreographer)-김민주(Minju Kim)

@we_are_masterpieces

뉴 웨이브 New Wave

시도 XIIDO



30min.
전체관람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음악 Music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7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7 / Staff 2)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7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7 / Staff 2)

단체소개

시도는 동서양의 관악기와 타악기가 어우러진 국악브라스 밴드로, 웅장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국악의 새로운 매력과 즐거움을 전하는 공연예술단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Korean brass band that blends Eastern and Western wind and percussion instruments, bringing the vibrant energy and appeal of Korean traditional music through powerful sound and dynamic performances.

작품소개

〈뉴 웨이브〉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 브라스밴드 공연으로, 부산의 거리에서 웅장한 사운드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연결하며 새로운 거리문화의 물결, NEW WAVE를 만들어 간다.

ABOUT THE WORK

XIIDO brings a 'new wave' to the streets of Busan, blending traditional and modern brass sounds with powerful, dynamic performances that connect people through music.

출연진 CAST 트롬본(Trombone)-김민승(Minseung Kim) 장구(Janggu)-최은영(Eunyoung Choi) 수자폰(Sousaphone)-고민서(Minseo Ko) 태평소(Taepyeongso)-김리수(Lisoo Kim) 테너 색소폰(Tenor Saxophone)-손웅찬(Woongchan Son) 디제이(DJ)-루벤(Ruven) 뽕과리(Kkwaenggari)-써니(Sunny)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박원진(Wonjin Park) 음악감독(Music Director)-추명호(Myungho Chu)

@brassband_xiido

연희하는 몸

Performing Bodies

연희컴퍼니 유희 UHEE Company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9명(출연자 5명 / 스태프 4명)
Participants Total 9 (Performers 5 / Staff 4)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단체소개

연희컴퍼니 유희는 전통 연희의 신명과 에너지를 동시대의 삶에 있는 감각으로 풀어내며, 관객과 함께 만드는 흥으로 전통을 가장 새롭고 신선한 무대로 전환하는 창작단체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reative collective that blends the spirit of Korean yeonhee (traditional performing arts) with contemporary sensibilities to create engaging and refreshing performances.

작품소개

〈연희하는 몸〉은 일상을 저글링하고 줄타기하듯 살아가는 도시의 몸들을 전통연희의 리듬으로 깨우는 참여형 거리예술 작품이다. 관객은 상모처럼 이어지는 도시의 궤적 속에서 스스로 연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ABOUT THE WORK

A participatory street performance that awakens modern bodies with the rhythm of yeonhee. Within the city's orbits that spin like sangmo, audiences discover that they have always been a part of yeonhee.

출연진 CAST 성유경(Yugyeong Seong), 조의찬(Euichan Cho), 이민애(Minae Lee), 김성준(SungJun Kim), 윤소현(Sohyeon Yun)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임영호(Youngho Lim)
프로듀서(Producer)-이란희(Rhanhee Lee)
음악(Music)-신원영(Wonyoung Shin)
무대감독(Stage Manager)-안희경(Huigyeong An)

@uhee.company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Re-navigating the path.

리타이틀 LETITLE



35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7명(출연자 6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7 (Performers 6 / Staff 1)

투어인원 총 9명(출연자 7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9 (Performers 7 / Staff 2)

단체소개

거리무용 예술단체 리타이틀은 움직임으로 일상의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는 상상력을 전한다. 스트릿댄스, 현대무용, 파쿠르를 바탕으로 장르와 공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무대를 만든다.

ABOUT THE GROUP/COMPANY

A street dance arts company that finds the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Through parkour, street and contemporary dance, it dismantles boundaries between genres and space, creating unique stage experiences.

작품소개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는 사회와 어른들이 정해준 보편적인 길에서 벗어나, 위태롭지만 나다운 경로를 선택한 청년들의 흔들림과 대담한 여정을 담은 거리무용극이다.

ABOUT THE WORK

A street dance performance uncovering the daring journey of young adults who reject conventional paths set by society and adults to forge their own. It shows the courage of choosing oneself amid uncertainty.

출연진 CAST 양석진(Seokjin Yang), 권주혁(Juhyuk Kwon), 이재명(Jaemyeong Lee) 보컬 / 기타(Vocal / Guitar)-이현호(Hyunho Lee) 베이스(Bass)-권현성(Hyeonsung Kwon) 드럼(Drum)-이진성(Jinsung Le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양석진(Seokjin Yang) 조연출(Assistant director)-권주혁(Juhyuk Kwon) 안무(Choreographer)-양석진(Seokjin Yang), 권주혁(Juhyuk Kwon), 이재명(Jaemyeong Lee) 프로듀서(Producer)-강유진(Yoojin Kang) 음악(Music)-파스텔 플레이버(Pastel Flavor)

@company.letitle
www.letitle.kr

꺾렁하게, 춤을

Dance With Swagger

에이런크루 A-Run Crew



3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Participant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투어인원 총 8명(출연자 5명 / 스태프 3명)
Touring Members Total 8 (Performers 5 / Staff 3)

단체소개

에이런크루는 브레이킹의 즉흥성과 에너지를 공연예술의 언어로 재구성하고, 신체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움직임과 장면을 창작하는 공연예술 단체다.

ABOUT THE GROUP/COMPANY

A-Run Crew is a performing arts company that reinterprets the improvisational spirit and energy of breaking, forging new movement languages and scenes through the body as a medium.

작품소개

〈꺾렁하게, 춤을〉은 '크루(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몸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관객 참여형 거리예술이다. 함께 일탈하고 뛰고 춤추며 두려움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축제를 만든다.

ABOUT THE WORK

An interactive performance where spectators join the "crew" — a temporary community revealing physical desires through honest movement. It becomes a festival of dance, overcoming fear and acknowledging one another.

출연진 CAST 서진호(Jinho Seu), 양재원(Jaewon Yang), 이가형(Ga Hyoung Lee), 장원우(Wonwoo Chang), 황선진(Sunjin Hwang)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윤종연(Jongyeoun Yoon)
드라마투르그(Dramaturg)-황혜신(Hyeshin Hwang)
프로듀서(Producer)-신혜원(Hyewon Shin)

@arun.crew

비버마을

Beaver Village

나무타는 목수들
Carpenters walking on a tree-top



300min.
전체관람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Participant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투어인원 총 6명(출연자 6명 / 스태프 0명)
Touring Members Total 6 (Performers 6 / Staff 0)

단체소개

나무타는 목수들은 예술가·목수·아보리스트가 모여 나무와 예술적 상상력으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본다. 공간을 탐구하고 창작의 경험을 나누며, 나무를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과 가능성을 전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A collective of artists, carpenters, and arborists that invigorates daily life with wood and artistic imagination. Exploring space and sharing creative experiences, they help us see the world through a new lens.

작품소개

〈비버마을〉은 비버가 나뭇가지와 돌로 삶의 터전을 짓듯, 자연의 재료를 차곡차곡 쌓아 우리만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거리예술이다. 함께 만들고 나누며 풍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낸다.

ABOUT THE WORK

Just as beavers gather branches and stones to create habitats, participants stack natural materials to build their own lively community. A hands-on, collective experience where nature meets imagination.

출연진 CAST 신재욱(Jaewook Shin), 조아라(Ara Jo), 프로젝트 다리(Project Dari), 심일(II Sim), 편재민(Jaemin Pyeon), 이상형(Sanghyung Lee), 오찬미(Chanmi Oh)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신재욱(Jaewook Shin)
기획(Promoter)-조아라(Ara Jo), 프로젝트 다리(Project Dari)
크루(Crew)-심일(II Sim), 편재민(Jaemin Pyeon), 이상형(Sanghyung Lee), 오찬미(Chanmi Oh)

@namu_carpenters

부산 스트리트 웨이브 : 브레이킹 오리진
<부산의 거리에서 다시 뛰는 K-브레이킹의 심장>
Busan Street Wave: Breaking Origin
주식회사 갬블러크루 GAMBLERZ CREW



40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전체관람
All Ages

무용 Dance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12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2명)
Participants Total 12 (Performers 10 / Staff 2)

투어인원 총 12명(출연자 10명 / 스태프 2명)
Touring Members Total 12 (Performers 10 / Staff 2)

단체소개

주식회사 갬블러크루는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이끌어온 전문예술단체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 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ABOUT THE GROUP/COMPANY

Through street dance and breaking, GAMBLERZ CREW promotes the advancement and popularization of cultural arts while fulfilling the social role of artists by strengthening their artistic capabilities.

작품소개

<부산 스트리트 웨이브 : 브레이킹 오리진>은 1990~2000년대 부산의 스트리트댄스와 브레이킹 문화를 재해석한 K-브레이킹 퍼포먼스다. DJ, 비트박스, 락킹, 브레이킹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ABOUT THE WORK

A K-breaking performance that offer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Busan street dance and breaking culture from the 1990s and 2000s, delivering a dynamic stage combining DJ, beatbox, locking, and breaking.

출연진 CAST 박지훈(Jihoon Park), 홍성식(Sungsik Hong), 성승용(Seungyong Sung), 최동욱(Dongwook Choi), 김응혁(Eunghyeok Kim), 이규진(Gyujin Lee), 임석용(Seokyoung Lim), 박선희(Sunhee Park), 배소망(Somang Bae)

제작진 CREDITS 기획 / 연출(Promotor / Director)-이준학(Junhak Lee) 무대감독(Stage Manager)-고빈희(Binhee Ko)

www.gamblerzcrew.com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
C'est pas là, C'est par là
갈매 Galmae



45mi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전체관람
All Ages

다원 Multidisciplinary Arts |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참가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Participant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투어인원 총 3명(출연자 2명 / 스태프 1명)
Touring Members Total 3 (Performers 2 / Staff 1)

단체소개

갈매는 2017년 창단해 마르세유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공공공간에서 낯선 이들이 '우리'로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관객 참여로 탐구하는 창작단체다. 16개국 50여 도시에서 공연했다.

ABOUT THE GROUP/COMPANY

Based in Marseille and Seoul, Galmae creates improvised, participatory street performances exploring how strangers interact in public spaces. It has performed in 16 countries and 50+ cities.

작품소개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를 통하여>는 돌과 줄을 매개로 서로의 조건이 되는 몸들 사이에서 개인이 흔들리고, 낯선 이들이 '우리'라는 집단으로 모여드는 과정을 탐구하는 참여형 거리예술 작품이다.

ABOUT THE WORK

Inspired by a 2015 Seoul protest, the piece explores how individuals move within a crowd, questioning identity, connection, and what emerges when bodies come together.

출연진 CAST 이주형(Juhyung Lee), 폴린 라베르뉴(Pauline Lavergne)

제작진 CREDITS 연출(Director)-이주형(Juhyung Lee) 조명(Light)-마르틴 비르흘러(Martin Birchler), 올리비에 브뤼(Olivier Brun) 음악(Music)-샤를앙리 데스페뉴(Charles-Henri Despeignes)

@cie.galmae

cie.galmae

www.galmae.org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커넥트 CONNECT

공연예술관계자들이 작품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유통 및 협업 기회를 만들어가는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

Networking programs where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share
productions and information while
exploring opportuniti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and
collaboration

CON NECT

커넥트 일정표 | CONNECT SCHEDULE

네트워킹 Networking			
장소 Venues	10/1(Thu.)	10/2(Fri.)	10/3(Sat.)
동서대학교 컨벤션홀 Dongseo Univ. Convention Hall	리셉션 Reception 17:30~18:30	부스 Booth 1회차 Round 1 10:00~14:00	부스 Booth 1회차 Round 1 10:00~14:00
		저스트 텐미닛 Just 10 Minutes 종합 All Performing Arts 10:00~12:00	저스트 텐미닛 Just 10 Minutes 연극/다원 Theater/Multi.Arts 10:00~12:00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넥스트 토크 Next Talk 10:00~12:00	피칭 Pitching 델리게이트 Delegate 10:00~10:30
			피칭 Pitching 아티스트-무용/음악 Artist-Dance/Music 10:30~12:00
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 Dongseo Univ. Book Cafe Lounge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15:00~17:00		2026 K-Arts 컨설팅 2026 K-Arts Consulting 14:00~ 17:00
해운대구 인근 공간 Haeundae-gu Area	치얼스! Cheers! 21:00~24:00		

장소 Venues	10/4(Sun.)	10/5(Mon.)	10/6(Tue.)
동서대학교 컨벤션홀 Dongseo Univ. Convention Hall	부스 Booth 2회차 Round 2 10:00~14:00	부스 Booth 2회차 Round 2 10:00~14:00	
	저스트 텐미닛 Just 10 Minutes 무용/음악 Dance/Music 10:00~12:00	저스트 텐미닛 Just 10 Minutes 종합 All Performing Arts 10:00~12:00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Dongseo Univ. Minseok Small Theater	피칭 Pitching 델리게이트 Delegate 10:00~10:30	넥스트 토크 Next Talk 10:00~12:00	
	피칭 Pitching 아티스트-연극/다원 Artist-Theater/Multi.Arts 10:30~12:00		
동서대학교 북카페라운지 Dongseo Univ. Book Cafe Lounge			아카데미:커넥트 Academy: Connect 14:00~17:00
서면 인근 공간 Seomyeon Area	치얼스! Cheers! 21:00~24:00		
오아제 부산 OASE Busan			폐막 Closing 20:00~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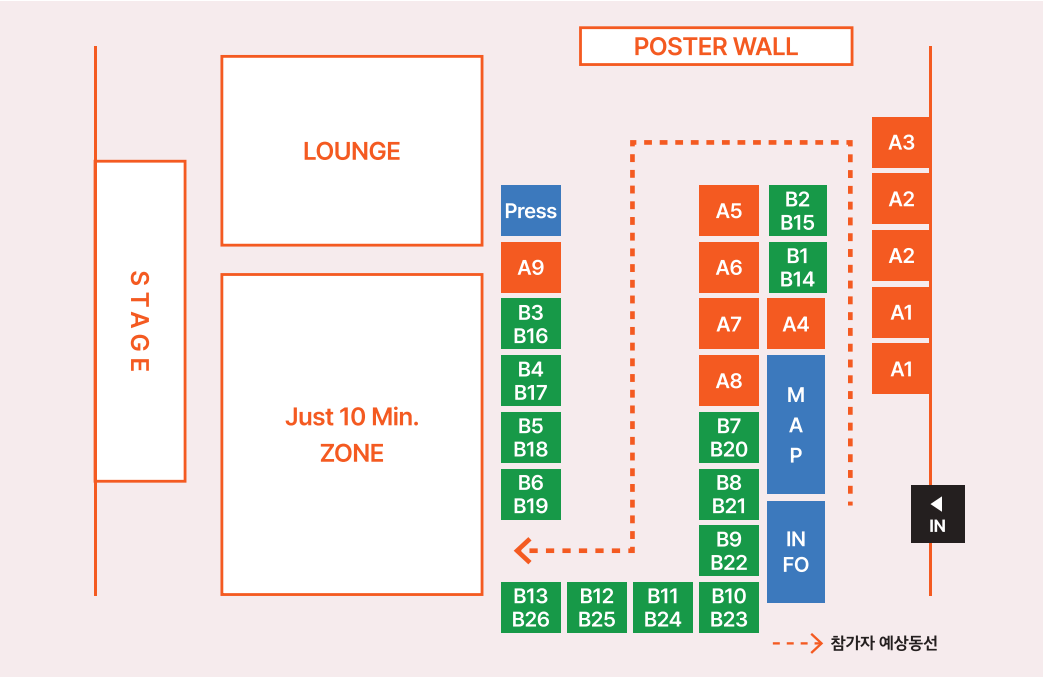
비팜 부스 BPAM Booth

일시	2026.10.02.(금) ~ 10.05.(월)	Dates	2026.10.02.(Fri.) ~ 10.05.(Mon.) 10:00 ~ 14:00
	- 1회차: 2026.10.02.(금) ~ 10.03.(토) 10:00 ~ 14:00		- Round 1: 2026.10.02.(Fri.) ~ 10.03.(Sat.) 10:00 ~ 14: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컨벤션홀	Venue	Convention Hall, B1, Dongseo Univ. Centum Campus
	내용		Content
공연예술단체의 작품 및 공연예술기관의 콘텐츠 홍보, 정보교류 및 협력 기회 제공		Promotion of works by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content from performing arts institutions, and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collaboration	

운영단체 Exhibitors

Date	Booth No.	Organization Name			
10.02.(금) ~ 10.05.(월)	A1	Western Arts Alliance Presents: USA Delegation			
	A2	Québec Delegation			
	A3	소 퍼커션 / Sō Percussion			
	A4	인섹토토로픽스 / Insectotrópics			
	A5	(재)안산문화재단 / Ansan Cultural Foundation			
	A6	(사)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조직위원회 / Busan International Comedy Festival			
	A7	부산청년프린지연합 / Busan Emerging Artists Fringe			
	A8	부산광역시는 공연중 / K Stage Festa - BUSAN			
	A9	마스킷 / MASKIT			
Date	Booth No.	Organization Name	Date	Booth No.	Organization Name
10.02.(금) ~ 10.03.(토)	B1	극단 배다 / Vaeda Theater	10.04.(일) ~ 10.05.(월)	B14	춤선캡 / Chumsuncap
	B2	이민진 / Minjin Lee		B15	흰댄스 / Heen Dance
	B3	극단 코코 / COCO Theatre Company		B16	프로젝트 모임 / Project MOIM
	B4	네이키드블루스 / NAKEDBLUES		B17	BWC댄스컴퍼니 / BWC Dance Company
	B5	아이컨택 / ICONTACT		B18	극단 바문사 / Theater Company BAMUNSA
	B6	넥스트 랩 스테이지-26 / NEXT LAB STAGE-26		B19	그루잡프로덕션 / GRUEJARM PRODUCTIONS
	B7	에이런크루 / A-Run Crew		B20	모든 컴퍼니 / MODEUN COMPANYY
	B8	아이모멘트 / IMOMENT		B21	국악브라스밴드 시도 / XIIIDO
	B9	극단 봄 / Theatre BOM		B22	리타이틀 / LETITLE
	B10	빈빈정: 세상만물 이야기꾼 / BINBINJEONG: Storyteller		B23	컬렉티브 엑스테라토리얼 / Collective Exterritorial
	B11	아라컴퍼니 / Ara Company		B24	극단해풍 - 가면극단탈로 / Theatre Haepung: Mask Theatre Company TAL-LO
	B12	극단 아티 / Theater Company ARTI		B25	모던국악밴드 탈피 / TALPI
	B13	아킴컴퍼니 / AKIMCOMPANY		B26	친친탱고 / CHINCHIN TANGO

배치도 Floor Plan



비팜 넥스트 토크 BPAM Next Talk

일시	2026.10.02.(금) / 10.05.(월) 10:00 ~ 12:00	Dates	2026.10.02.(Fri.) / 10.05.(Mon.) 10:00 ~ 12: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민석소극장	Venue	Minseok Small Theater, B1, Dongseo Univ. Centum Campus
내용	공연예술 생태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발표 및 토론	Content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a variety of issues relating to the ecosystem of performing arts

Date	Topic	
10.02.(금)	공연예술 유통의 패러다임 전환 - 새로운 협력과 그 가능성 Performing arts in motion - Rethinking what moves and what remains	세드릭 들로름 부사르(상브르 누아르 예술감독) Cédric Delorme-Bouchard (Artistic Director, Chambre noire)
		플로라 유(홍콩예술제 총괄 디렉터) Flora Yu (Executive Director, Hong Kong Arts Festival)
		호르디 두란 롤도스(메르세 거리예술축제 예술감독) Jordi Duran Roldós (Artistic Direction, Mercè Arts de Carrer)
		산드라 쿠퍼(H.E.I.N.E. - 뒤셀도르프 국제페스티벌 예술감독) Sandra Küpper (Artistic Director, H.E.I.N.E. - International Festival Düsseldorf)
10.05.(월)	캠퍼스를 넘어, 커뮤니티 속으로 -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잇는 다리 Beyond the Campus, Into the Community - A Bridge to Sustainable Growth for the Performing Arts Ecosystem	토모유키 아라이(요코하마국제공연예술미팅 수석 프로그램 담당관) Tomoyuki Arai (Senior Program Officer, YPAM)
		모데레이터: 김형준(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예술감독) Moderator: Hyungjun Kim (Artistic Director, BPAM)
		윌프리드 솔리(로올라 메리마운트 대학교 무용학과 조교수) Wilfried Souly (Assistant Professor of Dance, Loyola Marymount University)
		천야핑(타이베이 국립예술대학 교수 겸 학장) Chen Ya-Ping (Professor and Dean, 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제시카 머슬화이트(시카고대학교 UChicago Arts 총괄 디렉터) Jessica Musselwhite (Executive Director, UChicago Arts, University of Chicago)
		몰리 클라크(칼 폴리 아트스 디렉터) Molly Clark (Director, Cal Poly Arts)
		모데레이터: 김원명(경성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Moderator: Wonmyung Kim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Kyungsung Univ.)

비팜 피칭 BPAM Pitching

일시	2026.10.03.(토) ~ 10.04.(일) 10:00 ~ 12:00 - 델리게이트: 2026.10.03.(토) ~ 10.04.(일) 10:00 ~ 10:30 - 아티스트: 2026.10.03.(토) ~ 10.04.(일) 10:30 ~ 12:00	Dates	2026.10.03.(Sat.) ~ 10.04.(Sun.) 10:00 ~ 12:00 - Delegates: 2026.10.03.(Sat.) ~ 10.04.(Sun.) 10:00 ~ 10:30 - Artists: 2026.10.03.(Sat.) ~ 10.04.(Sun.) 10:30 ~ 12: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민석소극장	Venue	Minseok Small Theater, B1, Dongseo Univ. Centum Campus
내용	기획·유통 단계의 공연 프로젝트 및 국내외 우수 공연유통 플랫폼을 홍보하는 발표 세션	Content	Presentation sessions promoting performing arts projects at the planning/distribution stage, as well as lea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platforms

참여단체 Presenters

Date	Group	No.	Presenters	
10.03. (토)	Dele gates	1	[Korea] 서울문화재단 /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	[Australia] 아들레이드 프린지 / Adelaide Fringe	
		3	[Indonesia] 솔로국제공연예술제&국제탈축제 / SIPA(Solo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IMF(International Mask Festival)	
		4	[Brazil] 파벨라사운즈 / Favela Sounds	
	Artists	무용 Dance		음악 Music
		1	[Korea] 프로젝트모임 / Project MOIM	9 [USA] 얼라이언스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 Alliance Artist Management, Inc
		2	[Korea] 모든 컴퍼니 / MODEUN COMPANY	10 [Korea] 더 미들 / The Middle
		3	[Korea] BWC댄스컴퍼니 / BWC Dance Company	11 [Korea] 국악브라스밴드 시도 / XIIDO
		4	[Korea] 경희댄스시어터 / Kyung Hee Dance Theater	12 [Korea] 음악그룹 결 / Music Group Kyul
		5	[USA] ODC / ODC	13 [USA] TBA 에이전시 / TBA Agency
		6	[Taiwan] 쉬첸웨이 댄스 컴퍼니 / Hsu Chen Wei Dance Company	14 [Korea] 친친탱고 / CHINCHIN TANGO
		7	[USA] 데이턴 컨템포러리 댄스 컴퍼니 / Dayton Contemporary Dance Company	15 [Korea] 컨트리공방 / Country Gongbang
		8	[USA] 레니 해리스 퓨어무브먼트 아메리칸 스트리트 댄스 시어터 / Rennie Harris Puremovement American Street Dance Theater	16 [Korea] 모던국악밴드 탈피 / TALPI
	Dele gates	1	[USA] 칼 폴리 아트스 / Cal Poly Arts	
		2	[USA] 헨리 J. 카이저 센터 / Henry J. Kaiser Center	
		3	[Romania] 시비우국제연극제 / Sibiu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FITS)	
		4	[USA] 웨스턴 아트스 얼라이언스 / Western Arts Alliance	
	Artists	연극 Theater		다원 Multidisciplinary
		1	[Taiwan] 씨 터틀 택틱 / C Turtle Tactic	9 [Canada] 매멀리언 다이빙 리플렉스 / Mammalian Diving Reflex
		2	[Korea] 극단 코코 / COCO Theatre Company	10 [Spain] 인섹토트로픽스 / Insectotrópica
		3	[Korea] 극단 베다 / Vaeda Theater	11 [Korea] 아이모멘트 / IMOMENT
		4	[Korea] 네이키드블루스 / NAKEDBLUES	12 [Korea] 리타이틀 / LETITLE
		5	[Korea] 연극 놀이터, 씬 / Theater Playground, Shiim	13 [Canada] 레 그로 조르테유 / Les Gros Orteil
		6	[Korea] 극단 바문사 / Theater Company BAMUNSA	14 [USA] 소조 / Sozo
		7	[Korea] 부산문화회관 <그의 하루> / Busan Cultural Center <His Day>	15 [USA] Blue 13 댄스 컴퍼니 / Blue 13 Dance Company
		8	[Korea] 넥스트 랩 스테이지-26 / NEXT LAB STAGE-26	

비팜 저스트 텐미닛 BPAM Just 10 Minutes

일시	2026.10.02.(금) ~ 10.05.(월) 10:00 ~ 12:00	Dates	2026.10.02.(Fri.) ~ 10.05.(Mon.) 10:00 ~ 12: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지하1층 컨벤션홀	Venue	Convention Hall, B1, Dongseo Univ. Centum Campus
내용	공연예술단체와 델리게이트 간의 작품 유통을 위한 1:1 비즈니스 미팅	Content	1:1 business meetings between artists and delegates for the distribution of works

일자별 미팅 장르 Meeting Genres by Date

10.02.(Fri.)	10.03.(Sat.)	10.04.(Sun.)	10.05.(Mon.)
종합 All Performing Arts	연극, 다원 Theater, Multidisciplinary Arts	무용, 음악 Dance, Music	종합 All Performing Arts

일자별 미팅 일정 Meeting Schedule by Date



미팅 일정은 델리게이트 및 아티스트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eeting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delegates or artists.

매칭은 사전 신청 기반으로 운영되며 잔여석에 한해 행사 당일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Matching is based on advance registration, with on-site registration available only for remaining slots.

비팜 아카데미: 커넥트 BPAM Academy: Connect

주제	이머징 얼라이언스 II	Theme	Emerging Alliance II
일시	2026.10.06.(화) 14:00 ~ 17:00	Date	2026.10.06.(Tue.) 14:00 ~ 17: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4층 북카페라운지	Venue	Book Cafe Lounge, 4F, Dongseo Univ. Centum Campus
내용	공연예술 유통 플랫폼 관계자를 초청하여 해외 공연예술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이어가는 오픈토크 행사	Content	An open talk event inviting experts in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platforms to share their experience and foster networking among industry professionals
대상	해외진출 및 공연예술 유통에 관심 있는 예술가 및 산업 관계자	Target Audience	Artists and arts professional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expansion and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초청 연사	· 파이살 키웨와 (바임바 재단 예술감독) · 레아 필리프 (페스티벌 FAR 디렉터) · 브렌던 오크넬 (독립기획자) · 린 푸 (독립기획자)	Invited Speakers	· Faisal KIWEWA (Artistic Director, Bayimba Foundation) · Léa Philippe (Director, Festival des Arts de Ruelle) · Brendan O'Connel (Independent Producer) · Lynn Fu (Independent Producer)

비빔 치얼스! BPAM Cheers!

일시 2026.10.01.(목), 10.04.(일) 21:00 ~ 24:00

내용 공연예술관계자들 간 자유로운 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만남의 장

Dates 2026.10.01.(Thu.), 10.04.(Sun.) 21:00 ~ 24:00

Content A gathering for free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among performing arts professionals

10.01.(Thu.)	10.04.(Sun.)
해운대구 인근 공간 Haeundae-gu Area	서면 인근 공간 Seomyeon Area

찾아가는 컨설팅 KOFICE On-site Consulting by KOFICE

2026 K-Arts 컨설팅(경상권)
“공연예술 해외진출, 현장 기획자에게 묻다 - 준비부터 현장, 후속까지의 실전 노트”
 2026 K-Arts Consulting (Gyeongsang Region)
 “Taking Performing Arts Abroad: Practical Notes from Field Experts —
 From Preparation to On-Site Practice and Follow-Up”

일시 2026.10.03.(토) 14:00 ~ 17:00

장소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4층 북카페라운지

내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공연예술 해외진출 실무 프로그램, 현장 기획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통 단계별 노하우 공유 및 장르별 라운드테이블 컨설팅 제공

대상 해외진출 및 공연예술 유통에 관심 있는 예술가·기획자

Date 2026.10.03.(Sat.) 14:00 ~ 17:00

Venue Book Cafe Lounge, 4F, Dongseo Univ. Centum Campus

Content A practical program on taking performing arts abroad, presented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KOFICE). Industry professionals share practical know-how from each stage of the distribution process and provide genre-specific roundtable consultations based on their field experience.

Target Audience Artists and producer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touring and performing arts distribution

western arts alliance

MEET U.S. ARTISTS & AGENTS!

Western Arts Alliance (WAA) is the only official delegat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A is a community made up of agents and artists covering the full spectrum of performance: **music, dance, theatre, and more!**

◎ Alliance Artist Management
 ◎ Blue13 Dance Company
 ◎ Cal Poly Arts
 ◎ Dayton Contemporary Dance
 ◎ Henry J. Kaiser Center for the Arts

◎ ODC/Dance
 ◎ Rennie Harris Puremovement
 ◎ Selby Artists Management
 ◎ SOZO
 ◎ TBA Agency



Learn more: <https://www.westarts.org/pad-x>

香港演藝博覽 Hong Kong Performing Arts Expo

HKPAX

2026.10.9-13

PASSION IN MOTION

A Platform for Performing Arts
Exchange and Collaboration

Showcase × Pitching × Conversations × Networking

Official Website



www.hkpax.org.hk

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2026

大道芸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WHERE THE CITY BECOMES A STAGE.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2026

31 OCTOBER – 3 NOVEMBER 2026
SHIZUOKA, JAPAN

Learn More About Us



WEBSITE



INSTAGRAM



Carefully selected artists from Japan and around the world transform the streets of Shizuoka into extraordinary stages. Experience outstanding performances at one of Japan's largest street performing arts festivals.

Through our partnership with BPAM, we promote artist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rtists to perform in both countries.



Yusaku Mochizuki



DAIDOGEI
WORLD CUP IN SHIZUOK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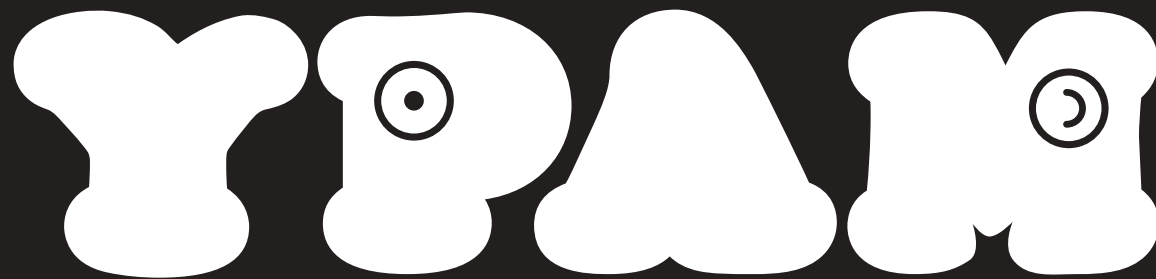
DaidogeI World Cup Executive Committee

www.daidogeI.com

BIENNALE CINARS 26

La conférence internationale des arts de la scène
The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Conference

9-14 Nov. 2026
Montréal



Yokohama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eeting

YPAM Returns 5-14 February 2027

Professional Registration is Now Open

Join us in Yokohama to connect with peers,
exchange perspectives and
explore potential collaborations
across borders and disciplines.



Early Bird Discount

JPY **8,800**

Until Wednesday 4 November 2026, 9:59 JST

Standard Rate

JPY **13,200**

From Wednesday 4 November 2026, 10:00 JST
to Sunday 14 February 2027, 17:00 JST



ypam.jp

Supported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Fiscal Year 2026

주최 Host



주관 Organizer



협력 Partners



크레딧 Credits

주최 Host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주관 Organizer

(재)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대표이사 송성준 CEO, Sungjun Song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김형준 Casa Kim

전문위원회 Artistic Committee

양정웅 Apollo Yang | 오세준 Sejoon Oh | 신은주 Eunju Shin
이정윤 Jeongyun Lee | 계명국 Victor M.K. Kye | 계성원 Sungwon Kye
김성희 Seonghee Kim | 윤종연 Jongyeoun Yoon

해외 컨설턴트 Global Consultant

제이크 정 Jake Chung

예술유통지원단 Arts Distribution Support Division

단장 Executive Director of Arts Distribution Support Division

박승환 Jerry Park

차장 Senior Manager

박성관 Sunggwan Park

선임연구원 Senior Researcher

원향미 Hyangmi Won

대리 Assistant Manager

김희선 Heesun Kim

사원 Associate

강현우 Hyunwoo Kang | 김명진 Myeongjin Kim
김은수 Eunsu Kim | 장현석 Hyeonseok Jang

코디네이터 Coordinator

강민주 Minju Kang | 전길영 Rebecca Jeon

인턴 Intern

이도훈 Dohhoon Lee | 노영림 Youngrim Noh | 김효연 Hyoyeon Kim

무대기술팀 Stage Technical Team

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

이성범 Seongbeom Lee (Bailey)

기술조감독 Technical Assistant Director

김태원 Taewon Kim (Ted)

기술스태프 Technical Staff

최아현 Ahyeon Choi | 이유정 Yujung Lee

김은의 Eunui Kim (Neve) | 박재흥 Jaeheung Park

무대총괄감독 Head Stage Director

최승환 Seunghwan Choi

무대감독 Stage Director

손희승 Huiseung Son | 이상호 Sangho Lee

김명재 Myungjae Kim | 이영석 Youngseok Lee | 이하슬 Haseul Lee

무대스태프 Stage Staff

이병길 Byeonggil Lee | 이열우 Yeolu Lee | 유준호 Junho Yu

최혜리 Hyeri Choi | 이선준 Seonjun Lee | 박준현 Junhyeon Park | 이강산 Gangsan Lee

조명총괄감독 Head Lighting Director

박정국 Jungguk Park

조명감독 Lighting Director

김범철 Bumchul Kim | 조종식 Jongsik Jo

이건 Gun Lee | 이준석 Junseok Lee

조명스태프 Lighting Staff

윤세훈 Sehun Yoon | 이승현 Seunghyun Lee

이정수 Jungsoo Lee | 조명재 Myeongjae Cho | 하유민 Yumin Ha

음향총괄감독 Head Sound Director

박정규 Jeonggyu Park

음향감독 Sound Director

구민성 Minsung Goo | 우수민 Soomin Woo | 박진영 Jinyoung Park

이상민 Sangmin Lee | 배성식 Sungsik Bae | 배진수 Jinsoo Bae

서남교 Namgyo Seo | 최명진 Myeongjin Choi | 박성희 Sunghee Park

음향스태프 Sound Staff

한창민 Changmin Han | 김주찬 Joochan Kim

이환희 Hwanhee Lee | 정동열 Dongryul Jeong | 김홍렬 Hongryul Kim

홍보운영 PR Agency

AMC DESIGN

행사운영 Operating Agency

**PLAN
HIGH**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프로그램북
2026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 Program Book

발행일 2026년 9월
Publication Date September 2026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성준
Publisher Sungjun Song, CEO of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Published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84-1 Uam-ro, Nam-gu, Busan, Republic of Korea

공연 문의 051)745-7292
티켓 문의 051)745-7297
국내 델리게이트 051)745-7206
해외 델리게이트 051)745-7294
Performance Inquiries +82 51-745-7292
Ticket Inquiries +82 51-745-7297
Domestic Delegate Inquiries +82 51-745-7206
International Delegate Inquiries +82 51-745-7294

F. 051)744-7708

www.bpam.kr / www.bscf.or.kr

BUSAN INT'L PERFORMING ARTS MARKET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2026. 10. 1._{FRI} - 10. 7._{WED}

